



행사 개요 ..... 04

프로그램 ..... 05

기조발제 : 유산이란 무엇인가?

기조발제 |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 ..... 09  
닐 실버만 |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교수

주제세션 1 :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

발제 1 |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유산 해석의 경향 ..... 33  
알리산드라 커민스 | 바베이도스 박물관&역사협회, 관장

발제 2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 내에서의 유산 해석 ..... 47  
위지에 주 |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주제세션 2 :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유산의 해석

발제 1 | 문화 간 화해를 위한 유산의 해석 ..... 63  
윌리엄 로건 | 디킨대학교 교수

발제 2 | 스타리 모스트의 재건과 해석: 화해와 공존의 유산 ..... 81  
암라 핫지무하메도비치 | 사라예보국제대학교 교수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퍼낸 때 | 2019년 5월 14일

퍼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045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엮은 이 | 전진성 손다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CL-2019-DI-2

(c)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행사 개요

#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 **행사명** |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 **주제** |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유산의 해석

· **세션별 주제** | ·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  
·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유산의 해석

· **일시** | 2019. 5. 14.(화), 10:00 ~ 18:00

· **장소** |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볼룸 (6F)

· **주최/주관** |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참가 대상** | 약 300 명 (세계유산위원회 및 유네스코 대사,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 **공식 언어** | 한국어 (한-영 동시통역 제공)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 10:30	· 등록
10:30 ~ 11:10	· <b>개회식</b> - 개회사: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 환영사: 경제숙   문화재청장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축사: 이왕기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메틸트 뢰슬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
11:10 ~ 11:20	· 장내정리/사진촬영
기조발제: 유산이란 무엇인가?	
11:20 ~ 12:00	· <b>기조발제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b> - 닐 실버만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교수
12:00 ~ 13:30	· 오찬
주제세션1: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	
13:30 ~ 14:50	· <b>발제1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유산 해석의 경향</b> - 알리산드라 커민스   바베이도스 박물관&역사협회, 관장 · <b>발제2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 내에서의 유산 해석</b> - 위지에 주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 <b>패널 토론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과 유네스코의 역할</b> - 좌장: 최재현   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자: 알리산드라 커민스, 위지에 주, 이현경   캠브리지대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세계유산위원회 대사 2인
14:50 ~ 15:10	· 휴식
주제세션2: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유산의 해석	
15:10 ~ 16:30	· <b>발제1   문화 간 화해를 위한 유산의 해석</b> - 윌리엄 로건   디킨대학교 교수 · <b>발제2   스타리 모스트의 재건과 해석: 화해와 공존의 유산</b> - 암라 핫지무하메도비치   사라예보국제대학교 교수 · <b>패널 토론   스타리 모스트 사례로 본 유산의 해석과 문화 간 화해</b> - 좌장: 한숙영   국제기념물협의회(ICOMOS) 이사 - 토론자: 윌리엄 로건, 암라 핫지무하메도비치,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세계유산위원회 대사 2인
16:30 ~ 16:50	· 휴식
라운드테이블: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유산의 해석	
16:50 ~ 17:50	- 좌장: 서경호   서울대 명예교수 - 패널: 닐 실버만, 알리산드라 커민스, 윌리엄 로건, 암라 핫지무하메도비치, 위지에 주
17:50 ~ 18:00	· 폐회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조발제

유산이란 무엇인가?



# 기조발제

## 유산이란 무엇인가?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



닐 실버만 |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교수

닐 애셔 실버만(Neil Asher Silberman)은 문화유산 관련 활동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작가이자 유산해석전문가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ICOMOS의 문화유산 해석 및 해설 국제위원회(ICIP) 초대회장으로 역임하여 지난 수 십년간 기구를 이끌어왔으며, 2008년 문화유산 해석과 해설을 위한 ICOMOS 헌장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의 편집장을 맡은 바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벨기에의 대중 고고학과 유산 설명을 위한 이나므센터(Ename Center for Public Archaeology and Heritage Presentation)에서 소장으로 재직 한 후, 2008년부터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 인류학과 교수진에 합류하여 유산과 사회를 위한 센터(Center for Heritage and Society)의 공동설립자가 되었다. 헤리티지 앤 소사이어티(Heritage & Society) 공동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8-2014), 현재 문화유산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과 동지중해 고고학과 유산학(Journal of Eastern Mediterranean Archaeology and Heritage Studies)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2012년 옥스포드 지침서- 고고학편 (The Oxford Companion to Archaeology, 2012), 유산의 미래 (The Future of Heritage, 2008), 누가 과거를 지배하는가? (Who Owns the Past?, 2007), 기억과 정체성 (Memory and Identity, 2007), 유산, 신기술과 지역개발(Heritage, New Technologies, and Local Development, 2006) 등 유산과 고고학 그리고 이들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수 많은 책을 집필 및 편집한 바 있다. 현재는 세계유산컨설턴트인 코헤리트 어소시에이트(Coherit Associates)에서 매니지먼트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옥스포드 지침서-공적방법론과 이론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Method and Theory, 2018)을 공동편집했다.

## 유산이란 무엇인가?

닐 실버만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교수

유산은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은 독특한 장소나 구조물, 아이디어들이 지역적, 세계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너무나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영속적으로 보인다. 적게는 수년부터 많게는 수 천 년의 세월을 버텨온 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산의 특성은 시간과 부패가 완전히 극복되긴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저항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문화 유산이라 인정받는 세계의 다양한 구조, 경관 및 관습을 포괄해보고자 하는 다양한 정의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국제 또는 정부 주체에 의한 정의는 공식적인 국가 목록의 특정 적격성 기준이나 세계 유산 목록의 등재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다. 반면 그 외의 정의들은, 최상의 조건 충족보다도 존중 받아야 할 문화적 다양성 부분을 더 민감하게 다루지만, 기준이 너무 모호하거나 일반적이어서 무엇이든 유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문화 유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화 작업부터 제안하려 한다. 역설적이게도 최근 수십 년 동안 유산의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모두를 포괄하게 되면서 통합된 개념정의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어둡고 잔인한 역사로 인해 과거를 반추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거나 전통적으로 신성한 장소지만 현대 상업 사회의 기념물들이 모여있는 등 유산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투쟁, 인권 운동, 미적 선호를 위해 사용되었던 유적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공동체 연대 목적 또는 여가 시간의 오락 장소로 남아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공공 유산의 관리는 더 이상 정부, 박물관 문화조직이 배타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워졌다. 유산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현대의 소수 민족, 원주민, 지역 공동체 및 이주민 집단의 존엄성과 정치적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 동안의 기념물과 무형 유산을 규정요소들은 물리적 보존을 위해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해당 유산이 왜 중요한지, 심지어 중요하기는 한지 그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른 것처럼 유산의 의미도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의 유산 규정에 관한 단일한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이제 기존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왔다. 간단히 말해 유산의 본질을 찾는 우리의 탐구를 물리적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유산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즉, 유산의 정의는 해당 유산의 역할에 기반하여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은 물리적 구조, 고고학적 특징, 공연, 기술, 전통, 물건 또는 경관 전반에 변화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익숙한 전경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 집단과 개인들이 안정적인 기반에 대한 갈망도 크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유산 자원이 모두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본질이 모두 긍정적이지도 않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민족 정체성이 확고하며 개별 장인의 창조성이 만발하던, 현대사회에 부재한 사회 요소들이 존재하던 과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유산이 가진 공통적인 역할이기는 하지만, 한때 그랬으니 미래 사회에 존재할 지도 모른다는 식의 비전은 한 사회가 '우리' 대 '그들'의 경쟁적 사고 방식을 스스로 흡수하고 있음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인류 최고의 성취와 공유 목표를 강조할 수도 있다.

폴 코너튼(Paul Connerton)은 본인의 사회인류학 저서 <사회는 어떻게 기억하는가(How Societies Remember)>와 <현대성은 어떻게 망각하는가(How Modernity Forgets)>에서 다양한 집단적 기억과 신성한 장소나 우수 건축물들과 연결성을 꾀해왔는지에 대해 다뤘다. 우리는 이러한 코너튼의 제시를 따라 사회적 집단과 유형 및 무형 유산과의 감정적 연관성에 더욱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유산을 '유산이 아닌 것(non-heritage)'과 구별하는 요소가 바로 이 감정적인 연결의 존재라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산이라는 범주 자체를 창출하는 요소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산은 특별하게 보존된 것들의 목록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히 보편적 활동 범주에 들어간다. 이 활동은 건설적이면서도 동시에 파괴적일 수 있는데, 인간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기르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반면,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배타주의자(국수주의자)를 야기시키는 윤리적으로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유산의 양면적인 사회적 기능은 유네스코의 #Unite4Heritage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문화유산이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단일 세계 자원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 분명히 모순된다. 따라서 유산장소는 특정 구성요소의 구비여부와는 상관없이 현대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존경, 분개, 숙고, 기념부터 폭력갈등의 초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우리는 유적지의 유형적 시각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적 의미에 대해 간과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역사적 기념물의 보전이 사회의 내재적 공익으로 보게 되었나.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미술사학자이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초대 기념물관리 국장이었던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l)은 1903년 본인의 에세이 <문화 유산의 현대적 숭배>에서 새로운 기념물 보호법 제정의 정당화를 꾀했다. 리글은 이전에는 과거를 기리는 것이 개인적 혹은 종교적인 문제였다고 말한다. 기념비는 존경 받을만한 선조나 기적 행위 및 기타 주목할 만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 가족 및 개인에 의해 임의로 세워졌다. 그러나 리글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특정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물리적 흔적들은 점점 정부에 의해 관리 받을 것이고 정부의 자

원을 관리하고 분류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이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정부는 리글 자신과 같은 유산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뛰어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념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해 로라제인 스미스(Laurajane Smith)의 <공인된 유산 담론>, 혹은 철학자 에릭 매티스(Eric Mathes)의 유산의 '긍정적인 관점'과 같은 용어가 탄생하였다. 간단히 말해, 전문 행정가와 학자 집단이 합스부르크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등장하여 유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제 유산은 법에 준하는 특별한 범주가 되어 현재의 풍경과 도시경관에서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보호받게 되었다. 공식 기념물을 지정할 권한이 행정가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보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과거는 산업화된 현대에서 분리되었다.

과거가 현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던 이전과 다르게 '과거'가 '현재'와 분리되어 담당 정부 부서에 의해 따로 관리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예전에는 전 세계와 모든 것이 하나의 유산 지역으로 간주되어, 인류학자인 키스 바소(Keith Basso)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해 온 많은 토착민들에게 지혜란 실제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소는 미국 남서부 지역 서부 아파치의 핵심적인 문화적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관 내 주요 특징들이 어떻게 조상의 위업, 고대 전투, 영토 경계선, 우주 창조 신화가 지상에 남긴 흔적에 대한 시각적 증거가 되는지에 주목했다. 경관 전체가 역사적 기록의 연상작용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세계의 수많은 다른 고대 농업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고대 문건에 내재되어 있는 암시들 또한 현재 속에서 지속되는 과거라는 비슷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독특한 지형이나 지리 현상, 숭배되는 지역은 종교적 서사의 신뢰성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로 해석되어진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해 남쪽 지역 소금기둥과 같은 지형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연관되었고, 예리코 근처의 요단강 표면 위로 솟은 12개의 커다란 돌과 아이(Ai) 근처의 언덕 지역에 있는 '큰 돌 더미'는 각각 여호수아 아래 가나안 정복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불교의 4대 사찰인 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는 부처의 삶을 지도 위에 담을 것을 가능케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가 이국적인 우화의 유물로 유명 이집트 지형물들을, 2세기에는 파우사니아스가 그리스 신화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그리스의 지형 지물을 묘사하였다. 이 고대의 '유산 장소'는 모두 상징적이면서도 숭배대상인 서사의 구체화이자, 각각의 물리적인 지형물은 특정 에피소드의 증거였다. 종합해보면, 경관의 특징은 신화적 서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산을 단순히 옛 것의 집합이 아닌 사회적 과정으로 보게 되면 유산을 정의하는 다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순례를 예로 들어보자. 주변 경관에서 현지의 창조 신화를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순례자는 때로 멀고도 낯선 장소를 찾아 형이상학적인 존재와의 직접 접촉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순례자들이 횡단한 경관 속 주요 지역과 특징은 여전히 신성한 사건이나 인격의 증거로 해석되었지만, 유물 숭배가 출현하면서 신성한 인물과 연결된 물건은 열정적인 기도에 답을 주는 신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매개

체가 되었다. 성인의 두개골이나 심지어 무덤을 만지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은혜의 원천과 직접 피부로 연결하여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 예술가와 탐험가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고대 유물과의 영적 교감은 세속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안코나의 치리아코(Cyriac of Ancona)는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골동품 연구가로, 15세기에 지중해 동부 전역을 여행하면서 오랫동안 무시되고 방치된 고전 유물을 연구하였다. 치리아코의 여정은 그저 정보수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교감을 향한 순례자의 원정이기도 하였다. 지금이야 망설임 없이 유물과 유적지로 일컫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반쯤 파묻힌 폐허, 석관, 고대 라틴어 비문을 어찌하여 지치지 않고 찾아다니는 한 성직자의 질문에 치리아코는 소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대답한다: "죽은 것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과거의 유물과 접촉할 시 봉인되어 있던 초월적 힘이 발산될 수 있다는 믿음은 스톤 헨지, 피라미드, 예루살렘성, 울룰루, 마추픽추, 심지어 UFO 승배자의 51구역 같이 고대와 현재의 영적 연관이 가능한 유적지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공식 혹은 비공식 장소에서 다양한 정도의 강도로 경험이 가능한 독특한 정의가 가능해진다. 즉, 유산은 역사에 대한 특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영적 정체성을 자극하는 장소나 물건을 말한다. 물론 특정 장소가 방문객으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반응을 불러 일으킬지 정의하거나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해석은 유산 담론의 한 부분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방문객은 그 어떤 세련된 해석에도 각자 자신의 부연설명을 붙이기 마련이며, 공식적인 해석이 방문객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적 장소에서의 주관적인 경험이 전문가가 선정한 기념물의 물리적 상태 보존여부와 현대 국가에 제도화된 법규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끊임없는 걱정의 요소로 뒤 덮혀졌을까? 리글 시대에 유산이 정부 통제 하에 놓이게 된 것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료적 효율성의 문제는 근대 국민 국가의 근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산으로 특정 장소가 공식적으로 지정되면 특수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그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교부금, 세제 혜택 및 법적 구속 조건으로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이든 국가 귀속으로 선언되든 간에, 소유권과 이전 조건을 규제하는 정부의 권리는 주권이 보유한 인정된 특권이다. 국가의 천연 자원 개발이나 보존이 규제 대상이듯 유산 장소의 매도, 개발, 보호는 양도할 수 없는 국가의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화 유산의 정부화 동기에는 주권적 권리나 통일된 관료적 관리의 효율성보다 더욱 강력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유럽에서 왕정과 이성의 시대가 서로 다른 국민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에 밀려나면서, 유산에 대한 서사도 새롭게 대두되었다. 보편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각 국가는 점점 복잡해지는 역사의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뚜렷한 민족적 인종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국립 박물관의 갤러리에 전시되기도 한 국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서사는 공공 야외극에서 상연되어 선사시대부터 청동기, 철기로 나아가 점점 더 복잡한 사회 조직과 예술적 성취를 통해 현대 국민 국가의 형태로 궁극적으로 실현된 진화하는 국가 풍조의 형상화를 재연하였다. 또한, 골동품 연구가가 심미적이거나 역사적 의미가 탁월한 유물이라고 선정되었던 개별 유산 장소가 점점 국정 기념물 부서나 문화부에 의해 공식적 유산 등록부에 통합되거나 관료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유산’은 애국적 기념의 장소, 즉 국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상징적으로 동원된 장소라는 뚜렷한 뉘앙스를 가진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된 몇몇 유물들은 국민 국가의 국경선과 영토적 야심을 반영하게 되어 기존의 유물과의 사이에 인공적 경계를 낳게 되었으며, 서사에 부합하지 않거나 때로는 뚜렷하게 모순되는 비공식적이거나 지역 유산 장소는 간과하는 경향도 있었다. 경제학의 관점과 유산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도 또 다른 유산을 정의가 가능하다. 대중이 유산 장소를 방문하는 소위, 문화 관광은 현대적 형태의 순례로, 즐겁거나 교육적인 경험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유적지의 심미적 가치, 접근 용이성에도 장소의 디자인과 소통 가능한 시설의 매력은 유적지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점차 유산과 관련한 경제적인 고려가 중요해지면서, 유적지는 독특한 기반시설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처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계를 짓고 매표소를 설치한 후, 식별 표지판을 몇 개 세우면 유산 지역으로 갓출 것은 다 갖췄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국내 및 국제 대중 관광이 증가하면서, 유산 지역은 테마파크, 자연 보호 구역 및 쇼핑 도시와 같이 다양한 휴양지의 하나가 되었고 유산 장소의 디자인도 이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졌다. 주차장, 하이테크 방문자 센터, 카페테리아, 휴게실, 기념품 가게 등 기본시설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이 점차 구체화되었고, 테마파크와 쇼핑몰 구성을 차용하면서 유적지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지식이나 특정한 팩트와 수치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유산 장소를 방문한 경험이 현대 유산 지역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국제기구 및 국제 개발기구의 유적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는 역사적인 구조나 특징을 나타내는 곳에 세심하게 고안된 인프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가시성과 '방문 가능성(visitability)'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든 유산이 무엇인지에 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먼저, 방문객에게 유적지란 과거에 대한 이상적이면서도 유쾌하게 조정된 비전을 볼 수 있는 일상의 루틴으로부터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준 산업적 정의이며, 경제 낙후로 인해 유적지의 설계 및 관리에 대한 투자를 꺾는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유적지란 외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부분인 일터의 일종이 되어 지역적 의의나 역사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식민지 이후 시대 독립과 시민권 운동 또한 ‘유산 장소’라는 용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에 의해 ‘공인된’ 유적지의 등장은 유적을 선정하는 주체인 국가의 정당화 서사에 큰 발언권을 부여했으며, 상대적으로 원주민이나 소수 민족이 가진 유산에 대한 해석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었다. 그러나 토착민의 권리를 결국 인정하고 지역 공동체와 소수 민족의 (항상 완전히 정치적이지 않다면) 문화적 가치를 합법화하자, 유적지는 오랜 시간 지배 세력이었던 다수 엘리트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다. 유산은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단합된 (아무리 부당하고 불평등하더라도) 사회로부터의 독립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산 장소의 현 진화 단계에 존재하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모든 정치조직과 민족의 역사적 주장과 진정성 기준의 수용과 존중을 장려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사회 집단이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합법화하고 법적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렇듯 제로섬 게임이 되면서 유산은 위협하게 변할 수 있다. 아요디아(Ayohda), 바미안(Bamiyan), 뷔

레아 위이어(Preah Vihear), 예루살렘, 팀북투(Timbuktu) 등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방적인 정의를 선언하고, 자기 정당화 방식의 역사를 서술하여 신성한 장소와 사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힘은 모두 '정체성 정치'의 시대에 유산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게 되었다.

다양한 21세기 유산으로서 유적지를 양심의 장소이자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원천으로 이용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 살상, 노예화, 약탈 및 무자비함으로 얼룩진 장소를 (현대 유산 해석의 기반시설을 갖추었지만 도덕적인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정식 유산 장소로 전환시키는 것은 유산 장소를 당파성을 위한 단상(platform)이나 단순한 오락의 현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대조되어 보이게 해준다. 이촌향도나 소수 민족의 강제 이주로 인해 대규모 인구 통계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이기에, 종종 접하게 되는 유산 관련 강렬한 선언들로 이전에는 문화 동질 국가로 간주되던 국가나 지역에서 문화적 인구의 통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사실, 유산 장소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21세기의 변주를 듣고 있다면 단일하고 종합적인 정의를 구하기 보다는 유산 장소가 탄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더 잘 이해해야 함이 분명해진다.

유적지는 갈등, 오락, 애국주의, 호전적 분파주의, 인권 운동이 동시에 발생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어느 것이 나머지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우선하는 기본적 요건이라 할 수 없다. 유산 선정에 대한 해당 지역의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전 유산 선정 개념에 바탕 한 관계망과 거의 항상 밀접하게 엮여 있다. 그러므로 유산 장소는 극적인 변화의 시기에 가치 또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수행 행동이 진행되는 장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시대의 초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산의 개념과 모순되게도 특정 해석이나 행동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명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유산을 알려면 유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코모스(ICOMOS)의 구스타보 아라오즈(Gustavo Araoz) 전 회장은 유산을 보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독보적이고, 국가 또는 지역적 가치를 지닌 불변적인 단일의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치가 공존하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치들이 담기는 '그릇(vessels)'로 간주하였다.

유산 장소의 의미는 정적이기 않고 그 물질적인 구성 요소에 내재된 것도 아니다. 정통성과 의미는 받은 것이기 내재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수세기 동안 보호와 기념을 위해 선택된 유적지는 각 시대별 (종종 모순되는) 집단 기억을 포괄한다. 그러나 집단 기억은 오래된 스크랩북에 있는 사진처럼 지나간 시간의 수동적인 추억거리가 아니다. 현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잠재력을 보유한 촉매이다. 본 발표의 도입에서 제안했듯이, 유산 장소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대의 문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유산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좋은 나쁜, 고귀하든 부도덕하든, 건설적이든 대립적이든 유산이 의미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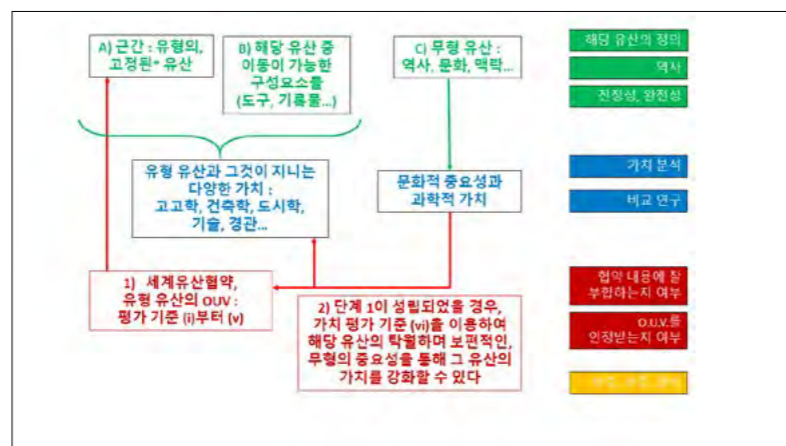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유산은 유형 혹은 무형의 형태를 띠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듯한 환상을 보여준다. 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기본적인 정의는 변화의 파괴적 영향과 타협할 수 있는 장소와 물건의 선정을 일컫는 것이다. .

오늘날 경제, 정치, 기후의 세계적 변화 정도와 강도가 심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작금의 혼란의 도피처를 찾게 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민족 정체성이 모호하지 않으며 순수 예술이 만개하던 과거를 그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산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사회심리적 과정이며 긍정적 파괴적 영향을 모두 갖지만, 그 외형에 많은 과학적 노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 물리적인 형태로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유산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도록 장려하려는 한단계 깊은 심리적 열망에는 그 같은 열정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산이란 무엇인가? 변화의 불가피성을 초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려고 기대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산의 사회심리학적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유산 자체의 사회에서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유산이 전 인류에 의해 보호받아 마땅한 단일한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대 과제는 유산이란 진화하는 다면적 형태의 문화적 표현으로 사회의 깊은 희망과 두려움을 반영한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다.



# 유산이란 무엇인가?

닐 실버만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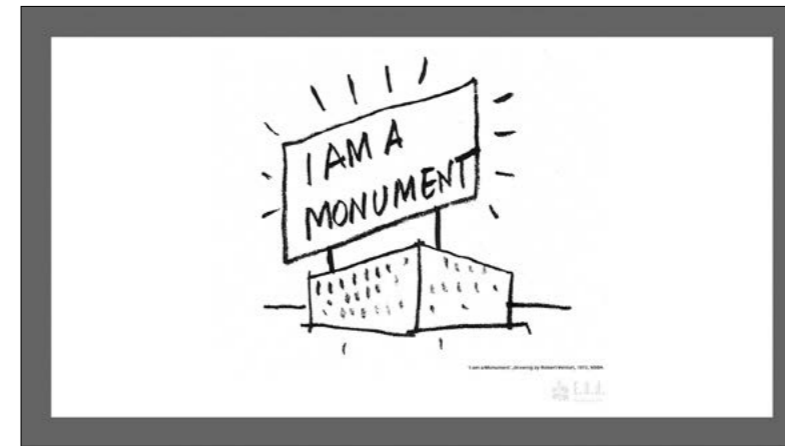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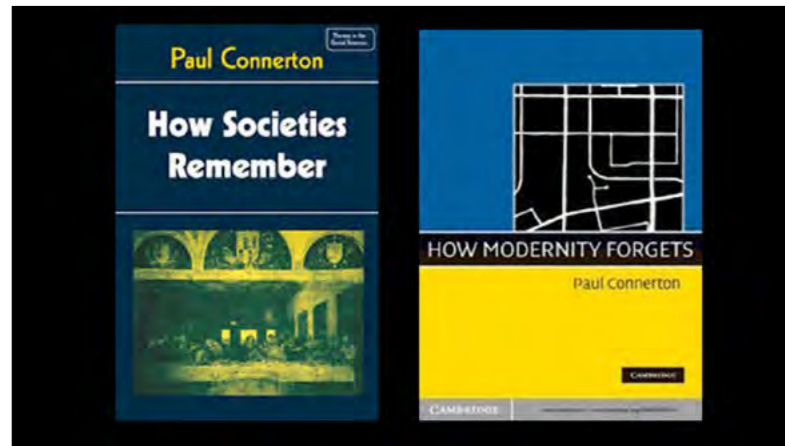
**한국 산업 투어, 처음부터 끝까지**  
**Industrial Tours of Korea, from A to Z**

Edutainment tours give you the joy of learning and traveling at the same time.  
 Are you looking for a unique tour?  
 Customized industrial tours of Korea await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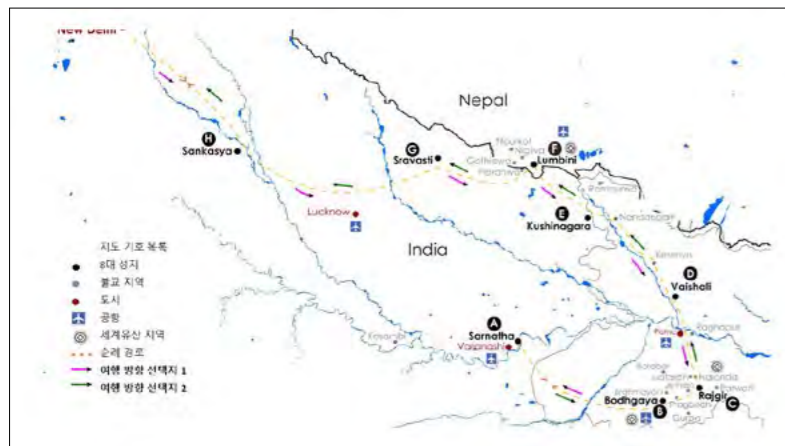
에듀테인먼트 투어를 통해 배움의 기쁨과 여행의 기쁨을 동시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맞춤형 한국 산업 투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주제세션 1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



# 주제세션 1

##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

### 발제 1

####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유산 해석의 경향



알리산드라 커민스 | 바베이도스 박물관&역사협회, 관장

알리산드라 커민스(Alessandra Cummins)는 현재 바베이도스 박물관&역사협회 관장이자 유네스코 바베이도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위원장(2012-2013), 2007-200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세계유산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사위원 (2008-2011), 국제박물관협회(ICOM) 회장(2004-2010),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위원장(2003-2005), CAM(Commonwealth Association of Museums) 부회장(1992-1998), IAC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aribbean Archaeology) 협회장 (1991-1995), MAC(Museums Association of the Caribbean) 창립 회장(1989-1992), WMW(World Monuments Watch) 선정위원회 (2016-2018)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국제관계, 박물관 및 유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현재, 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편집위원장이자 'EU-LAC-MUSEUMS, 박물관과 공동체: 개념, 경험과 지속가능성,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대상으로 (EU-LAC-MUSEUMS, Museums and Community: Concepts, Experiences and Sustainability in Europe,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연구책임자(PI)를 맡고 있으며, 이 외에도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위원회와 노예의 길 프로젝트 국제 네트워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물관 관리 및 큐레이터, 유산 관리 및 해석 분야에서 국내외 저명한 학자이기도 한 그는 영국박물관협회(Museums Association UK) 펠로우(1993), 바베이도스 공로 금관(Barbados Gold Crown of Merit, 2005), 사하메트레이 훈장(Royal Order of the Sahametrei of Cambodia)을 수상했으며, 2017년엔 CAM 공동집필자 그룹과 ICOM의 명예회원으로 위촉되었다.

##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유산 해석의 변화 추세 - 유산 개념에서 존재의 부재와 부재의 존재에 관하여

알리산드라 커민스  
바베이도스 박물관&역사협회 관장

### 서론 - 배경과 맥락

지난 2016년,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바베이도스 박물관&역사협회에서 왕립 아프리카 회사의 바베이도스 사업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진행되었던 질의응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질문한 대다수의 바베이도스 청중이 관심을 가진 것은 당시 이 회사가 바베이도스에 가져왔던 번영이나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한 자들, 혹은 그들이 저질렀던 경제적 착취, 그리고 이로 인해 과거와 현재의 영국이나 카리브 지역에 나타난 영향 따위와 같이 역사학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온 주제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중은 왕립 아프리카 회사와 바베이도스 노예제도 관련 유산 전반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왜 부재한가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 도시 안에서 왕립 아프리카 회사의 본부와 노예 수용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바베이도스의 노예 제도가 정말로 대서양 경제 발전의 정가운데 있었다면, 어째서 그러했고, 그에 대한 공교육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 또한 이러한 역사를 바베이도스의 시민과 방문객에게 알릴 장치(간판, 기념물 등)가 부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옳다. 노예 무역, 노예제, 군사 패권을 바탕으로 영국의 근대 경제 발전을 촉진했던 대서양 횡단 연결고리가 섬을 역사적으로 지배했다면, 왜 바베이도스인들은 이런 랜드마크의 해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가?

바베이도스 경관 내에 이러한 존재의 부재는 역사 박물관이나 역사책 바깥에서 꾸준히 다루어진 일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적인 규모의 농업 생산 지역을 찾아 볼 때에나 겨우 언급이 되는 정도이다. 바베이도스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곳에 그들의 유산에 대한 해석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장소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무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간과되어온 부분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상당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테마로 한 유산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섬 주변에 유산의 해석이 붙은 표지판이나 간판이 설치되고 있기도 하다. 바베이도스 세계유산위원회가 설계하고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서인도 제도 대학교와 바베이도스 박물관&역사협회가 의뢰하고 바베이도스 관광청이 후원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깨달음과 질문, 참여와 인증의 과정으로서, 이후 유산해석 경향의 변화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을 그 기원과 시간의 흐름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시대에 한 획을 그은 고전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The Wretched of the Earth), 1963>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척자는 역사를 만들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 모국의 역사를 끊임없이 참고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곧 모국의 연장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개척자가 쓰는 역사는 그가 약탈하는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고국의 역사 ... 고국이 취하는 것, 반하는 것,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룬다.

원주민에게 운명 지워진 부동성(immobility)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식민지의 역사(약탈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국가의 역사(탈 식민지의 역사)를 존재하게 만들겠다는 그들의 결정이 필요하다. (Fanon, pp, 50-5)

파농이 가진 식민지 세계에 대한 비전은 "구획으로 분리된 세계, 움직이지 않는 마니교의 세계, 동상의 세계: 정복을 행한 장군의 동상, 다리를 만든 기술자 동상, 자신을 확신하는 세계 ..."(Fanon, pp 51)였다. 따라서, 개척자가 원주민에게 주어진 '부동상(immobility)'의 숙명을 인지하면서 역사를 쓰고, 또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파농이 말한 '**동상의 세계(world of statues)**' 역시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무형에 상관없이 유산이란 그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 '창조의 과정(파농의 동상의 세계라는 예시에서 제시된 그대로)'인 것이다. 또한 개척자와 원주민이 가지는 조건을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것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런 과정은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공유된 역사의 해석을 결정하는 세계유산 협약과 같은 세계적 맥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식민주의는 삶의 여러 측면에 깊고도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박물관의 경우, 그들 수집품의 기원과 서사의 범위는 물론이고 현재의 전시 문화와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카리브 지역에 만연히 남아있는 식민지 유산 전체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도 넓으나, 이민에 대한 인식이 자라나던 옛 시대의 예를 하나 들어보려 한다.

서인도 제도 대학교에 재직중이던 젊은 연사학자 엘사 고베이아(Elsa Goveia) 박사는 '서인도 제도의 역사에 관한 연방의 날 전시'를 기획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중의 지식 속에 자리잡은 결함에 대한 해결책이자 새로운 국가의 기틀,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으로서 연방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대중의 지식을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발견했다.

고베이아 박사는 자신의 1959년 전시에 대해 소개하며, 서인도 제도의 교육기관들이 역사를 서술해 온 틀 안에서는 최초로 서인도 역사의 핵심에 대한 혁신적인 성명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고베이아 박사는 “역사가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한, 역사는 계속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고 적었다. (Goveia, 1959, p.2)

고베이아 박사는 카리브 지역의 역사를 매우 능숙하게 서술하고, 요약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제국의 발전에 있어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나아가, 그녀는 서인도 제도의 역사 중 여러 부분을 고의적으로 재고성함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흑인의 무자유”라는 개념이 가지는 특이성의 엄밀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내기도 했다. 고베이아 박사의 글을 살펴보자.

고베이아 박사는 '과거에 대한 수치심이 지식이 채워져야 할 장소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과거의 지식이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제 역할을 다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Goveia, p.42). 카리브의 역사를 관찰하기 위한 고베이아 박사의 개념적 접근법은 실로 혁명적이었다. 당시의 카리브 지역과 복잡한 과거를 결부시키는 '노예화'라는 속박에 대하여 그 지역의 박물관에서는 과거 표현된 적 없는 방식으로 생생히 묘사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서인도 제도인이라 여기는 많은 이들에게 고베이아 박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다.

이 국가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국가가 연방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국가의 정부는 곧 연방의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정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민지배 정부 앞의 피지배국과도 다를 바 없이,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무력한 정부로 판명될 것이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정부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던 초기라면, 아마도 반(反)영국 정도로 충분했을 것이나, 독립과 독립이 야기할 많은 문제에 직면한 지금은 우리 자신이 진정 서인도 제도인인지 자문하고, 인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Goveia, p.40)

미셸-롤프 트루요(Michel-Rolph Trouillot)가 쓴 논문은 기록 속에 보존되어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대부분은 묵살당하고, 무시되거나, 배경 속으로 밀려난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 역사는 결국 역사가가 본 현실을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역사는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누군가 알아차려주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트루요는 1995년의 저서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에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러한 선택적 묵살 행위(selective silencing)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주목했다.

물론 여기에도 이면이 존재한다. 즉, 역사란 침묵시킬 수 없는 이야기이며, 사방으로 퍼져나가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이다.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배우고 내면화하게된느 과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바라 역사인 것이다. 역사란 공식적으로 짜여진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나타나며, 과거의 관점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역사는 과거를 과거로서 연구한다.

트루요는 또, “인간은 행위자이자 동시에 해설자로서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사건과 과정은 대개 다양한 문서의 기록과 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이상적인 역사 서술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과거 해설자라 할지라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으며, 역사를 서술하는데 각각의 정보가 동일한 가치나 힘을 가진다고 간주할 수도 없다. 각각의 역사적 서술은 어느 선까지는 특별한 힘을 지닌 허구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트루요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침묵의 여러 형태에 주목하여 네 가지를 가려냈다.

- 정보의 원천이 만들어 질 때 발생하게 되는 침묵이 있다. 사건은,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초월하여 묘사되고 기억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다 기억되거나 기록되지는 않는다. 현실의 일부분은 어쩔 수 없이 침묵 당하게 된다.

- 역사의 아카이브, 즉 역사적 기록의 저장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침묵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가 생기는 과정에서는 선택이 이루어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결정이 내려지고, 기록된 과거의 일부는 침묵의 처분을 받게 된다. 기록이 보관되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과정의 침묵을 영구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때, 기록의 목적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는 해설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이 때의 해설자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야기를 전하는 자를 말한다.

- 해설자의 침묵도 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아카이브는 방대하다. 해설자에 의해 선별,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기록들이 묵살 당한다.

- 마지막으로, 모든 서술이, 다양한 집단이 과거로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표준'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비판적 독자, 일반 대중 등 읽는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 한 줌의 서술만이 결국 살아남아 '역사'가 된다.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국제회의와 같은 활동에는, 맥락에 맞추어 유산해석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기억의 유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과 같이 인간이 존재하고 유산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장소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역사란 유산이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샤론 맥도날드(Sharon Macdonald)가 제안한 것처럼 '단지 박물관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정체성을 갖는 수행의 표현'이었다면(Macdonald 2003, 3) 그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은 가치를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단순히 갤러리에 전시된 유산을 선택한 것만으로 정당화 되곤 하는 국가적 서사에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은 노예제도, 고용계약, 농장, 식민시대의 억압, 자유/강제 이주와 같은 공유된 유산이나 기억에 대한 카리브 지역의 흔한 인식과 결합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동시대 카리브 지역 정체성의 진화에 특별한 역할을 했다. 박물관과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서로에 대한 사고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국경이 없었던 초기의 세계를 재구성/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유된 정체성을 함께 되찾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경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문화 이론가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관람객은 다른 서사의 맥락 속에서 특정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야기의 정체성은 항상 전후 관계의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 ... 이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는 달리 박물관이 권력 및 특권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특히 어려운 일이다.

- 그러나 현대미술관들이 최근 '문화 센터'로 묘사되고, '계산된 불확실성과 의식된 불안전성'으로 설명되었던 건축가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의 전시 같은 모습이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 박물관은 그들이 소장한 컬렉션과, '일시적 안정화' 정도로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이란, 그들이 무엇인가 만큼이나 무엇이 아닌가에 의해 정의된다. 박물관이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면, 무엇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의 정체성은 바깥으로부터 결정된다. 박물관의 정체성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나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된다. 박물관과 상대방의 관계는 가부장적으로 사과하는 듯한 성향의 대화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 그것은 서사이며 선택인데, 그 목적은 단지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에 의해, 될 수 없는 것에 의해 스스로가 불편해진다. 그 자신의 불안을 확실히 함으로써, 관객이 '오랫동안 존재했으므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무언가가 미학적 관점에서 진실하고 가치 있을 것이라는' 보편화된 사고 논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내 생각에는 보고 보 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야기 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선별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관객 자신이 프레임인 동시에 프레임 속의 피사체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2006년 로라제인 스미스(Laurajane Smith)가 출간한 <유산의 사용(The Uses of Heritage)>은 오늘날의 유산 개념에 반항을 일으킨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스미스는 오래되고, 물질적이고 기념비적 형태를 갖춘 오래되고 미적으로 훌륭하며 유형인(tangible) 유산으로 정의되곤 하는 서구의 전통적 유산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러한 서구적 정의는 대개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이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관점을 내세운다. 이에 상응하여 나타난 대안적 유산의 개념은 기억, 행위, 정체성, 무형성, 불화, 장소 등과 같은 주제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더 큰 이유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이용해 탐구하고 ...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형태로써 유산이 사용되는 방법과, 정체성에 대해 이미 수용되어 온 생각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표하는데 유산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도전적이고 사고를 유도하는 스미스의 이 글은 유산에 대한 연구와 유산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가설과 맞부딪히기도 한다.

제자리에 존재하는 것, 기억과 연상을 새롭게 하는 것, 친척과 경험을 공유하여 현재와 미래의 사회 및 가족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과 같은 행위에서 '유산의 역할(heritage work)'을 발견할 때를 스미스는 깨달음의 순간으로 부른다. '유산은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고' - 그렇기도 하지만 - 꼭 물질과 관련된 것이기만 한 것 역시 아니고 - 역시 또 그렇기도 하지만 - '유산은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고, 소통의 행위이며, 현재에—그리고 현재를 위해 의미를 만드는 행위였다'.

최근 스미스의 <공인된 유산 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의 변수에 대해 논의하며 애슐리와 프랭크는 이렇게 주장했다. "유산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생각에 빚대어 정체성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사회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사람, 개념, 상상력 및 기술의 세계적 흐름은 기존의 집단/공동체/국가 정체성과 유산을 구성하는 지배 체계 및 담론에 도전하고 있다(Appadurai 1996, Urry 2007)."

이어서 "...중요한 것은 '내부'와 '외부'의 위치관계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차이점이 가지는 변화무쌍하고 경쟁적이며 수수께끼 같은 가정을 구성하는 권력의 관계 (Hall 1999; Littler 2005)"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산을 만드는 것을 곧 과거와 관련된 문화적 생산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를 활용하여 대중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펼칠 수도 있다. 유산은 사물, 건물 또는 장소나 심지어 무형의 관습이 지닌 어떤 고유한 자질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행하는 과거에 대한 가치 평가 정도로 해석된다. ‘만들어지는 것’인 유산은 수행적(performative)인 행위이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그들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을 적극적,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Robertson 2012)

따라서 ‘현재 속의 과거의 형태’로서의 유산(Littler 2005: 16)이란, 과거에 대한 선택, 기록, 해석, 그리고 해설 사이에서 타협하는 개방적인 과정을 말하며, 이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서로 다른 기회를 가진 사회 집단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형성된다.

### 유산 해석의 동향 변화

‘과거의 의미 또는 가치의 평가’를 협상하는 과정과 유산 제작을 ‘수행 행위’로 인정/인식함에 있어, 또 마지막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 감각을 적극적이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 어떠한 관계성이 존재한다. 그 속에 해석이 존재해야 하며 현장, 기념물, 장소, 공간, 예술, 기록 보관소, 인공 유물 해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상황에 대한 의식과 양심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판, 투어, 앱, 웹사이트, 가이드 북, 박물관 전시, 안내 센터 등 무엇을 거치건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의 ‘자기 감각’을 ‘표현’해준다.

위에 요약된 유산 해석 자원의 개발은 스미스가 명시한 특징들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유산 해석 방식에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산은 과거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유산은 관여의 과정이었고,

의사 소통의 행위였으며

현재에, 현재를 위한 의미를 만드는 행위였다.

내 견해로는 우리는 이러한 형성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해석 행위가 단순히 기술적 노력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나 현장 방문 시 ‘진정성’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원, 역할 그리고 그 ‘업적’이 마음에 든다면 유산과 해당하는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유산 해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이해와 전문 직업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온 핵심 요소다.

국가/지역/국제 역사의 상호 연결 - 2차 세계 대전 이후 ‘윈드러시 세대(Windrush Legacy)’로 명명된 이주의 역사를 통해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을 이해하는 등 서로 연결된 패턴들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기

독백에서 대화적 해석 및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이동

수동적 존재에서 적극적 참여로 이동

권위중심 담화에서 참여중심 대화 - 공동 큐레이팅 과정으로 이동

사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 접근으로 이동

다분야 및 다학제 간 프로세스 활용

숨겨진 역사를 복원하고 소외된 기억을 주류화

박물관/유산 관행에서 유산/박물관 목적으로 이동

장소의 중요성 강조에서 사람의 중요성 강조로 이동

내 견해로는 유산이 더 이상 기념비성, 고대성, 고정성 또는 영속성이라는 확실성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유산의 정의는 ‘방해’와 ‘불안정화’, ‘전위(dislocation)’의 속성을 가진 ‘계산된 불확실성과 의식적 불완전성’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전위’는 카리브인들의 최우선 순위임을 감안할 때 카리브해 유산/박물관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이다. 다음은 ‘혼란 및 전위’라는 개념을 다루는 데 채택되었던 전략들 중 일부이다. 해당 개념들은 카리브인의 잠재 의식에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유산 관련 실무자가 경계성, 회복력, 개입, 이식 및 상호작용이라는 카리브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제들을 다루기에 유용한 모델이고, 또한 ‘공연’ 유산(performing heritage)에서 소외된 역사를 가장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로즈를 넘어뜨리자(Rhodes Must Fall)**’는 2015년 3월 9일에 시작된 항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원래 세실 로즈(Cecil Rhodes)를 기념하는 케이프 타운 대학(UCT)의 동상과 그러한 기념비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해당 동상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남아공 전역과 학계 전역에서 ‘탈식민지’ 교육이라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운동이 더 느리기는 했지만 더 오래된 ‘박물관(실제로는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 탈식민화’ 운동과 교차했다는 사실은 로라제인 스미스가 ‘공인된 유산 담론’이라고 불렀던 것을 따져 묻는 메커니즘의 재활성화를 통해 매개 변수와 유산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유산에 의미를 할당하고,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내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수많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전히 작동되어야 하는 공동 또는 지역적, 국가적, 문화적으로 가치를 매겨주는 방법론을 다룬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각품을 단상에서 제거하거나 눈에 띄는 지역에서 추방하는 대신, 런던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인 휴 로크(Hew Locke)는 창의적인 대응법을 채택했다. 값싸게 구한 여러 겹의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끔찍한 의상으로 조각상의 이미지를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로크는 지나치게 미화된 과거를 조명하고 싶어 한다. 식민지배나 노예 매매에서 득을 본 이미 고인이 된 백인 남성 동상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간과되거나 소외된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로크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이다. 동상과 제국 건설자의 권력에 대한 로크의 관심은 가이아나에서 보낸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 가면서 매일 지나가던 빅토리아 여왕 동상이 있었다. 그 동상이 쓰러져서 식물원 뒤쪽에 누워 있었는데, 실상 버려진 것이었다.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로크는 회상한다. 가이아나의 독립 투쟁 와중에 동상이 날아간 것이지만, 영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후 로크가 돌아와서 본 것은 복 구되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상이었다.

역사적 사건들이 기념되고, 버려지고, 재평가되는 다양한 방식이 그의 작품 활동의 중심에 있다. 1980년대부터 로크는 식민지 시대 영웅들의 대중 조각상의 대형 사진을 꾸며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군, 박애주의자, 노예 상인, 빅토리아 여왕의 조각상이 그 주인공이다. 버밍엄에서 로크는 실제 공공 조각에 장식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퀸 광장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 동상을 '부두(Voodoo) 여왕'으로 바꿔 놓았다. 바베이도스 박물관이 EULAC가 자금을 지원한 전시회 '도착한 이들: 영어를 사용하는 카리브해 세계의 예술과 이주(Arrivants: Art and Migration in the Anglophone Caribbean World)'를 열었을 때, 박물관 입구에는 로크가 재해석한 넬슨 제독의 조각상이 배치되었다. 영국 식민지였다 독립한 바베이도스가 조각상의 위치를 '국가 영웅 광장'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바베이도스를 영국의 손에 쥐어 준 영국의 보호자 넬슨의 유산을 둘러싼 역사적 서술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로크가 넬슨을 대하는 방법은 다른 기념물을 다루는 방식과 다르다. 정복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뒤덮기보다는 식민지 시대를 특징 짓는 폭력성의 오오라를 가진 유령처럼 등장한다. 대리석 단상에서 조각상을 둘러싼 단철 난간은 묶여 있는 노예의 줄로 재해석되었다. 녹슨 청동으로 된 넬슨의 몸에서는 두개골과 시체가 침묵하는 증인과 희생자처럼 등장한다. 그의 군복 상의는 제국 해군력의 화신이었던 넬슨의 역할을 강조하여 유니온 잭으로 변형되었다.

식민지 시대와 식민지 이후 시대 사이를 이동하여 이러한 시간 척도가 어떻게 전시의 방식을 구성했는지를 보여준다. 문화적 배경에서 민족지학적(ethnographic) 대상을 제거하여 박물관의 시각 체계에 삽입해버리는 것은 물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의 역동적인 연결망을 깨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물관의 민족지학 소장품 전시 체계는 식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되어 특정 공동체의 소외라는 결과를 낳았고, 원주민의 지식과 사물 간의 관계에 따라 수집물을 재구성하면 식민지 이후 시대의 새로운 의미로 변화가 가능하다.

〈**행동하는 페다고지: 정치의 예술을 향해(Performing Pedagogy: towards an Art of Politics)**〉(1999)에서 찰스 가로이안(Charles R. Garoian)은 박물관 공간을 공연과 공연예술로 활성화시키는 이유를 “박물관 고유의 특권적인 기관 구조를 깨뜨리고 박물관 공간을 사물의 저장고가 아니라 미학적 고찰과 논쟁의 장소로 바꾸기 위한”(1999: 211-212) 하나의 방법으로 정당화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박물관 공간이 희곡화, 개입, 상호 작용 및 각색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과 공연 주도 이니셔티브의 관계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참여 '행위자'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라고 상상하는지를 공연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카리브 공연 예술 유산에 관한 큐레이터의 노력에 대해 크리스타 톰슨(Krista Thompson)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러한 큐레이터 프로젝트는 [...] 박물관에서 카리브 예술(또는 역사)의 전시 및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대안을

제공한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 정치적 미학적 맥락에서 예술 대상, 박물관 및 전시장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큐레이터는 지역 내 예술, 시각 문화, 시각적 역사에 영감을 받은 대상과 표현 및 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박물관이나 전시의 개념은 상당히 수행적(performative)이며, 다중감각적이고 덧없게 느껴질 수 있는 카리브 해의 예술적, 시각적 행위를 통해 어떻게 재고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큐레이션 형태는 가시성의 한계와 잘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역사를 파고드는 전시들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헤게모니적 해석과 표현 체계에 저항하여 다양하고 때론 상반되는 과거의 표현들에 편히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까?

2008년 8월, 윌리엄 커민스(William Cummins)의 사진과 함께, 소니아 보이시(Sonia Boyce)의 '사탕수수 수확축제(Crop-Over)'라는 2화면 비디오 설치물이 바베이도스 박물관의 커나드 갤러리(Cunard Gallery) 상설 예술 전시를 일시적으로 대체했다. 예술 사학자인 앨리슨 톰슨(Allison Thompson)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실제이거나 예술가에 의해 상연된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표본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의사 다큐멘터리, 의사 판토타임의 이벤트 콜라주로, 이 혼합된 볼거리의 여러 차원을 미묘하게 드러낸다.” (Thompson 2009, 148) 톰슨은 또한 “보이시의 비디오는 문화 사학자들의 학자적 논평을 대중 문화와 전통 문화의 장면 속에 끼워 넣고, 의도적으로 해석과 표현을 층층이 쌓아 이러한 문화적 아이콘을 식별, 역사화하거나 문제화한다. 실제로 현대 카리브 박물관 전시회에서 카니발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비판적인 미술 담론에서 잊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카리브해 정체성의 상징으로써 카니발이 가진 연관성은 목살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보를 얻었으며 암묵적으로 현대 카니발을 뒷받침하고 있는 저항의 개념을 고려할 때, 카니발이나 유사 축제의 큐레이팅은 박물관 전시의 담론과 전시의 핵심에 있어야 하지만, 그 대신 대체로 인위적이고 인류학적인 행위로 남아있다. (Paul 2007, 32). 많은 박물관에서 그러한 침묵과 '행위적' 차원의 카리브해 유산이 부재한 것은 카니발 국가를 진정한 카리브식 생활 방식, 언어 및 사전학적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mas', 즉 가장 무도회나 카니발을 여는 것은 지역의 역사적 과거와 현대 속에서 기능상 진짜 '대안적 정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미디어에 중점을 둔 학예 활동의 거짓 선을 명확히 드러낸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시 공간 형식은 지역의 무형 유산이 지닌 이러한 측면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행위가 가질 거라 추정되는 정당성에 대한 카리브 인의 열망을 본질적으로 승화시킨다. 그것은 '정신적'이라는 신앙의 특유성을 가졌으며, 정체성과 존재의 중심으로서 전시회의 웅장한 서사에 대한 이전의 각주를 실험하고 재확인하는 잠재력을 가진 '카니발'국가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역사, 기억 및 정체성에 대한 논쟁과 의사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장소가 된다. '관객성'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역사로 아직 새겨지지 않은 도망자의 서사를 보존하고 방대한 구전 역사 자료를 모아 과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려는 노력이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서술에 대한 권위를 기관에서 다양한 선거구로 내보내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큐레이터의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해당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서사적 합창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나타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박물관을

생각했다.

카리브해 문화/정체성이 본질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공연 예술 작품이라는 '무형 유산'은 아마도 카리브해 역사, 정체성, 문화에 대한 타당한 표현이라는 개념과 가장 많이 겹친다고 생각한다. 현대 카리브의 큐레이터는 박물관이 역사적 현대적 경험에 너무 자주 처방하는 침묵, 부재 및 전위를 표현하는 방법과 직접 싸워야 한다고 요구한다.

'부재의 존재'는 카리브 해에 예속된 유산을 개조/복원/이전하는 과정에 종사한 사람들이 따져 물어온 것이다.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느껴지고 보이고 들리는 것과 씨름하며 그들은 기억의 장소가 확인되고, 나타나고, 해석될 수 있는 특징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초기 개념은 사람, 행동, 아이디어 등의 부재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 나왔으며 다양한 미디어와 관점 속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의 긴장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존재는 두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첫째, 각 장소에서 지배적인 담론을 알리고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나 대상, 내용, 체계 또는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둘째, 각 장소를 경험하고 대표할 때 다른 감각에 비해 특히 시각에 특권을 부여해서. 해석의 연구 기초로서 부재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를 개념화하는 방식과 지배적인 담론을 문제 삼는다. 각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와 연구는 부재의 장소를 확인한 다음 해석적 행위를 통해 조사된다.

부재 확인은 생체검사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는 각 위치에서 현장 조사를 구성하는 절차적 방법이다. 개념적·물질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생체검사 방식은 도시를 예컨대 '신체'로 생각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각 도시의 구체화된 경험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현장조사는 생검을 통해 예컨대 사망, 성별, 소수 집단, 의식, 순례, 지도 작성, 일시적인 구조물 및 현장의 역사적 이용 등의 부재를 드러냈다. 결과적인 해석에서, 부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힘의 역학관계, 사회적 배제, 문화적 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조되었으며, 주제와 현장 둘 모두의 부재를 조사함으로써 연구는 각 현장 자체의 부재와 현장 내 부재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제공한다.

\* 우리는 소외된 집단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고 문서화 및 보존 작업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문화를 더 넓은 사회와 공유하도록 노력을 계속하여 인간의 전반적인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접근되고 내면화 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 가치화를 위해서는 특히 토착민과 다른 소수 민족의 소외뿐만 아니라 경쟁을 벌이는 역사/기억의 표현과 관련하여 완전한 참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 박물관 내 전시 공간은 사회의 가장 긍정적인 경험이나 기억을 표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포함하여 역사적인 이야기 표현에 보다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사회 지배 계급의 기념비도 역사적인 기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꼭 제거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역사 시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외되거나 배제된 역사를 위한 공간도 비슷하게 창출되고 한정되어야 한다.

\* 위와 유사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사와 연관될 때는 공공교육이 추가 되어야 한다. 즉, 사회 및 그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역사와 역사적 관계의 속성을 가진 다양한 인구 집단 내에서 이해를 장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 따라서 교육 및 참여는 단순히 역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산 보존과 관련된 인권, 토착민 외 소외 집단, 문화적 자산, 무형(과 유형) 문화 유산 및 윤리적 고려에 관한 현행 프로토콜 및 정책의 맥락을 고려하여 역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관은 유산으로 '생각해 봄 직한' 것도 제한하고 과거를 침묵시키곤 한다. 하지만 논란이 일어나는 유산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이는 꽤나 복잡한 과정인데, 식별하고 위임하고 목록을 편집한다는 측면 때문이라기보다 '과거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합리적 과정에 도달할 방법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 속에서 국가와 공동체는 문화 유산(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다 미묘하고 포괄적인 해석으로 제시하고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물론 선택도 해야 한다.) 이것은 '토지의 의식적·무의식적 형성과' 관련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역사 공간과 기억, 관습과 전통, 존재와 부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으며 유산 공간과 장소의 해석적 침묵을 해명하고 그 중요성을 특징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참고 문헌

-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shley, Susan L. T. & Sybille Frank. (2016). Introduction: Heritage-Outside-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2:7, 501-503.
- Fanon, Frantz. (1961) (1963). *The Wretched of the Earth*. Grove Press.
- Garoian, Charles R. (1999). *Performing Pedagogy: towards an Art of Politics*. Albany Suny Press.
- Goveia, Elsa V. (1959). 'An Introduction to the Federation Day Exhibition on Aspects of the History of the West Indies', University College of the West Indies.
- Hall, Stuart. (1999). "Whose Heritage? Un-settling 'the Heritage', Re-imagining the Post-nation." *Third Text* 13 (49): 3-13.
- Littler, Jo. (2005). British heritage and the legacies of 'race' in Littler and Naidoo (eds.) *The Politics of Heritage*, Routledge
- McDonald, Sharon. (2003). 'Museums, national, postnational and transcultural identities', in *Museum and Society* 1 (1): 1 - 16.
- Paul, Annie. (2007). *Visualizing Art in the Caribbean*, in *Infinite Island: Contemporary Caribbean Art*.
- Simon, Roger I., & Susan L. T. Ashley. (2010). "Heritage and Practices of Public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 (4-5): 247-254.
- Smith, Laurajane. (2006). *The Uses of Heritage*. London: Routledge.
- Smith, Laurajane. (2012). "Editorial. A Critical Heritag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8 (6): 533-540.
- Thompson, Allison. (2009). *Sonia Boyce and Cropover*, *Small Axe*, 13 (2): 148-163.
- Thompson, Krista. (2013). *Destroying While Preserving Junkanoo: The Junkanoo Museum in the Bahamas* in Cummins, A. (Ed.), Farmer, K. (Ed.), & Russell, R. (Ed.). *Plantation to Nation: Caribbean Museums and National Identity*.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rouillot, Michel-Rolph. (1995).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eacon Press.
- Urry, John.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ty.

# 주제세션 1

## 변화하는 유산 해석의 경향

### 발제 2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 내에서의 유산 해석



위지에 주 |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위지에 주(Yujie Zhu) 박사는 호주 국립대학교 유산박물관연구센터(Centre for Heritage and Museum Studies)교수이다. 담당 연구 분야는 문화유산의 정치, 유산을 통한 기념 및 추모, 문화 관광 등이다. 저서로는 '중국 내 유산의 낭만적 소비(Heritage and Romantic Consumption in China, 2018)'가 있으며, '규모의 정치학(Politics of Scale, 2018)', '세계유산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관광 경영(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at World Heritage Sites, 2009)'을 공동 편집하였다. 주요유산연구협회(Association of Critical Heritage Studies)의 부회장이기도 하다. 위지에 주 박사의 연구 결과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ABC 오스트레일리아(ABC Australia),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등 다수의 호주 및 국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 발표되었다. 2006년부터 중국, 스페인, 인도에서 유산 및 관광 관련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 내에서의  
유산 해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 서울, 2019년 5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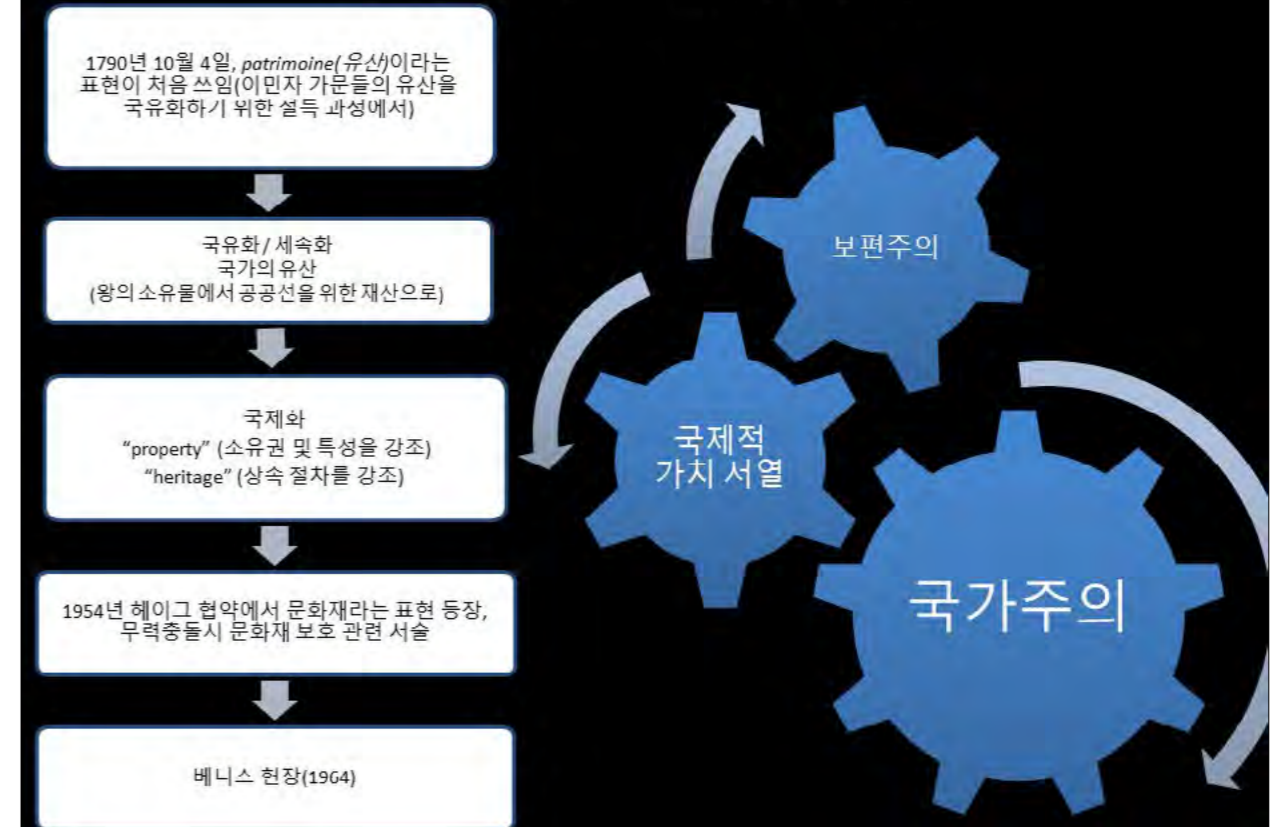
호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위지에 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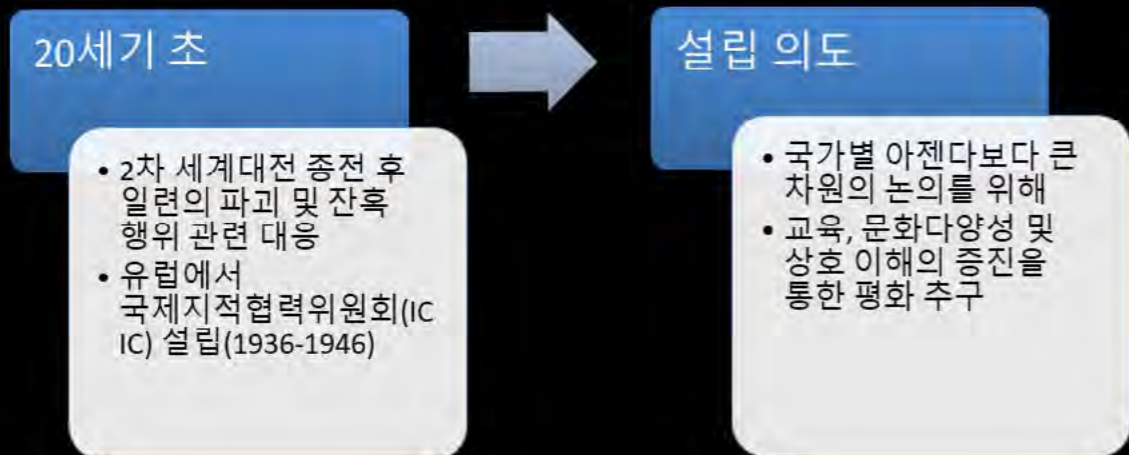
## 발표 순서

- **과거** : 유네스코라는 맥락 안에서의 유산 개념 정립
- **현재** : 유산 해석 관련 동향 및 도전 과제
- **미래** : 향후 과제 및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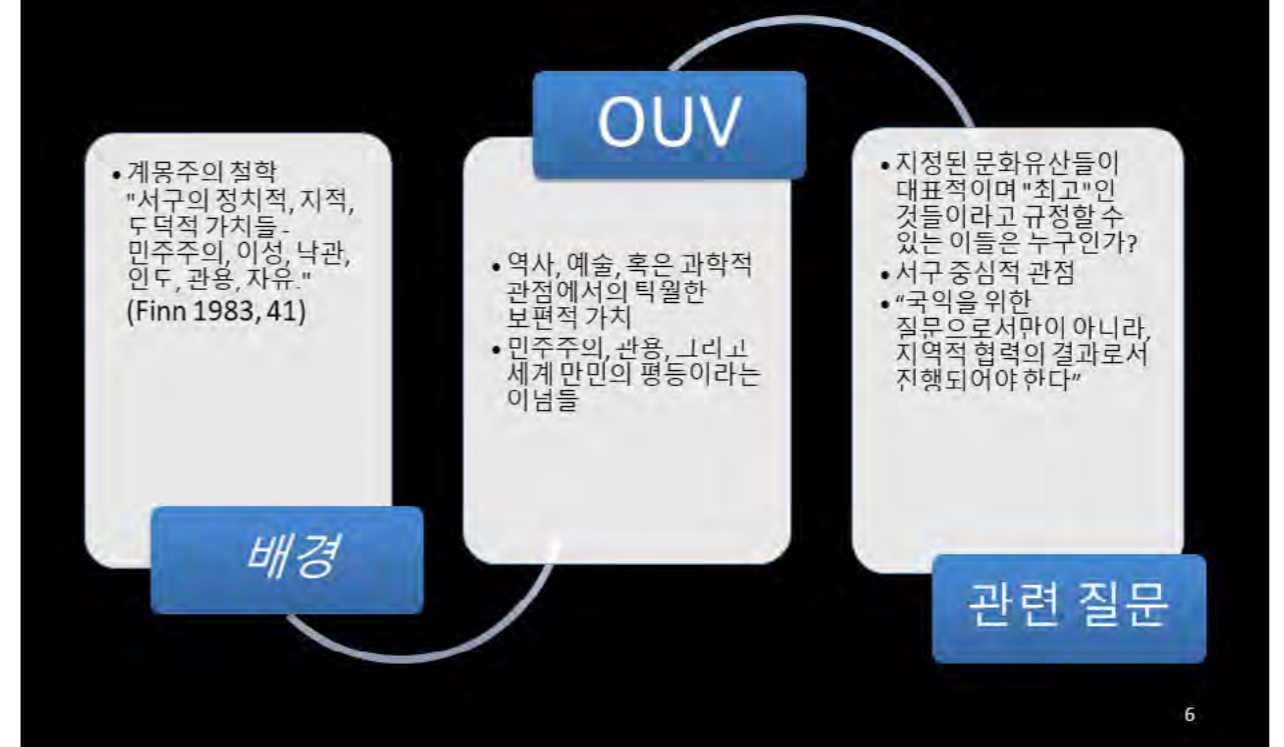
## 2. 유산의 개념적 역사



## 1. 유네스코 설립 관련 역사적 맥락



## 탁월한 보편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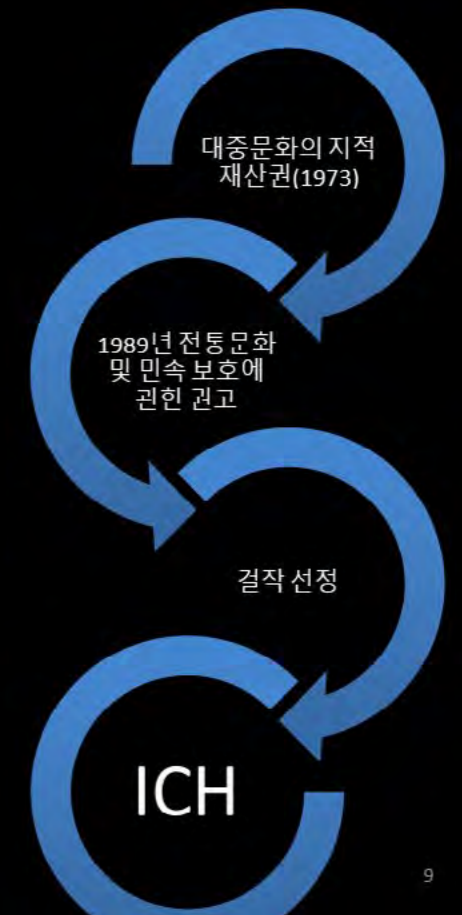




## 발표 순서

- 과거 : 유네스코라는 맥락안에서의 유산 개념 정립
- **현재 : 유산 해석 관련 동향 및 도전 과제**
- 미래 : 향후 과제 및 가능성

## 걸작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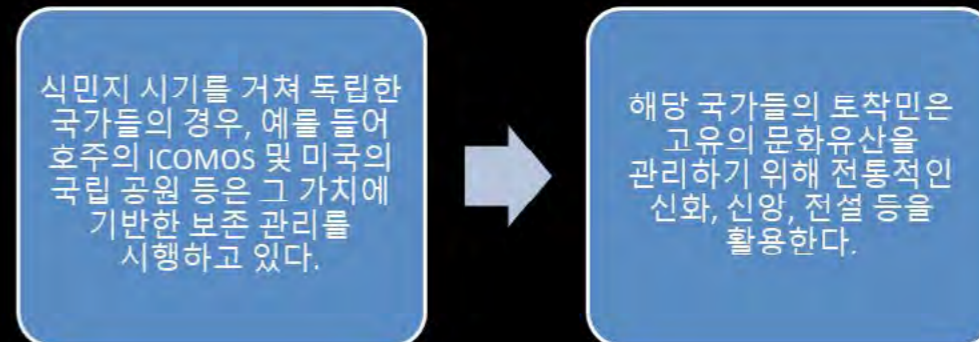


## 관련 동향 1: 유형 분류 체계의 확대

- 문화 경관 : '문화 경관'은 '물질 문화가 아닌 자연적 요소와의 종교적, 예술적, 문화적 연관성'에 의한 지정도 허용된다.

## 관련 동향 2: '기념비적' 방식에서 '인류학적' 방식으로

- 로랑 레비스트로스의 견해



### 관련 동향 3 : 운영 지침의 개정 유산 관련 유네스코의 인식 변화

범위 및 정의	관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li> <li>진정성</li> <li>해양 이용/육지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재</li> <li>관리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뢰</li> <li>보존</li> <li>역량 강화</li> <li>소통</li> <li>공동체 (뉴질랜드, 2007)</li> </ul>

### 발표 순서

- 과거 : 유네스코라는 맥락안에서의 유산 개념 정립
- 현재 : 유산 해석 관련 동향 및 도전 과제
- 미래 : 향후 과제 및 가능성

### 도전 과제 1: 구조적 문제



비 서구 국가들은 유럽의 보존 문화 관련 레토릭을 모방하고, 자국 내 보존 체제 정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 (기관, 담론, 용어)

### 도전 과제 2 : 대표성 문제 – 평등, 다양성 및 균형





## 지역 간 다양성

- 지리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국제적 연구들이 진행됨
-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리적 불균형은 1994년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음
- 관련 연구의 한계 : 일부 국가들은 해당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여력을 갖추지 못함

## 공동체의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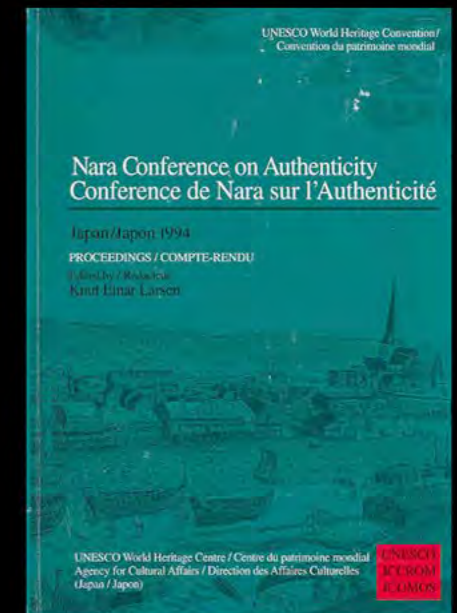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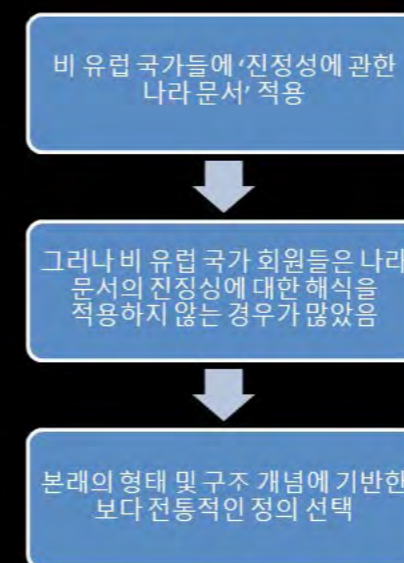
- 공동체에 속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 전문가와 일반 대중 간 세력 관계



## 도전 과제 3 : 개념의 적용 보호(Safeguarding)

- 화석화(fossilization)시키지 않으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조)

## 진정성(Authenti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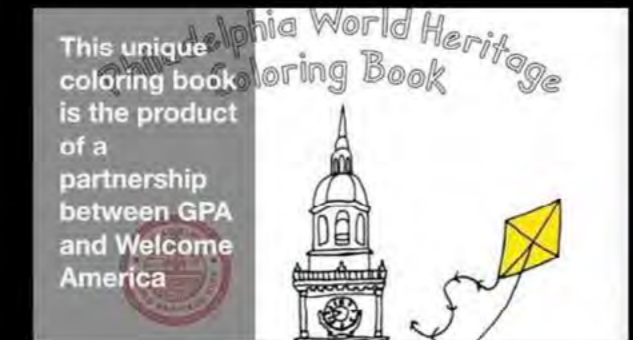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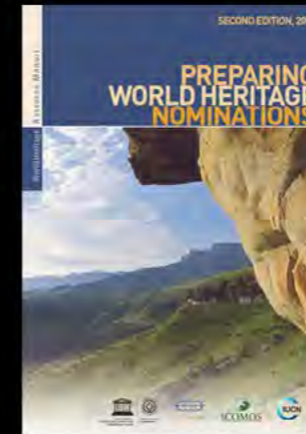
## 지속 가능한 개발/수용력

- UNESCO- UNWTO
-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수용력(carrying capacity)에 대한 질문 :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인가?



## 훈련과 교육

- 전문가 훈련
- 관리자 훈련
- 실연자 훈련
- 관광객 대상 교육



## 발표 순서

- 과거 : 유네스코라는 맥락 안에서의 유산 개념 정립
- 현재 : 유산 해석 관련 동향 및 도전 과제
- 미래 : 향후 과제 및 가능성

## 화해와 보상







## 주제세션 2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유산의 해석

# 주제세션 2

##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유산의 해석

### 발제 1

#### 문화 간 화해를 위한 유산의 해석



윌리엄 로건 | 디킨대학교 교수

현 호주 디킨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호주사회과학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로건(William Logan)은 과거 유네스코 석좌로 선정되어 디킨대학교 유산과 도시화(Heritage and Urbansim)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빅토리아 문화유산위원회(Victorian Heritage Council)의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호주 ICOMOS의 회장으로 역임했다. 유네스코와 ICOMOS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호주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파하푸르), 중국(리장), 라오스(루앙프라방, 왓푸, 향아리 평원), 파키스탄(모헨조다로), 베트남(하노이, 후에)에서 활동하였으며, 문화유산 관련 수 많은 저서를 출간한 저자이다. 특히 문화유산이 인권, 평화 및 안보, 도시 및 도시 계획, 세계 유산 및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유산에 갖는 의의와 관련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라우틀리지의 '문화유산 주요 쟁점(Key Issues in Cultural Heritage)' 시리즈와 2016년에는 '윌리-블랙웰 출판사의 '길잡이' 시리즈 중 하나인 문화유산 지침서(Companion to Heritage Studies)'를 공동 편찬했으며, 현재 인터넷저널 저널 오브 헤리티지 스터디(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문화 간 화해를 위한 유산의 해석 (HERITAGE INTERPRETATION FOR THE RECONCILIATION OF CULTURES)

윌리엄 로건  
디킨대학교 교수

### I. 유산, 힘 그리고 정치 (HERITAGE, POWER AND POLITICS)

올 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에서는 진화하고 있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화유산은 고고학 및 건축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이해, 평가되었으나 기존 개념은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UNESCO's 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이 체결된 이래 지난 50년동안 진화하여 현재는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까지 같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문화간 화해를 위한 세계 유산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세계유산 전문가는 문화를 과거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문화간 화해(reconciliation of cultures)'란 문화간 동화(assimilation)를 시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화차이는 분쟁의 원인 또는 정당화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사실 분쟁의 뿌리는 문화가 아닌 개인이나 공동체 또는 국가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사무총장인 영국의 줄리언 헉슬리(Julian Huxley) 경 재임 중 1945년에 채택된 유네스코창설헌장(UNESCO's founding Constitution of 1945)은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문화보다는 적대행위 중단 후 개인, 공동체, 국가 간의 화해입니다. 이쯤 되니 제 논문의 제목을 '분쟁 후 화해를 위한 유산해석(Heritage interpretation for post-conflict reconciliation)'으로 정했어야 했었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제 분쟁과 내전에 대한 기억은 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쟁 후에도 계속되어 무형문화유산을 해석하고 세계유산으로 선정하여 보존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가 됩니다. 물론, 유산의 의미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산의 중요성은 장소와 물체의 고유한 속성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귀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공동체, 국가마다 역사적인 장소나 무형유산을 인정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분쟁이 일어난 장소로 현재까지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우선, 유산 등재 기준을 이해하기 앞서 '유산'을 과정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과정은 지역 사회, 국가, 국제기구 등, 사회 내 의사결정 권력 분배(distribution of decision-making power)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당의 지지를 얻어 유산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는 집권당과 후원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던 사회 비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월한 보편적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지만 오늘날에는 등재 요청국에 갖는 주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 뿐만 아니라 인공물을 유산으로 해석하는 방법 또한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해석 패널과 브로슈어, 영상 및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정권의 비전과 일치합니다. 분쟁 당사자간 유산해석이 상이한 경우, 민족주의적 해석은 분열을 조장하고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만약 유산해석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고 미래의 분쟁을 막으려 한다면 분쟁 당사자간의 오래된 긴장을 완화하고 상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해석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II. 유네스코 헌장, 협약 및 정책 (UNESCO CONSTITUTION, CONVENTIONS AND POLICIES)

그렇다면 긴장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 해석 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본 국제회의가 세계유산(World Heritage)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유네스코 헌장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 동성애자 등이 아리안 문화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아리안 문명의 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살을 감행한 나치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 헌장은 여러차례 개정되었지만 평화의 방벽 건설이라는 목표는 최우선시되어 현재까지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그 동안, 앞서 설명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규범적 진술(normative statements), 프로그램, 정책, 절차, 관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은 확고하며 지난 수 년간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인권의 범위는 과거 개인의 권리에서 집단적 관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내 소수집단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Jakubowski 2016). 세계유산협약을 포함한 초창기 유네스코 헌법에는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헌장의 전문에 인권이 주요 사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채택이후 인권에 대한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유네스코 정책 중 문화유산 관련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을 따르는 형태로 이행되고 있으며 2017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UNESCO 2017). 하지만, 지침은 단어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영지침 준수여부는 세계유산협약 당사자들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네스코 정책은 다른 협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현재 운영지침은 해당 용어를 지엽적으로 두 번 명시하고 있으며, 화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유엔은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GA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UN 2015) 등과 같은 주요 문서에서 post-2015 개발목표를 명시한 바 있으며 유엔의 전문가 중 하나인 유네스코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지속가능개발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세계기록유산사업(Memory of the World Program)과 다양한 협약을 통하여 유산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세계유산 협약절차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저 또한 해당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15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주로 평화와 화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성과의 척도인 주요 원칙 3가지(인권, 평등, 장기적 지속가능성)와 주요 요소 4가지(환경 지속가능성,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평화와 안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 등 폭력, 내전과 전쟁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계유산의 잠재적인 고유특성과 보존이 분쟁 해결과 평화와 안보 재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산보존 사업은 분쟁 당사자와 공동체간 협력 도모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종식을 목표로 하는 분쟁 협상과 분쟁 후 관리 프로세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에는 세계유산이 집단 정체성 확립,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소득창출 등을 통한 분쟁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재건 기여에 대한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당사국들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사국은 다른 문화권과의 유익한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잠정목록(Tentative List additions)과 세계유산등재 선정(nominations for World Heritage listing)을 고려해야합니다(para iii). 또한, 세계유산 해석 시 각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간 혹은 초국경유산선정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para 30v).

본 정책은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Assembly)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사업에 있어서 큰 진전이자 지속가능개발의 모든 관점을 고려한 야심찬 목표와 원칙 프레임워크 구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메커니즘과 운영 지침 개정안 채택을 통한 정책 이행이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 III. 최근 분쟁 현장의 유산 등재 (INSCRIPTION OF SITES RELATED TO RECENT CONFLICTS)

최근까지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분쟁 지역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폴란드의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79년 등재),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원폭 돔) (1996),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2010)로, 총 3곳입니다. 하지만, 최



근 10년간 유산 등재 신청의 증가 추세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100주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벨기에와 프랑스 선정 '제1차 세계대전 희생자 장례 및 추모 장소-웨스턴포인트(Funerary and memorial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 '2014년 터키 잠정목록에 추가된 '제1차 세계대전 차나칼레(다르다넬스)와 겔리볼루(갈리폴리) 전투지대(Canakkale (Dardanelles) and Gelibolu (Gallipoli) Battle Zones in the First World War)' 등) 세계 2차대전 노르망디 해변 상륙지부터 르완다의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또 각종 고문이 행해졌던 아르헨티나의 강제수용소와 러시아 스탈린그라드(현 볼고그라드)의 전쟁터 추모비 등 총 8곳에 달하는 분쟁현장이 잠재목록에 추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 곳에는 수 많은 고통과 애석함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개발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강제 징용 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5년 본에서 개최된 세계위원회의 해석위원회에서 언급된 이 문제는 특히 하시마섬(Hashima Island) 등 다른 유산 해석에도 반영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바레인에서 개최된 제 42차 회의에서 벨기에와 프랑스의 장례 및 추모 장소를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논의가 있었을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 전문가 그룹의 포괄적 반영(Comprehensive Reflection)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히며, 2020세션(2020 session)에서 최근까지 분쟁이 있었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논란의 장소와 세계유산협약 목적과 범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World Heritage Committee, Decision 42 COM 8B.24). 이러한 접근방식을 적극 권고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문화유산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2018년 4월 관련 토론회(Evalu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ICOMOS 2018)를 발표하여 문화유산 평가의 어려움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ommittee)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의 기억유산 해석(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by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8)',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전장지형의 보전을 위한 비미선언 (Vimy Decla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attlefield Terrain, 2000년 초안, 2009년 등재)'등 많은 문서들이 이코모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초로 발표된 보고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UNESCO'S World Heritage Center)가 의뢰하고 대한민국대표부(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의 후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유산(Site of Memory)을 '유산의 기념적인 측면과 관련 있는 경관적 특성이나 고고학 및 건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정 장소'(para47)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진 공동체나 글로벌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상충되는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para 47). 광범위하게 기억유산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의미를 갖는 장소이며, 공동체나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para 51). 분쟁 관련 유산은 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분쟁장소(전장, 전몰자 공동묘지)는

해당 목록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 바미안(Bamiyan), 팔미라(Palmyra), 팀북투(Timbuktu), 모스타르(Mostar) 등 고의적으로 파괴된 유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 또한 등재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은 해석의 주요 목표를 총 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4번째 목표는 유산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해석, 방문객 압박 및 강압적인 해석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6번째는 해석 프로그램의 이행과 발전에 있어서 관련 공동체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포괄적인 문화유산의 해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COMOS국제성곽군사유산학술위원회(ICOFORT)가 2000년에 초안을 작성하고 2009년에 완성한 비미선언은 전장에 초점을 맞췄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para 1)에서는 전장이 개인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은 다른 문서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계획, 치유, 보수 및 유지 등 유산의 물리적인 보수와 관리뿐만 아니라 교육, 관광, 기념활동 등 실질적인 문제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코모스 헌장과 비미선언은 오늘날의 문제를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평화'와 '화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IV. 해석 사례연구 (INTERPRETATION CASE STUDIES)

본 국제회의는 유산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원칙과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의심, 공포, 적대감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유산해석은 방문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문화를 세심하게 묘사해야 하며 최근까지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던 장소라면 정권이나 승자의 공식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가 그 곳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는지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국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대부분 국익이 해석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도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나 다른 의미를 갖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내 민족주의와 분리독립 움직임의 확산으로 인하여 1513년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간의 전투 장소였던 플로든 필드(Flodden Field)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은 지난 10년간 스코틀랜드 유적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던 사실을 받아들여왔습니다. 또 다른 전투유적지인 컬로든(Culloden)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사용된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입장을 모두 보여주어 영국의 좋은 해석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Derry/Londonderry)에 위치한 타워박물관(Tower Museum) 역시 동일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잠정목록에 등재된 제1차 세계대전 차나칼레(다르다넬스)와 겔리볼루(갈리폴리) 전투지대는 어떻게 현재 정치 상황이 화해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곳은 터키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와 타 교전국에게도 중요한 국가 유산으로 터키와 호주, 양국의 독립국가 지위에 중심이 된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훗날 터키의 초대대통령인, 당시 아타튀르크(Ataturk) 대령은 메흐메트(Mehmets)와 조니(Johnnies)간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의 말은 호주와 뉴질랜드 추도식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 간의 화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올 해 3월부터 한달동안 진행되는 민주주의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며 안작(ANZAC)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객수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양국의 관계악화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치외법권 지역이지만 베트남 롱탄(Long Tan)에 위치한 전투유적지 또한 호주인들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일년에 두 번, 이 곳에서는 1966년 전투에 참여했던 호주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절차를 따라 조용하게 진행하기로 약속했던 것과 달리 많은 호주인의 참석 아래 대규모 행사를 여는 등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는 행사를 불허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에 건설된 버마철도(World War 2 Thai-Burma Railway)관련 기념해석센터(memorial interpretation centre)에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불확실해 보이며 롱탄의 사례와 같이 개최국 정부의 전쟁 관련 공식입장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훗날, 태국 정부가 버마철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세계문화유산보다는 국가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라 유산이 해석된 사례가 많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탕롱왕궁(Thang Long-Hanoi Imperial Citadel)에서는 프랑스 통치시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며, 같은 도시에 위치한 하노이 문묘에서는 중국 건축의 역사와 영향 관련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산해석과정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일부의 목소리가 '공유'유산(shared heritage)에 녹아 드는 것을 경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정착이 토착민과 호주 국민의 눈에는 전쟁 후의 또 다른 침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평가들은 정당이 유산을 관리하고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4. 해결안 (WHAT IS THE SOLUTION?)

여러분들께서는 분쟁지역이 유산으로서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과거 전쟁과 갈등 당사자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유네스코에게 속히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독립국가로 이루어진 정부간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행 여부는 회원국의 선의와 협력에 달려 있으며,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간 대화에 참여하며

소수집단의 문화를 유지시키고 문제를 심화 시키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국가를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양심회복을 위한 세계유산과 지속가능개발 정책, 이코모스 토론회,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더불어 갈등에서 시작된 긴장에서 비롯된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아 해석전략 개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유네스코는 난징학살에 대한 중국의 문서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 지불을 보류한 채 2017년 10월 유네스코집행이사회에 역사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에 관련국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사회는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라는 기본 목표 하에 회원국가의 정치적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네스코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유산에 대한 다른 의견을 유산해석 시에 교차 반영함으로써 회원국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1990년 초부터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보편적가치에 대한 기술서(Stateme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OUV)나 기존 등재유산 관련 후속 기술서(Retrospective SOUV)와 관리 계획을 요구하는 등 등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부터 선정서류에 기존 유산에 대한 후속 해석계획(Retrospective Interpretation Plan)과 해석계획(Interpretation Plan)을 포함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계획은 당사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산의 의의 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 또한 고려하여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역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각 국가의 진흥보다 평화와 대화 증진을 더 중시하는 유산선정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저는 덴마크 학자인 피터 빌 라센(Peter Bille Larsen)과 공동 편찬한 세계유산과 지속가능개발목표정책(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에 대한 저서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간기구 유네스코가 아닌 궁극적으로 회원국과 세계유산협약의 당사국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현실직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활동,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보고서 뿐만 아니라 금번 행사와 같은 여러 회의에 선별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8).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activities/933/>.

ICOFORT (2009). Vimy Decla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attlefield Terrain). Available at: <http://www.veterans.gc.ca/eng/remembrance/memorials/overseas/first-world-war/france/vimy/declaration>.

ICOMOS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Available at: [https://www.icomos.org/charters/interpretation\\_e.pdf](https://www.icomos.org/charters/interpretation_e.pdf)

ICOMOS (2018). Evaluations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ICOMOS Discussion Paper. Available at: [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World\\_Heritage/ICOMOS\\_Discussion\\_paper\\_Sites\\_associated\\_with\\_Memories\\_of\\_Recent\\_Conflicts.pdf](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World_Heritage/ICOMOS_Discussion_paper_Sites_associated_with_Memories_of_Recent_Conflicts.pdf).

Jakubowski, A. (ed.) (2016). Cultural Rights as Collective Rights: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Brill Neihoff: Leiden, Netherlands.

Larsen, P. B. and Logan, W. (eds) (2018).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London: Routledge.

UNESCO (2015).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nline). Available at: <http://whc.unesco.org/en/sustainabledevelopment/>.

UNESCO (2017).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aris: UNESCO.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 문화 간 화해를 위한 유산의 해석

윌리엄 로건 (호주디킨대학교 교수)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대한민국 서울  
2019년 5월 14일

## 목차

- I. 유산, 문화, 힘과 분쟁
- II. 유네스코 헌장, 협약과 정책
- III. 최근 분쟁 현장의 유산 등재
- IV. 해석 사례연구
- V. 해결안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유네스코 헌장(1945) 전문



## 유네스코는 유엔의 Post-2015 지속가능개발의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
- 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UN 2015)

유엔 전문기구 중 하나인 유네스코는 책임을 인식하고 개발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세계유산협약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독일 콧부스(Cottbus)와 베트남 닌빈(Ninh Binh) 초안
  - '세계유산과 지속가능개발 정책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 2015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

3

## 지속가능개발 목표는 다음 원칙과 요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 주요 원칙 3가지

- 인권
- 평등
- 장기적 지속가능성

### 주요 요소 4가지

- 환경지속가능성
- 포괄적 사회개발
- 포괄적 경제개발
- 평화와 안보

4

## 최근 분쟁 현장을 유산으로 선정

### 등재:

1.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1979)
2. 본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1996)
3.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 (Marshall Islands, 2010)

### 선정:

1. 'Funerary and Memorial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 (벨기에와 프랑스, 2018)



비미 리지

## 참정 목록

1. 'Cuito Cuanavale, Site of Liberation and Independence (앙골라, 2017)
2. 'ESMA Site Museum – Former Clandestine Centre of Detention, Torture and Extermination' (아르헨티나, 2017)
3. 'Terrefal Concentration Camp' (카보베르데, 2016)
4. 'Normandy's Debarkation Beaches, 1944' (프랑스, 2014)
5. 'Cellular Jail, Andaman Islands' (인도, 2014)
6. 'Mamayev Kurgan Memorial Complex "To the Heroes of the Battle of Stalingrad"' (러시아, 2014)
7. 'Genocide Memorial Sites' (르완다, 2012)
8. 'The Walk of Peace from the Alps to the Adriatic – Heritage of the First World War' (슬로베니아, 2016)
9. 'Çanakkale (Dardanelles) and Gelibolu (Gallipoli) Battle Zones in the First World War' (터키, 2014)

6



- World Heritage Committee (세계유산위원회), Decision 42 COM 8B.24
- World Heritage Committee (세계유산위원회), Decision 42 COM 5A
- 최근 분쟁 지역 세계유산 지정 평가 (ICOMOS 2018)
- 기억유산 해석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2018)
-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 (ICOMOS 2008)
- 전장지형의 보전을 위한 비미 선언 (ICOFORT 2009)

7

플로든 필드, 북잉글랜드 – 1513년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간의 전투 장소

This ground, known as Flodden Field, was once a field of battle, enmity and carnage. But today, there is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most of all of friendship.

On that fateful day, near five hundred years ago, it was the hills, the valleys, the rivers, the streams, the hidden denes, the boggy ground that were the key to victory. It was here, where today cattle graze and crops flourish, that cannonade crashed, and men fought and died.

9

**A time of change**

As European people moved into north Queensland, Aboriginal people were forced off their traditional lands. Confrontation with settlers, loss of traditional food sources and disease took their toll.

The Wulgurukaba were still living on Magnetic Island as late as the 1920-30's. They developed good relationships with the European settlers, for instance, bartering with the poorly-provisioned occupants of the Quarantine Station in the 1870's for fish. But they were eventually forced to leave the island and live on Missions on the mainland.

유적지에 거주했던 호주 토착민에 대한 안내문 (유산해석)  
퀸즈랜드 마그네틱 아일랜드

8

Àrach Blàr Chuil-Lodair  
àite don h-ùile duine  
Culloden Battlefield  
a place for everyone

Culloden Battlefield  
is a War Grave  
We ask that you treat it with respect

컬로든 전투유적지와  
해석센터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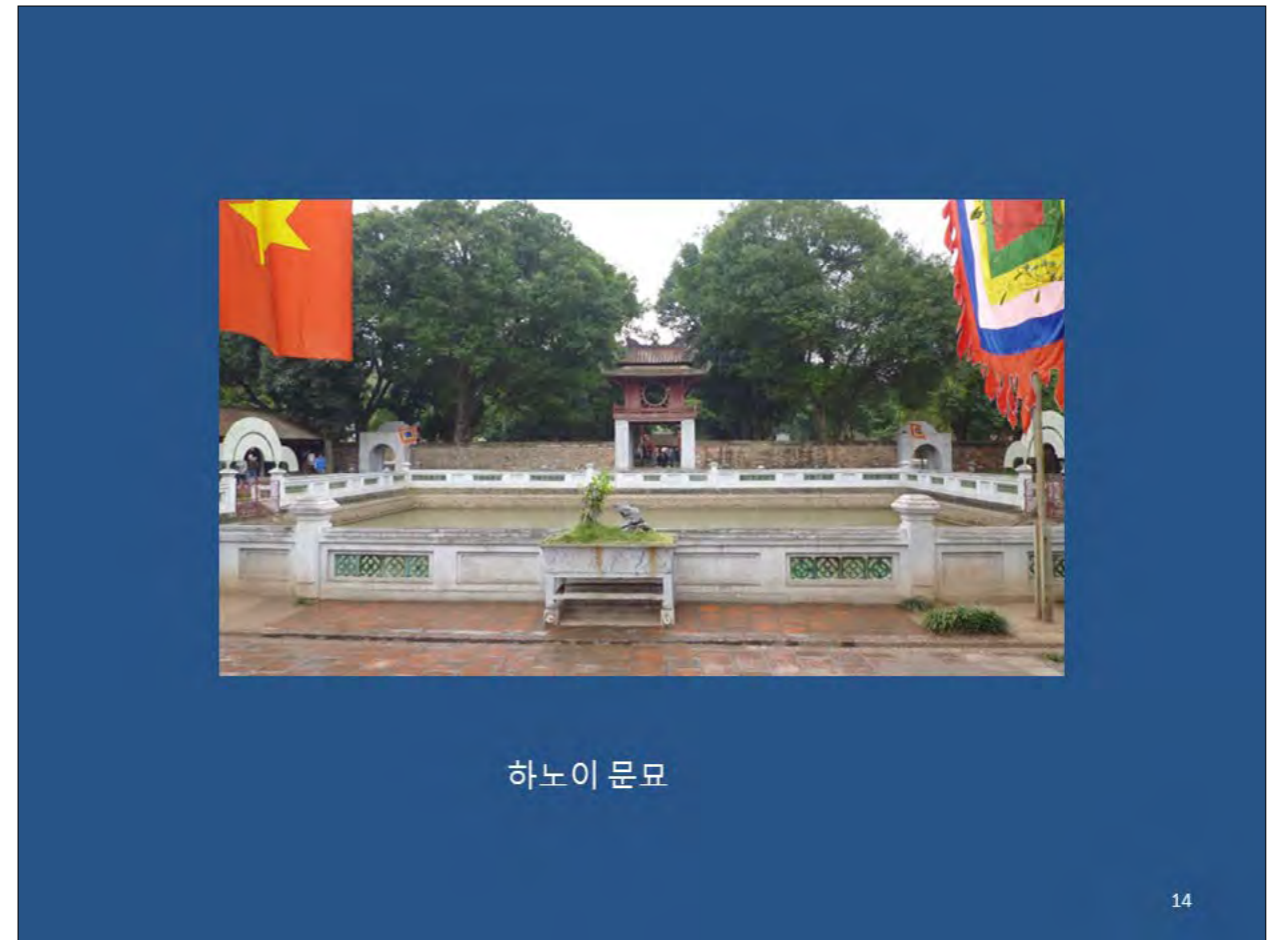
갈리폴리 연방전쟁묘지



겔리볼루 터키 전쟁묘지



하노이 탕롱왕궁



하노이 문묘



**감사합니다.**

윌리엄 로건  
[w1@deakin.edu.au](mailto:w1@deakin.edu.au)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대한민국 서울  
2019년 5월 14일

## 주제세션 2

###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유산의 해석

**발제 2**  
스타리 모스트의 재건과 해석 : 화해와 공존의 유산



**암라 핫지무하메도비치 | 사라예보국제대학교 교수**

암라 핫지무하메도비치(보스니아 국제 포럼 문화유산센터) 교수는 건축학 박사이며, 사라예보국제대학교에서 건축학사 및 건축물 보존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를 위한 데이턴 평화협정'의 부속서 8 적용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로서, 전후 복구 과정에 문화유산을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감독해 왔다. 유네스코, ICCROM, 세계은행, OSCE 등의 컨설턴트를 맡았다. 팔레스타인 및 코소보에서 활동하였고, 전시 및 전후의 유산 상태, 유산 보존 관련 이론 및 철학 등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유산, 전쟁, 그리고 평화(Heritage, War and Peace)', '인권과 문화적 기억의 파괴(Human Rights and Destruction of Cultural Memory)' (이상 편집), '보스니아 - 문화 유산의 파괴(Bosnia: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공저) 및 기타 여러 저서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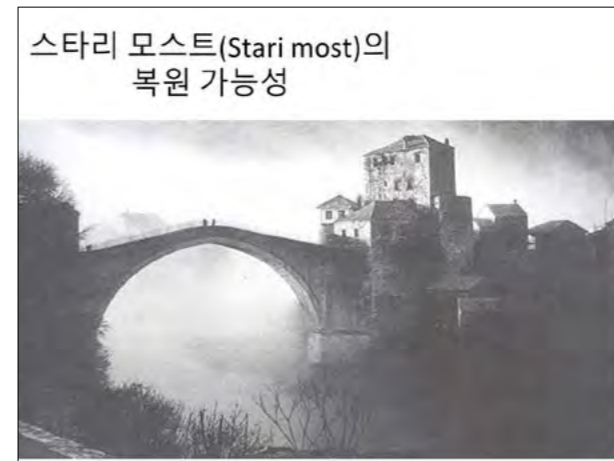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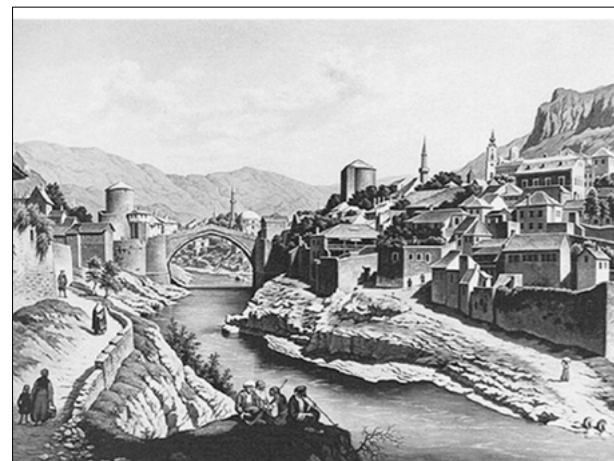




모스타르의 오래된 다리(16세기 건축),  
1993년 11월 9일 파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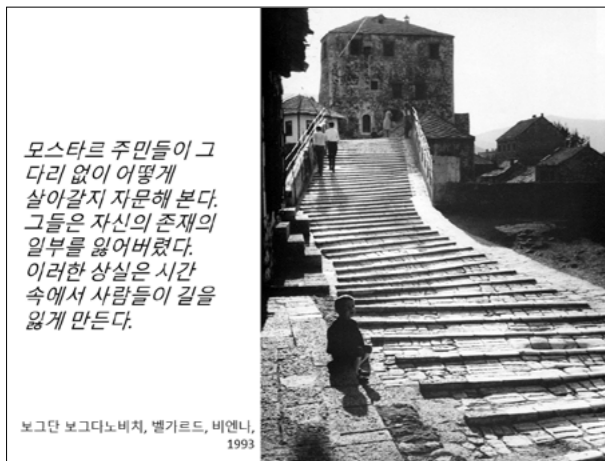
“아름답고 기품있던 다리(스타리모스트)는 인간의 수명보다 초월해 지속되도록 지어졌다. 이는 영원을 손에 넣기 위한 인간의 시도이다.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뛰어넘은 존재인 것이다.”  
- 슬라벤카 드라쿨릭(Slavenka Draku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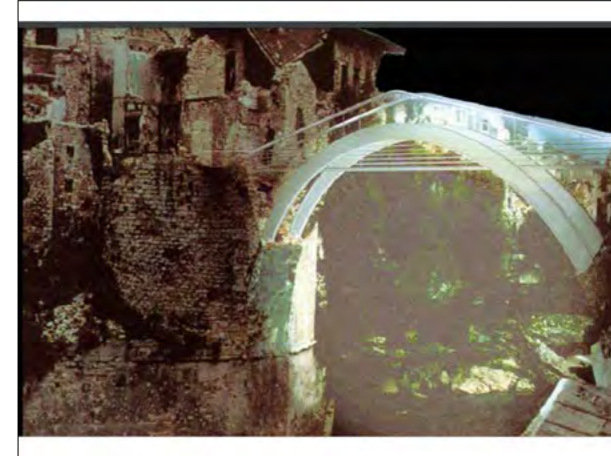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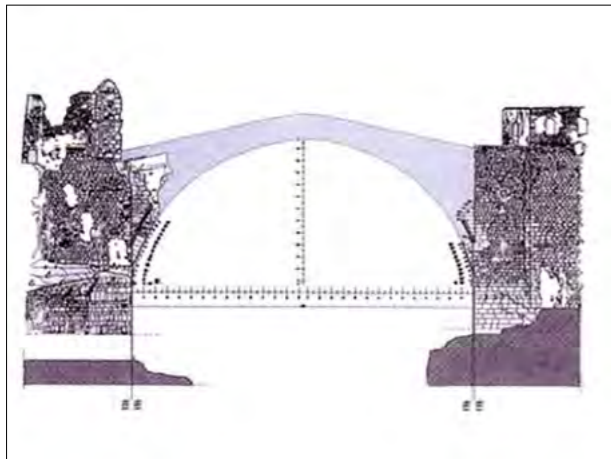
스타리 모스트(Stari most)의  
복원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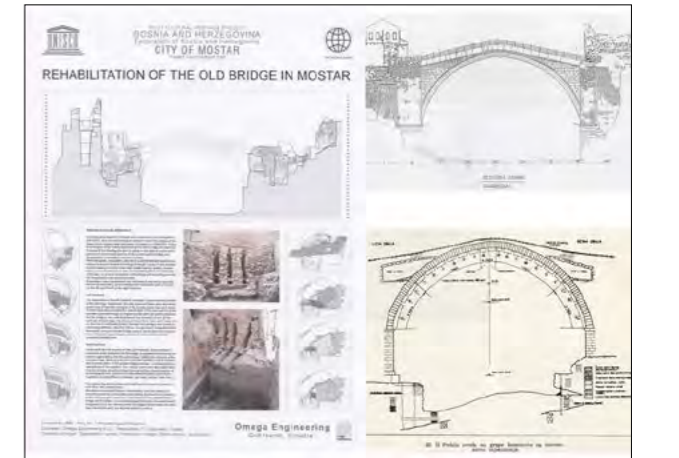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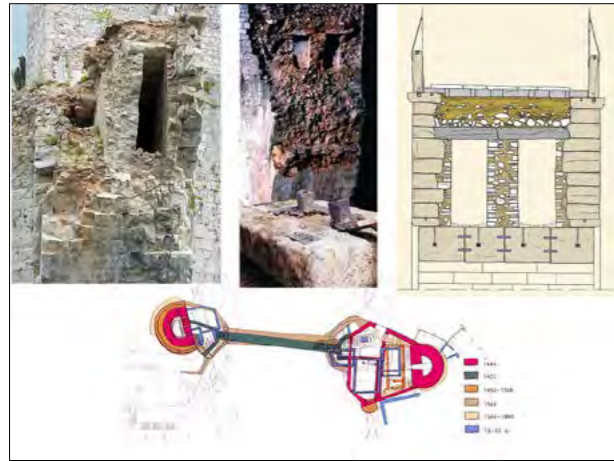




“이상적인 것,  
용인 가능한 것,  
실현 가능한 것 간의  
타협.”









# Contents

Overview . . . . . 94

Program . . . . . 95

## Keynote Session : What Is Heritage?

Keynote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 . . . . 99  
Neil Silberman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Theme 1 :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Presentation 1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and Changing Trends . . . . . 123  
in Heritage Interpretation  
Alissandra Cummins | Director, of the Barbados Museum and Historical Society

Presentation 2 | Interpretation of Heritage in the Framework of UNESCO . . . . . 139  
Yujie Zhu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Theme 2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

Presentation 1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 . . . . . 155  
William Logan | Deakin University

Presentation 2 | Re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of Stari Most . . . . . 175  
Amra Hadžimuhamedović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Sarajevo

## Overview

#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 **Title** |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 **Agenda**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 **Session Theme** | ·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

• **Date** | 2019. 5. 14(Tue), 10:00 ~ 18:00

• **Venue** | Four Seasons Hotel Seoul, Nuri Ballroom (6F)

• **Host** |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Participants** | Approx 300 people (Permanent delegates to UNESCO, experts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and general public)

• **Language** | Korean (Korean-English simultaneous translation)

## Program

시간	내용
10:00 ~ 10:30	• <b>Registration</b>
10:30 ~ 11:10	• <b>Opening session</b> - Opening remarks : Lee Taeho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 Welcoming remarks : Chung Jae-suk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Kwangho   Secretary-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Congratulatory remarks : Lee Wangkee   President of ICOMOS-Korea Mechtild Rössler   Director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Video)
11:10 ~ 11:20	• <b>Short break</b>
<b>Keynote Session : What Is Heritage?</b>	
11:20 ~ 12:00	• <b>Keynote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b> - Neil Silberma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12:00 ~ 13:30	• Luncheon
<b>Theme1 :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b>	
13:30 ~ 14:50	• <b>Presentation 1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and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b> - Alissandra Cummins   Director, of the Barbados Museum and Historical Society  • <b>Presentation 2   Interpretation of Heritage in the Framework of UNESCO</b> - Yujie Zh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b>Panel Discussion   Roles of UNESCO World Heritage in the Changing Trends of Heritage Interpretation</b> - Moderator : Choi Jaeheon   Konkuk University - Discussants : Alissandra Cummins, Yujie Zhu, Lee Hyunkyung   Postdoctoral Fellow, Univ. of Cambridge, 2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14:50 ~ 15:10	• Coffee Break
<b>Theme2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b>	
15:10 ~ 16:30	• <b>Presentation 1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b> - William Logan   Deakin University  • <b>Presentation 2   Re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of Stari Most</b> - Amra Hadžimuhamedović   International University of Sarajevo  • <b>Panel Discussion   Peacebuilding through Heritage: Reconstruction of Stari Most</b> - Moderator : Han Suk Young   Board member, ICOMOS International - Discussants : William Logan, Amra Hadžimuhamedović, Kang Dong Jin   Kyung Sung University, 2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16:30 ~ 16:50	• Coffee Break
<b>Round Table Discussion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and Heritage Interpretation</b>	
16:50 ~ 17:50	- Moderator : Suh Kyung Ho   Seoul National University - Discussants : Neil Silberman, Alissandra Cummins, William Logan, Amra Hadžimuhamedović, Yujie Zhu
17:50 ~ 18:00	• Closing

※ The schedule may partially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 Keynote Session

What Is Heritage?



# Keynote Session

## What Is Heritage?

---

### Keynote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Neil Silberman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Neil Asher Silberman** is an author and heritage interpretation specialist with an interest in the impact of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on contemporary society. He served for a decade as the founding president of the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CIP). In that position, he also served as chief editor of the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From 2004 to 2007, he served as director of the Ename Center for Public Archaeology and Heritage Presentation in Belgium. In 2008, h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of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became one of the founders of its Center for Heritage and Society. He also served as co-editor of its journal *Heritage & Society* (2008-2014) and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s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Journal of Eastern Mediterranean Archaeology and Heritage Studies*. His books and edited volumes on Heritage, Archaeology, and their impact on contemporary society include: *The Oxford Companion to Archaeology* (2012); *The Future of Heritage* (2008); *Who Owns the Past?* (2007); *Memory and Identity* (2007); and *Heritage, New Technologies, and Local Development* (2006). He is now a managing partner of Coherit Associates, an international heritage consultancy, and is co-editor of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Heritage Method and Theory* (2018).



## What is Heritage?

Neil Asher Silberma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Heritage seems so solid, so stable, so timeless— a local and global collection of unique places, structures, and ideas that have somehow survived the forces of time. That capacity for survival across years, centuries, millennia is deeply reassuring. At its most basic psychological level, heritage reminds us that time and decay can be resisted if not completely overcome. Over the years, many definitions have been put forward to encompass the world's seemingly infinite variety of structures, landscapes, and customs that are recognized as cultural heritage. Some of the definitions, particularly those with international or governmental authority, are quite strict and exacting, as in the specific eligibility criteria for official national listing 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Other definitions, less concerned with superlatives and more sensitive to the vast scope of cultural diversity—and the respect it should be accorded—are so vague or generic that almost anything can qualify if some group considers a place or building to be.

What I'd like to suggest in this presentation is that we must revisit our most basic definition of what cultural heritage is. Ironically, in recent decades, a single definition has become even harder as the scope of heritage has dramatically widened to encompass both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grim memory places with pasts to reflect on, not venerate; sacred sites whose value is informed by indigenous concepts; and not least of all the monuments of modern commercial society. Indeed, heritage is now no longer a single thing: it can be a sign of many different social processes that merely use the material remains as a stage setting or prop for political struggles, human rights crusades, aesthetic preferences; the joy of community solidarity; or even a leisure time entertainment venues to boost the local economy. Public heritage is no longer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museums, and cultural organizations; the right to define what heritage is has now become a means of expressing the dignity and political aspirations of contemporary ethnic minorities,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and diasporic groups. The familiar typologies of monuments and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may be useful for techniques of physical conservation, but do not explain why or even if they are significant. And because heritage significance, like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re can be no single definition of what heritage is that encompasses its vast range of material types. I'm convinced that it's time to consider a new approach to definition. Put most simply, we need to widen our quest for the essence of heritage from an exclusive focus on its material forms to a deeper analysis of the social role it can play.

In other words, I want to suggest that heritage is what heritage does. Heritage can be best be defined as any physical structure, archaeological feature, performance, skill, tradition, object

or landscape that helps us soften the disruptive and often frightening impact of change. Today, as the pace of global transformations quicken and familiar vistas and traditional ways of life are quickly disappearing, the need by both social groups and individuals to grasp onto a stable foundation is strong. But the heritage resources that provide those strong foundation do not all do the same thing. Nor are they all intrinsically positive. Though they all in some way serve as visible embodiments of distant eras where the very social elements now perceived to be lacking—social stability, unambiguous ethnic identities, and the flowering of creative individual craftsmanship prevailed. Those visions of a once-and-possibly-future social existence can reflect a society’s self-absorption in a combative “us” vs. “them” mentality—or alternatively highlight humanity’s highest achievements and shared goals.

Paul Connerton, in his classic works of social anthropology “How Societies Remember” and “How Modernity Forgets”, has masterfully explored the various types of collective memory that animate our relationship to sacred places and cherished monuments. I believe that we should follow Connerton’s lead and pay far more attention to the character of the emotional connections between social groups and certain constellations of material and intangible things. I would go so far as to suggest that it is the presence of an emotional connection is the factor that distinguishes heritage from “non-heritage” and indeed creates the category of heritage itself. In this sense, heritage should be seen as much a universal activity as a list or collection of specially preserved things. And that activity can be both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It can be used to cultivate a public appreciation of the diversity of human cultural expression, or it can also be used to stimulate exclusivist, essentialized nationalism at the opposite end of the ethical scale. This ambivalence of social function clearly contradicts the common assumption that heritage is an intrinsically positive, unitary global resource, as the widely publicized UNESCO hashtag #Unite4Heritage implies. Heritage places—whatever their specific components—can thus be defined as focal points of veneration, resentment, reflection, commemoration, and sometimes violent conflict over the most pressing questions of social debate in contemporary society.

So how did we come to focus primarily on the tangible or visual aspects of heritage sites and pay less attention to their wide varieties of public significance? Why do we assume that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monuments is an intrinsic social good? Alois Riegl, the great Austrian art historian and first Conservator General of Monuments of the Austro-Hungaria Empire, explained it in his classic 1903 essay “The Modern Cult of Monuments,” which was meant to serve as a justification for the new Imperial monument protection law. Riegl explained that in earlier times, commemoration of the past was a private or religious matter. Monuments were arbitrarily erected by churches, families, and individuals to commemorate venerated ancestors, miraculous acts, and other noteworthy events. But Riegl insisted that now,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some order had to be imposed. The physical traces of the past would henceforth be governmentalized and given over to specially trained experts, appropriate in an age that had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experts with specialized educations to classify and manage

the resources of the state. Heritage professionals (like Riegl himself) were now empowere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o designate official monuments that according to their expert opinion, bore outstanding historical or artistic significance. Thus was born what Laurajane Smith has called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or what the philosopher Eric Mathes has called the “Positive View” of heritage. Put most simply, a new cadre of professional administrators and scholars not only in the Hapsburg Empire but throughout Europe, were given the responsibility of defining exactly what Heritage was.

Heritage thus became a special quasi-legal category, carefully separated and protected from the landscapes and streetscapes of the present. Not only was the power to designate official monuments entrusted in the hands of administrators, the industrial present was sundered from the past in carefully delineating what should be preserved and protected and how.

It was never that way before, with “now” and “then” separately managed by specialized governmental departments. In fact, it might be fair to say that in earlier ages the past was an integral part of the present; the whole world and everything in it was a heritage site. For many indigenous groups who still maintained traditional life ways, wisdom indeed “sat in places,” as the anthropologist Keith Basso famously observed. Describing the core cultural beliefs of the Western Apache in the American Southwest, he noted how significant features of the landscape bore visual witness to ancestors’ exploits, ancient battles, and boundaries, and the earthly traces of cosmic creation myths. The entire landscape was an evocative historical record. And so it was for many other ancient, agrarian peoples all over the world.

Scattered allusions in ancient texts testify to a similar conception of the ever-present past. Geographical oddities, unique geological phenomena, and venerated sites are all seen (or should I say interpreted?) as visible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of religious narratives. In the Bible, for example, a prominent pillar of salt in the southern Dead Sea region was associated with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twelve large stones rising above the surface of the Jordan River near Jericho, and the “great heap of stones” in the hill country near Ai, were each seen as reminders of the Conquest of Canaan under Joshua. Buddhism’s four principal shrines—Lumbini, Bodh Gaya, Sarnath, and Kusinagara—place the life of the Buddha on the map. Such was also the case with the famous landmarks of Egypt described by Herodotus in the fifth century BC as relics of exotic fables, and those in Greece were described by Pausanias in the second century as the locales of the great events of Greek myth. These ancient “heritage places” were all symbolic, materialization of venerated narratives, in which each physical landmark represented a particular episode. Taken together, features of the landscape were used to reinforce powerful sacred narratives.

When we begin to see heritage as a social process rather than a collection of old things, we can begin to discern some of the other ways that heritage has been defined. Take the act of pilgrimage, for example. Far different from reading the local creation myths from the landscape, pilgrims set off to distant, often unfamiliar places on a journey that brought them into direct



contact with metaphysical forces. Significant sites and features of the landscape they traversed were still interpreted as tangible evidence of sacred events and personalities, but with the rise of the cult of relics, material objects connected with sacred figures offered a medium for physical contact with the divine. To touch a saint's skull or even his tomb was to establish a direct, tactile connection to the source of life-giving grace that could answer fervent prayers. And as the humanist artists and explorers of the European Renaissance would show, that communion with ancient relics between could also be worldly. Cyriac of Ancona, among of the first of the Renaissance antiquarians, traveled widely throughout the eastern Mediterranean in the fifteenth century, studying, drawing, and describing long ignored and neglected classical remains. His was not merely a search for information, but a pilgrim's quest for communion with spiritual ancestors. When asked by a priest why he so tirelessly searched for half-buried ruins, sarcophagi, and ancient Latin inscriptions – which we would today unhesitatingly call archaeological artifacts and heritage places – Cyriac revealed his higher calling: “to bring the dead back to life.”

The belief, that physical contact with material relics from the past could unlock transcendent power, still endures at heritage places with both ancient and modern spiritual associations like Stonehenge, the Pyramids, the Old City of Jerusalem, Uluru, Machu Picchu, and even the UFO cultists' Area 51. So here is quite a distinctive definition of heritage, experienced in different degrees of intensity at all kinds of official and unofficial sites: heritage is a place or object that stimulates spiritual identification with a particular version of history. Though it is impossible to define—or even predict—what kind of reaction a particular site will evoke in the visitor. Expert interpretation is only one side of a heritage dialogue. Each visitor inevitably makes his or her own interpretation of even the most polished story.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official interpretation will match what lies in the visitor's heart and mind.

So how did these subjective experiences at time-honored places come to be overshadowed by concern with the physical maintenance of expert-selected monuments and institutionalized in the laws,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f modern nation-states? As mentioned above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alization of heritage in the time of Alois Riegl, matters of bureaucratic efficiency had become an essential concern of the modern-nation state. In most countries, the official designation of a heritage place makes it eligible for a variety of grants, tax incentives, and legal constraints that affect its status as a special class of property. And whether that property is in private hands or declared to be a national treasure, the right of governments to regulate the possession and use of its heritage resources is recognized as an unalienable prerogative of national sovereignty.

But there are even more powerful motivations for the government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n sovereign rights and the effectiveness of uniform bureaucratic management. As the age of kings and the age of reason gave way to an era of competing nation-states in Europe, a new kind of heritage narrative also arose. Simultaneously universal and particular, it asserted that each nation possessed a distinct ethnic or racial character that manifested itself through history

in a succession of increasingly complex forms. The civic narrative of national continuity taught in public schools and displayed in the galleries of national museums was also enacted in public pageants that illustrated the perceived timelessness of the national spirit— from Prehistory, through the Bronze Age and Iron Age, through increasingly complex social organization and artistic achievements, to their ultimate fulfillment in the form of the modern nation-state. Gradually, individual heritage places that had been informally identified by antiquarians as relics of outstanding aesthetic or historical significance were incorporated into official heritage registers and bureaucratically administered by national monuments services or culture ministries.

“Heritage” took on a distinct connotation as sites of patriotic commemoration, places where loyalty to the nation-state was literally or symbolically mobilized. Yet the close identification of national identity with selected examples of material culture established artificial boundaries that, predictably, reflected the contemporary boundaries or territorial ambitions of particular nation-states. In addition, it tended to overlook unofficial or local heritage places that that did not illustrate—and sometimes starkly contradicted—the accepted national narr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and the repeated assertion that heritage can be a driver of economic development, yet another definition of heritage can be made. Public visitation to heritage places—in other words cultural tourism—is a form of modern pilgrimage, in which an enjoyable or educational experience is the visitor's goal. The aesthetic quality of the remains, the ease with which they can be reached, and – not least important – the design of the site and the appeal of interactive installations can determine a heritage site's financial failure or success.

Gradually, as economic considerations rose higher and higher in the heritage agenda, heritage places developed a distinctive infrastructure. At first a perimeter fence, a simple ticket booth, and a few identifying signposts were all that was needed to equip a heritage site. But as local and international mass tourism increased, heritage sides became just one of many kinds of holiday destinations—theme parks, nature preserves, and shopping cities—the design of heritage places gradually grew more complex. A new architectural form gradually crystallized, adding a standard set of basic amenities: parking lots, hi-tech visitor centers, cafeterias, rest rooms, and souvenir shops. Borrowing design principles from the theme parks and malls, heritage places became entertainment attractions, whose hoped-for popularity would boost the local economy. The experience of visiting a heritage place, rather than the knowledge and particular facts and figures presented, became the modern heritage site's principle draw.

Thus an increasingly common definition of heritage—and in particular heritage sites—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is a place highlighting a historic structure or feature, whose meticulously designed infrastructure gives it a high degree of visibility and “visitability.” In such cases, we are confronted with two simultaneous definitions—or perhaps perceptions—of what heritage is. For visitors, a heritage places is often primarily a leisure-time venues that provides a glimpse at both an idealized, entertainingly mediated vision of the past that can provide welcome relief from everyday routines at home. No less

significant is a quasi-industrial definition; for the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whose economic underdevelopment often serves as the main reason for investment in the often costly design and management of such heritage places, the heritage place often loses its distinctly local significance or historical value, becoming just another workplace in a service industry designed to appeal to consumers from the outside.

Postcolonial independence and civil rights movements have given rise to yet another meaning to the term “heritage place.” As mentioned above, the creation of “officialized” heritage places by national governments gave voice to essentialized, self-justifying narratives of national distinctiveness that ignored or downplayed the heritage perspectives of indigenous peoples and ethnic minorities. Yet the eventual recognition of indigenous rights and the legitimation of the cultural (if not always fully political) autonomy of ethnic minoritie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ir own set of heritage places as proud symbols of independence from the long-dominant majority elites. Heritage self-definition became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a presumably united (however unjust and unequal) society. And therein lies the cruel irony of this stage of the evolution of heritage places. In encouraging acceptance and respect for the cultural monuments and expressions of all polities and peoples, there is the tendency for more and more social groups with aspirations for legitimation and legal recognition to define heritage in a highly essentialized way. As a zero-sum game, heritage can turn deadly—as Ayohda, Bamiyan, Kasubi, Preah Vihear, Jerusalem, and Timbuktu, for example, have shown. The power to unilaterally declare significance, to craft self-justifying historical narratives, and to demand repatriation and control of sacred places and objects, have all come to define a new way of dealing with heritag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I cannot conclude this survey of the many definitions of twenty-first century heritage without also mentioning the use of heritage places as sites of conscience and the sources of diasporic identity. The transformation of places of mass murder, enslavement, exploitation, and inhumanity to formal heritage sites (with the infrastructure of modern heritage interpretation, but designed to encourage moral reflection) offers a sobering counterpoint to the use of heritage places as platforms for partisanship or as simple entertainment venues. And in an era of massive demographic shifts through rural-to-urban migration or the forced displacement of ethnic minorities, we can often see powerful heritage statements that embody the cultural and demographic changes that are occurring in nations and regions that were formerly considered to be culturally homogenous. Indeed, these twenty-first century variations in the significance and social role of heritage places make it clear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processes of heritage place-making – rather than a single comprehensive definition – must be sought.

Heritage places can simultaneously be sites of conflict, entertainment, patriotism, militant parochialism, and human rights campaigns. None is necessarily more important or constitutive of the essential definition of heritage than the rest. The new social networks of shared heritage significance being created through indigenous and “bottom-up” approaches stand alongside and

almost always intertwine with the web of relationships to the past that earlier concepts of heritage places inspired. Heritage places should therefore be seen as stages for a kind of performative action, namely an expression of a value or a sense of identity, during a time of dramatic change. Heritage is what heritage does, even though the ephemerality of any particular interpretation or action contradicts the very notion of the “timelessness” of cultural heritage. Former ICOMOS president Gustavo Araoz has perhaps best defined heritage places, not as a material relics with a single unchanging Outstanding Universal, National, or Local Value, but rather as “vessels” of many values, in which multiple intentions are embedded and all of the values change with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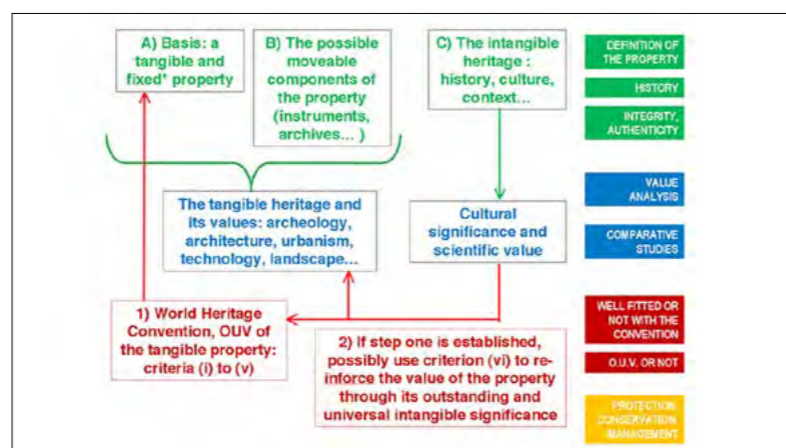
The significance of heritage places is neither static nor inherent in their material components; authenticity and significance are ascribed, not intrinsic. As we have seen, the categories and constellations of heritage places chosen for protection and commemoration throughout the centuries embody each era’s spectrum of (often contradictory) collective memories. But collective memories are not merely passive reminders of former times, like neatly arranged photos in an old scrapbook. They are potential catalysts for action in the present. But as I suggested at the beginning of this presentation, we must begin to see heritage places as contemporary cultural phenomena with far-reaching effects. Good or bad, noble or immoral, constructive or confrontational, heritage is what heritage does.

And it may be ironic that heritage—in all its tangible and intangible forms and in wide variety of expressions—presents us with the illusion of its apparent timelessness. For its function in society—and most basic definition—is as a selection of places and things that help us come to terms with the disruptiveness of change. Today, as global transformations of economy, politics, and climate quicken their pace and increase their intensity, many find an at least temporary escape from the chaos of the lived present in the contemplation of distant eras where social stability, unambiguous ethnic identities, and the flowering of the fine arts prevailed. Because heritage is, at its base, a social psychological process, it can take many forms, with both positive and destructive effects. But the outward forms to which so much scientific effort has been devoted has yet to tackle with equal vigor the deeper psychological longings that motivate our attention to the physical reminders of the past. So what, in the final analysis, is heritage? Put most simply, it is and will always remain a universal human quest to grasp onto something that reassures us of our own potential to transcend the inevitability of change. Without a better grasp of the social psychology of heritage, we are just guessing about its significance and value to society. Despite the common perception that heritage is a single thing that must be protected by all of humanity, our greatest interpretive challenge is to recognize that heritage is an evolving, many-faceted form of cultural expression that reflects a society’s deepest hopes and f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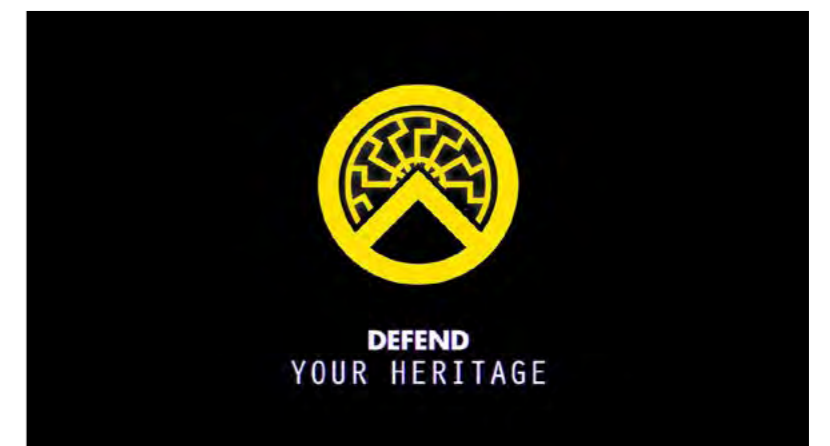


# What is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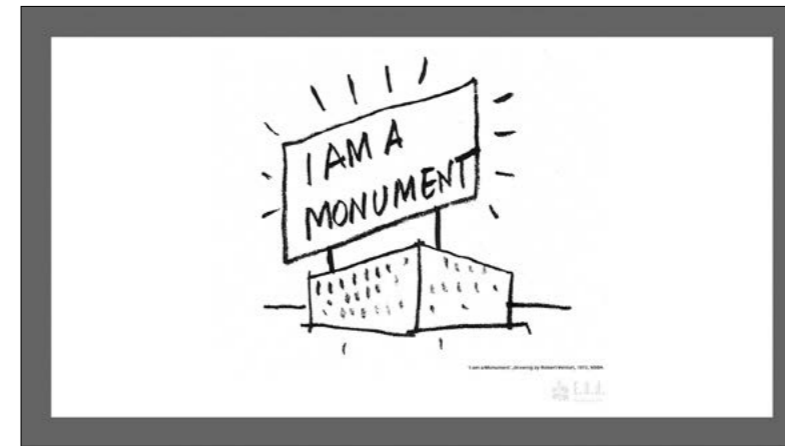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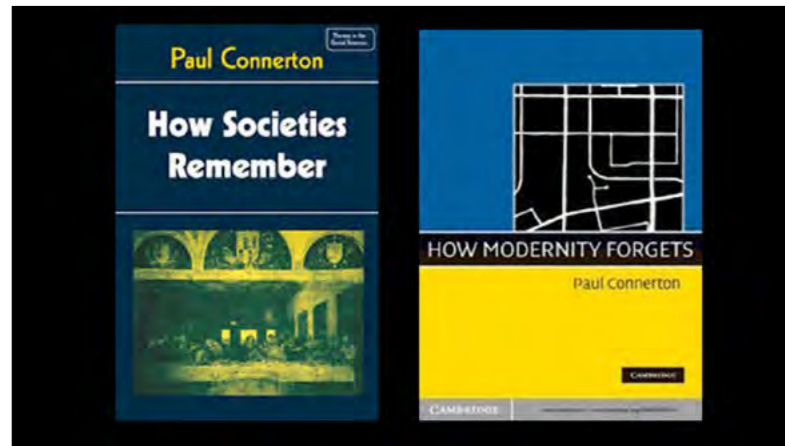
Neil Silberma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Coherit Associates



























## Theme 1

###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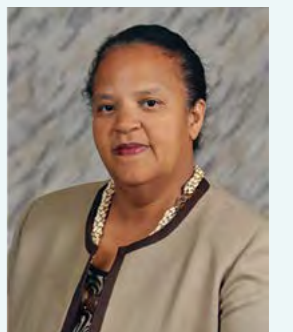
# Theme 1

##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

### Presentation 1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and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Alissandra Cummins | Director, of the Barbados Museum and Historical Society

**Alissandra Cummins GCM, B.A. (Hons.), M.A., FMA**

Currently Director of the Barbados Museum & Historical Society and Chairperson of the Barbados National Commission of UNESCO, Ms. Cummins was appointed/elected to a number of key posit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museum and heritage fields including: Chairperson - Executive Board, UNESCO (2012-2013); Chairperson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2007-2009); Rapporteur and Vice Chair - World Heritage Committee (2008-2011); President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2004 – 2010); Chairperson - UNESC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y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 (2003-2005); Vice President - Commonwealth Association of Museums (CAM) (1992-1998); President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aribbean Archaeology (IACA), (1991-1995); Founder President - Museums Association of the Caribbean (MAC) (1989-1992); Member - World Monuments Watch Selection Committee (2016-2018).

Ms. Cummins currently serves as: President - Editorial Boar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and UWI Principal Investigator, on EU-LAC-MUSEUMS, Museums and Community: Concepts, Experiences, and Sustainability in Europ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he also serves as: Member- Board,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and Member- Advisory Board, International Network of the Slave Route Project.

Ms. Cummins' work in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heritage stewardship and interpretation has garnered recognition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she has been awarded a Fellow of the Museums Association UK (1993), the Barbados Gold Crown of Merit (2005), Royal Order of the Sahametrei of Cambodia (2013). In 2017 she was designated a Member of CAM's Honorary Cowrie Circle as well as an Honorary Member of ICOM.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and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 Addressing the Presence of Absence and the Absence of Presence in Conceptions of Heritage.**

Alissandra Cummins,  
Director, of the Barbados Museum and Historical Society

###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context**

A paper on the **Royal African Company's operations in Barbados** in 2016 was given by a UK historian at the Barbados Museum and Historical Society, I was struck that a great part of the Q/A session with the mostly Barbadian audience was taken up not so much with interrogating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wealth engendered by the enterprise, and who benefitted, major questions which the history community were currently grappling with and their repercussion both on the UK historically and in the present but also on the Caribbean. Rather the audience was engrossed with questions related to the lack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Royal African Company, and indeed slavery heritage in general, on the island.

Some audience members wanted to know:

- where were the headquarters and barracoons of the Royal African Company located in the City?
- and questioned why – if Barbados' slave system – was so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the Atlantic economy, why wasn't there more public education about its role?
- and also why were there no markers (signage, monuments, etc.) that helped to explain this history to Barbadians and visitors?

They were right. In an island that was dominated historically by the trans-Atlantic connections that stimulated Britain's modern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slave trade and slavery and military hegemony, why did Barbadians not have more ready acces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se landmarks?

This absence of presence on the Barbadian landscape, beyond the mere locating of places and spaces of agricultural production, which historically and still today, pre-dominate the space physically, had not been addressed in any consistent fashion except within the pages of history books, or within the history or archaeology galleries of museums. Little or no attempt had been made to rectify this glaring omiss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right on site at the places or spaces which Barbadians interacted with every day, and making a tru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of these places over-time really accessible, most particularly to local audiences.

I am happy to say that this oversight has begun to be addressed, as much through the creation of more frequent themed heritage tours which address these processes, but also with the placement of interpretive markers and signage in locations around the island. A process which was designed

and developed by the Barbados World Heritage Committee, funded by the Barbados Tourism Product Authority, and commissioned from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and the Barbados Museum and Historical Society. This is a continuing process today – of realization, interrogation, participation and authentication, which I will address in more detail later in examining some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But for now I want to look at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keeping in mind their origins and trajectory over time.

###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Frantz Fanon in his seminal 1963 classic **“The Wretched of the Earth”** opines for example that:

*The settler makes history and is conscious of making it. And because he constantly refers to the history of his mother country, he clearly indicates that he himself is the extension of that mother country. Thus the history which he writes is not the history of the country which he plunders but the history of his own nation ...in regard to all that she skims off, all that she violates and starves.*

*The immobility to which the native is condemned can only be called in[to] question if the native decides to put an end to the history of colonization--the history of pillage -and to bring into existence the history of the nation--the history of decolonization. (Fanon, pp, 50-51)*

Fanon’s vision of the colonial world as “A world divided into compartments, a motionless, Manicheistic world, a world of statues: the statue of the general who carried out the conquest, the statue of the engineer who built the bridge; a world which is sure of itself... “(Fanon, pp 51)

Fanon’s world of statues can thus be viewed as part of this notion of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where the settler makes history and is conscious of making it while acknowledging the immobility to which the native is condemned .

We must therefore first acknowledge that heritage,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does not simply exist but is created. It is that process of creation (as articulated for example in Fanon’s world of statues) which is in contention, both in the past and still today; and it is that process of recognition of the conditionalities of settler and native (of colonizer and colonized), acknowledgement and identification, which occurs in both local and national, regional and indeed global contexts such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at determines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 shared history, which is recognizable as the accepted practice up to just over ten to fifteen years ago.

Colonialism has deeply and profoundly impacted many aspects of life – in the case of museums, it has impacted the origins of their collections, the scope of their narratives, but possibly also their current curatorial cultures and societal roles. Although the full scope of continued colonial legacies in the Caribbean is far too broad to discuss here, some of its possible effects on museums and heritage, but let me offer an example from an earlier period of evolving consciousness about migration.

In curating the Federation Day Exhibition on Aspects of the History of the West Indies, Dr. Elsa Goveia, the young advocate historian based at the department of history on the University College of the West Indies' Mona campus, sought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in public knowledge by promoting the importance of Federation as the foundation for a new nation and a new national identity, and found innovative opportunities to expand public knowledge.

Goveia, in her extensive Introduction to the 1959 exhibit provided, for the first time within the context of history-making in a West Indian educational institution, a seminal statement of the core of West Indian history. She states that 'Some will say that, among such people, history has stood still. But perhaps it would be better to say that, in them, history lives and will speak to us if we listen.' (Goveia,1959, p.2)

In a masterly recitation, recapitulation and restatement of Caribbean history, Goveia contextualized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to the advancement of empire. She then proceeded, through a deliberate reconstruction of West Indian history in several sections, to articulate the technical basis for the specificity of the black man's unfreedom within that history. Goveia elucidates:

*Freedom confers mobility. The slave's position is characterized by fixity. His status is a matter of law, which places him under the control of a master. The master decides his occupation and his place of residence. The law restricts his physical movement. He is coerced by law and by the master's will. (Goveia, p.30)*

She was convinced that 'shame about the past too often fills the place that should be held by knowledge. Knowledge of the past must play its part in our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the past'. (Goveia,p.42) Her conceptual approach to musealizing Caribbean history was innovative for its time and indeed revolutionary, graphically depicting the bonds of enslavement which tied the contemporary Caribbean to its complex, historical past in a way never previously articulated in Caribbean museums. For many of those who regarded themselves as West Indians, Elsa Goveia laid out the issue:

It is important to ask what this nation is. If it includes all the people of the Federation, the national Government is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on. That Government must be given powers commensurate with its responsibilities. Otherwise it will prove to be as impotent in the face of needs and desires of its citizens as was Crown Colony government in relation to its subjects. Changes of government will be meaningless until we have settle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our national identity. In the earlier struggle for our political rights, it was perhaps enough to be anti-British. Now that we face Independence, and the immense problems which it will bring, it has become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should know whether we are West Indians.(Goveia,p.40)

It is a crucial part of Michel – Rolph Trouillot's thesis that much of the past, even the past which is preserved in records, gets "silenced," gets passed over or pushed to the background. History



is after all the human narration of that reality as seen by the historian. It does not spring to life of its own volition, and therefore needs to be acknowledged for what it is. Trouillot brings to attention in his 1995 book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is the story of how history is produced and how this selective "silencing" occurs.

Of course, the verso is there too -- history is the story of what is not silenced, of what is broadcast and generally accepted as "history", the general narrative of the past that most of us learn and internalize. History is conceived as an official structured and organised account of events that happened in the past and that must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the past. History studies the past as the past.

Trouillot also reminds us *"human beings participate in history both as actors and narrators."* Events and processes often leave traces -- records of various texts, and ideally, the narration of history is from these sources. However, no historian, no narrator of the past, has access to all sources, nor deems each source of the same value or power in creating the narration. To some genuine extent each historical narrative is a fictional story, but with special power.

Trouillot is concerned with the various silences which spring up in the process of making history and he identifies four specifically:

-there is a silencing in the making of sources. Which events even get described or remembered in a manner which allows them to transcend the present in which they occurred? Not everything gets remembered or recorded. Some parts of reality get silenced.

-there is a silencing in the creation of archives -- the repositories of historical records. Again, choices are made, accidents occur, judgments made, and some of our recorded past is silenced. At times this archival silencing is permanent since the records do not get preserved; other times the silencing is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 for the attention of the narrators, the later tellers of the historical tales.

-the narrators themselves necessarily silence much. In most of history the archives are massive. Choices, selections, valuing must be done. In this process, huge areas of archival remains are silenced.

-finally, not every narrative becomes a part of the "corpus," the standard historical narrative received and accepted by various groups as the past. This "corpus" will be different for professional historians, critical readers, the general public and so on, but only a handful of narrations become the final product: "history."

From my perspective therefore there is a need in an exercise such as this, where we are considering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and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for a fundamental comprehension of these issues as contextualizing (and informing) any consideration of the significance of heritage interpretation, not just at sites of memory, but within the museum and

anywhere else that humans exist and participate in heritage production and interpretation, because *history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d at the same time, it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heritage.*

If, as Sharon Macdonald has suggested, the act of 'just having a museum' was itself a 'performative utterance of having an identity' (Macdonald 2003, 3) the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useum is a valorization process, not generally captured in the national narrative which it tends to legitimize simply by virtue of the selection of aspects of heritage presented within its galleries.

Similar processes when engaged are compounded by a common Caribbean consciousness of a shared memory or shared heritage of slavery, indenture, plantations, colonial oppression, migration both forced and free, which is assigned a distinctive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contemporary Caribbean self/identity. Museums and communities must together seek to reconstruct/make visible that earlier world without borders, telling a story that often remains unseen/unspoken (and thus sharing in the conspiracy of silence which often surrounds it) but which has essentially constructed our view not only of each other but of ourselves. It is necessary to confront if we are together to reclaim a shared identity, and in so doing help to constitute a world without borders. Cultural Theorist Stuart Hall opines that:

-The viewer should be able to read a particular narrative in the context of other narratives and understand that its identity is always positional. ...This is a difficult exercise because museums, in spite of what we would like to think, are deeply enmeshed in systems of power and privilege.

-But it cannot be long before museums of modern art come to look more and more like what the architect Cedric Price in the recent show at InIVA described as 'cultural centres', characterised by 'calculated uncertainty and conscious incompleteness'

-Museums have to understand their collections and their practices as what I can only call 'temporary stabilisations'. What they are - and they must be specific things or they have no interest - is as much defined by what they are not. Their identities are determined by their constitutive outside; they are defined by what they lack and by their other. The relation to the other no longer operates as a dialogue of paternalistic apologetic disposition.

-It has to be aware that it is a narrative, a selection, whose purpose is not just to disturb the viewer but to itself be disturbed by what it cannot be, by its necessary exclusions. It must make its own disturbance evident so that the viewer is not entrapped into the universalised logic of thinking whereby because something has been ther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s well funded, it must be 'true' and of value in some aesthetic sense. Its purpose is to destabilise its own stabilities. Of course, it has to risk saying, 'This is what I think is worth seeing and preserving', but it has to turn its criteria of selectivity inside out so that the viewer becomes of both the frame and what is framed.

Laurajane Smith's 2006 seminal publication *The Uses of Heritage*, addressed key issues affecting

today's conception of heritage - this book re-theorized the idea of heritage. Smith challenged traditional Western definitions of heritage that focussed on material and monumental forms of 'old', or aesthetically pleasing, tangible heritage, which are all too often used to promote an unchallenging consensual view of both the past and the present. An alternative conception of heritage was developed which establishes and develops themes of memory, performance, identity, intangibility, dissonance and place.

But perhaps what was more important about this publication is that it used this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ore and... document both the ways in which heritage is used in a socially conservative fashion, and cases where heritage is used to actively question received ideas about identity...[and] ... This challenging and thought-provoking work confronts the assumptions often found in the study and use of heritage.

Smith cites the moment of realization when she finds 'heritage work', being in place, renewing memories and associations, sharing experiences with kinswomen to cement present and future social and familial relationships. Heritage wasn't only about the past – though it was that too – it also wasn't just about material things – though it was that as well – heritage was a process of engagement, an act of communication and an act of making meaning in and for the present.

More recently in discussing the parameters of Smith's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Ashely and Frank have posited that: " 'Heritage' is one social imaginary used by people to define identity in relation to ideas about the past. But global flows of people, ideas, imaginations and technologies (Appadurai 1996; Urry 2007) are challenging established group/community/national identities and the dominating systems and discourses of power that constitute heritage."

They go on further to explain that ...Important to us are the power relations that constitute the shifting, contested and puzzling assumptions of difference used to define 'inside' and 'outside' positionality (Hall 1999; Littler 2005)".

Finally, they opine that:

"We see 'heritage-making' as a process of cultural production in relation to the past by which people make sense of their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as well as strategically assert their voices in the public sphere. Heritage is interpreted not as an intrinsic quality possessed by objects, buildings or places or even intangible practices, but a signification or valuation of the past undertaken by all humans to give meaning to their lives. Heritage as 'making' is a performative act; an active and affective expression of individual and community senses of self (Robertson 2012)."

Heritage as "a form of past-in-the-present"(Littler 2005:16) therefore refers to a fundamentally open process for negotiating the selection, documentation, interpreta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past, which is actively shaped by social groups with different opportunities for asserting themselves.

##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It is both in this process of negotiating the "signification or valuation of the past" and in the recognition/ awareness of heritage-making as a "performative act" and finally of asserting "an active and affective expression of individual and community senses of self" that I think we can see as a nexus within which interpretation must lie and that there needs to be both consciousness and conscientiousness about this situation before one can proceed to interpret sites, monuments, places, spaces, art, archives or artefacts. whether it is through signage, tours, apps, websites, guide books, museum exhibits or interpretive centres, all of these effectively can 'represent' our 'sense of self'.

The development of heritage interpretation resources such as outlined above, must be balanced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Smith has articulated which are very much what has informed major changes in heritage interpretation – acknowledging that:

*Heritage wasn't only about the past –*

*heritage was a process of engagement,*

*it was an act of communication and*

*an act of making meaning in and for the present.*

In my view we need to understand these a forming context. A contex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act of interpretation is not simply about developing standards for a technical endeavour, or about enhancing the experience of "authenticity" when visiting a site, but rather it is first and foremost about understanding the origin, the role and, if you like the 'legacy', of heritage and its interpretation.

These are key factors which have affected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heritage and can/have informed our understanding and our professional practice in a number of ways:

The interLinking of national/regional/ international histories as interconnected patterns– understanding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vis a vis the Windrush Legacy of Post World War II migration – are thus not isolated incidents.

Moving from monologic to dialogic interpretive and activist approaches

Moving from passive presenters to active engagement

Moving from an authoritative discourse to a participatory conversation – a co-curation process

Moving from an object centred to a people centred approach

Utilizing multi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processes

Recovering hidden histories and mainstreaming marginalized memories

Moving from museum/heritage practice to heritage/museum purpose



### Moving from importance of places to accentuating the importance of people

In my view it is this understanding that heritage can no longer rely on the certainty of monumentality, antiquity, fixity or permanence to allow its definition as which acknowledges its 'calculated uncertainty and conscious incompleteness' which must be of 'disturbance' and 'destabilization', 'dislocation' and 'dislocation' particularly which has the greatest potential for Caribbean heritage/ museums given the audiences which is their first priority. What follows are some of the strategies employed in addressing this notion of 'disruption and dislocate which still resonates with the Caribbean subconsciousness and thus may serve as a useful model for museum and heritage practitioners to address the themes of marginality, recovery, intervention, implantation and interaction which so infuses of Caribbean identities, and how in 'performing' heritage they might best activate marginal histories.

**Rhodes Must Fall** for example was a protest movement that began on 9 March 2015, originally directed against a statue at the University of Cape Town (UCT) that commemorates Cecil Rhodes and all that such monuments had come to symbolize. The campaign for the statue's removal received global attention and led to a wider movement to "decolonise" education across South Africa and indeed the world academy. The fact that this movement intersected with the slower moving but older campaign to "decolonize the museum" (and indeed the library and the archive) served to reenergize mechanisms for interrogating what Laurajane Smith termed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redefining both the parameters and the mechanisms for assigning significance to heritage, safeguarding 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and sustaining of our intraregional relations, and the methodologies by which we ascribe value, whether shared or regional, national or cultural all of which still have to be worked through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Rather than knocking the controversial sculptures off their pedestals, or banishing them from their prominent locations, London-based artist Hew Locke's creative response involves smothering images of the statues in layers of cheaply sourced, often garish or gruesome regalia. In so doing, he hopes to illuminate a past that is all too often glossed over. Locke has found a new way to reveal overlooked or marginalized histories—by re-imagining the statues of dead white males who benefited from colonialism or the slave trade. Locke's interest in the power of statues and empire builders goes back to his childhood in Guyana. "There was a Queen Victoria statue that I passed every day to get to school," he recalls. "It had bits knocked off it and was lying on its side at the back of the Botanical Gardens, essentially dumped. That was a complete shock." The statue was blown up during Guyana's struggle for independence, but when Locke returned after relations with Britain had improved, he found that the statue had been restored and returned to its place.

The various ways bits of history are celebrated, dumped, and then reappraised has been central

to his work. Since the 1980s, Locke has been re-imagining public sculptures of colonial-era heroes by embellishing large-format photographs of them. They have included generals, philanthropists, slave traders, and Queen Victoria. In Birmingham Locke was given permission to decorate an actual public sculpture, turn the statue of Queen Victoria in Queen's Square into a "Voodoo Queen." In Barbados At the entrance of the Barbados Museum which hosted the EULAC funded Arrivants: Art and Migration in the Anglophone Caribbean World exhibition Hew Locke's piece on Lord Nelson. The Barbados monument has been a source of controversy as the former British colony and now independent nation has renamed the sculpture's location "National Heroes Square." This move alone has necessitated a rethinking of the historical narratives surrounding Nelson's legacy as the protector of Great Britain's hold on the Caribbean island.

Locke's treatment of Lord Nelson differs from many of his other monuments. Rather than being draped with the trappings of his conquests, images seem to emerge as ghostly apparitions, an aura of the violence that characterized the colonial era. On the marble base of the statue the wrought iron railings surrounding it have been reinterpreted as rows of bound slaves. Skulls and bodies emerge from the patinated bronze of Nelson's figure like silent witnesses and victims. His military jacket is transformed into the Union Jack, emphasizing Nelson's role as the embodiment of the Empire's naval power.

moving between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s in order to show how these time scales structured the ways in which exhibitions are presented. It might be argued that removing ethnographic objects from their cultural setting and inserting them into the visual system of the museum, breaks the dynamic web of physical and social meanings. Acknowledging that the museum's system of displaying its ethnographic collection was shaped by colonialism in a way that resulted in the marginalisation of certain communities, reorganizing collections according to indigenous forms of knowledge and relationships between things—can transformed to convey new postcolonial meanings.

Charles R. Garoian in **Performing Pedagogy: towards an Art of Politics** (1999) justifies his reasons for activating museum spaces with performance and performance art as a way "to rupture the privileged institutional structures inherent within the museum and to transform the museum space from a repository of objects to that of aesthetic contemplation and contestation" (1999: 211-212). These projects suggest a relationship between museum and performance led initiatives whereby museum spaces were activated through dramatization, intervention, interaction and adaptation. Whereby participant 'actors' are in fact represented by people performing not what they seem to be but who they imagined they are.

In respect of some curatorial initiatives drawing on Caribbean performative heritage Krista Thompson has suggested that:

These curatorial projects [...] offer interesting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modes of display and

narration of Caribbean art [or history] in museums. They ask what constitutes the art object, museum, and exhibition venue in different socio-political and aesthetic contexts? How might curators develop new approaches to objects and their presentation and display inspired by the art, visual culture, and histories of visibility in the region? And how may notions of the museum and exhibition be rethought through artistic and visual practices in the Caribbean, which can be highly performative, multi-sensorial, ephemeral, about the surface or its invisible depths? Finally, how might forms of curation from the region inspire exhibitions that interrogate the limits of visibility, the histories of things that remained unseen, unspoken, unsignified?

How can we give them the tools to resist hegemonic systems of interpretation and representation so that they may comfortably engage with diverse, even conflicting, expressions of the past?

August 2008, Sonia Boyce's two-screen video installation entitled 'Crop-Over', accompanied by photographs by William Cummins, temporarily replaced the Barbados Museum's permanent art exhibition in the Cunard Gallery. As art historian Allison Thompson has written, 'It samples a wide range of related performances, some real and some staged by the artist. The result is a pseudo-documentary, pseudo-pantomime collage of events that subtly reveals the multiple dimensions of this creolized spectacle' (Thompson 2009, 148). She further observes that 'Boyce's video interjects the scholarly commentary of cultural historians into scenes of popular and traditional culture, deliberately building up layers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hat seek to identify and historicize these cultural icons but also to problematize them' (ibid). In fact the quasi-total absence of Carnival within contemporary Caribbean museum exhibitions is matched by its near oblivion from historical and critical art discourses and silences its relevance as a signifier of Caribbean identity.

Given the notions of resistance which informed historically and now underpin implicitly contemporary carnival, the curating of Carnival or similar festivals should be at the core of the museum exhibition's discourse and display, but remains instead largely artificial and anthropological practice (Paul 2007, 32). Such a silence and absence of the 'performative' dimension of Caribbean heritage in many museums does not recognise the carnival state as a truly Caribbean lifestyle, language and lexicography. In fact playing 'mas', masquerade or carnival is functionally the real 'alternate legitimacy', both in the region's historical past and in its modernity, a fact which clearly reveals the fault lines in curatorial practice with its focus on traditional media, when paradoxically the format of the exhibition space might lend itself to an expansion of this aspect of regional intangible heritage but often inherently sublimates the aspiration of Caribbean people to the assumed legitimacy of professional practice. Indeed it is comprehension of the 'Carnival' state as peculiar to the religiosity of being 'in the spirit', as central to identity and existence, which has the potential for experimentation and re-affirmation of a former footnote to the exhibition's grand narrative. The Museum thus becomes an active site for contestation and communication of histories, memories and identities. 'Spectatorship'

actually requires that we actively participate and take a position about what we are seeing.

This was both an effort to preserve fugitive narratives that have not yet been inscribed as history, and to produce new knowledge of the past by collectivizing a vast oral history resource. Most significantly, it represented an intention to de-center the narrative authority from the institution to its diverse constituencies; we conceived of a museum in which the curatorial voice could ultimately be displaced by the narrative chorus of those who are part of the culture and participated in the history shown there.

In my view, given the essentially fragmentary nature of Caribbean culture/identity, the 'intangible heritage' of the performance piece perhaps best elides with our notions of valid expressions of Caribbean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Contemporary Caribbean curatorship requires that museums contend directly with how to represent the silences, absences and dislocations which so frequently prescribe the historical and modern day experience.

**The Presence of Absence** has been the interrogated by those of engaged with the process of restructuring/restoring/relocating the enslaved heritage sites of the Caribbean. By grappling with that which should be there, but isn't, and that which shouldn't be there, but is still felt, seen or heard, they have begun to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by which sites of memory can be identified, signified and interpreted. The initial concept comes from an awareness that an absence of anything—a person, an action, an idea—often affects us more acutely than that which may be concretely present, and enables us to explore the tension between that which is and that which is not in a variety of media and from a multitude of perspectives.

Presence manifests in two distinct ways: firstly, through focusing on the physical structures or objects, content, systems or rituals informing and constituting the dominant discourses in each place; secondly a privileging of the ocular over other senses both when experiencing, and subsequently representing, each place. By focusing on absence as the research basis for interpretation, this problematizes the dominant discourses and ways of conceptualizing a physical space or place. Fieldwork and research in each locale identifies sites of absence, which are then investigated through interpretive practice.

The identification of absences is achieved through a kind of biopsy process, a procedural method that structures the fieldwork in each location. The biopsy method of extracting data, conceptually and materially, has enabled a consideration of a city for example 'as body'; this, in turn, enables the foregrounding of an embodied experience of each city.

In this research, the fieldwork has revealed a diversity of absences identified through the biopsies of, for example, death, gender, minority groups, ritual, pilgrimage, mapping, transient structures and historical uses of site. In the resulting interpretations, new understandings of absence are highlight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power dynamics, social exclusion, cultural rituals, and



through an investigation of absence as both subject and site, the research offers new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of absence in and of each site.

\* We need to continue our efforts to identify, document and preserve the histories of marginalized groups and share their experiences and culture with the wider society so that an appreciation for our overall diversity can be positively accessed and internalized, but its valoriz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adoption of fully participatory processes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representation of contested histories/memories as well as the marginalization of indigenous peoples and other minorities with society.

\*Exhibition space within Museums should demonstrate a more egalitarian approach to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stories even to the point of including those stories which may not represent the most positive experiences or memories of a society

\*While monuments of the ruling classes of society also form a part of the historic record and should not necessarily be removed it is equally important to create and dedicate similar spaces for the marginalized and/or oppressed histories which represent the alternate stories of concurrent historical periods.

\*Similar to the above public education should be the main focus of practitioners when engaging in complex and difficult narratives – the idea here is to encourage the understanding within the wider populations of the multiple nature of histories/historical perspectives which have influenced the society and its relationships of power

\*Education and engagement should therefore not just document histories but also locate them within the context of current protocols and policies regarding human rights, indigenous people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cultural property, intangible (and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s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Our conceptions of the world limit what is even "thinkable" as heritage and functions as a silencing of the past. Bu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ontested heritage? And how does one define them? It can be quite a complex process, not so much in terms of identifying, commissioning and compiling the listings, but rather the investment has been in exploring how we could arrive at a rational process of the "signification or valuation of the past" in which nations and communities have a choice (and really must choose) how they wished to be presented and represented (both to themselves and to others) in a more nuanced and inclusive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s it is concerned 'with both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shaping of the land'.

The question before us is how to measurably balance the consideration of history and memory, custom and tradition, presence and absence in elucidating the interpretative silences of heritage spaces and places and characterizing their significance.

## REFERENCES

-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shley, Susan L. T. and Sybille Frank. 2016. Introduction: Heritage-Outside-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2:7, 501-503.
- Fanon, Frantz. {1961} 1963. *The Wretched of the Earth*, Grove Press.
- Garoian, Charles R. 1999. *Performing Pedagogy: towards an Art of Politics*. Albany Suny Press.
- Goveia, Elsa V. 1959. 'An Introduction to the Federation Day Exhibition on Aspects of the History of the West Indies', University College of the West Indies.
- Hall, Stuart. 1999. "Whose Heritage? Un-settling 'the Heritage', Re-imagining the Post-nation." *Third Text* 13 (49): 3–13.
- Littler, Jo. 2005. British heritage and the legacies of 'race' in Littler and Naidoo (eds.) *The Politics of Heritage*, Routledge
- McDonald, Sharon. 2003. 'Museums, national, postnational and transcultural identities', in *Museum and Society* 1 (1): 1 – 16.
- Paul, Annie. 2007. *Visualizing Art in the Caribbean*, in *Infinite Island: Contemporary Caribbean Art*.
- Simon, Roger I., and Susan L. T. Ashley. 2010. "Heritage and Practices of Public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 (4–5): 247–254.
- Smith, Laurajane. 2006. *The Uses of Heritage*. London: Routledge.
- Smith, Laurajane. 2012. "Editorial. A Critical Heritag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8 (6): 533–540.
- Thompson, Allison. 2009. Sonia Boyce and Cropover, *Small Axe*, 13 (2): 148-163.
- Thompson, Krista. 2013. *Destroying While Preserving Junkanoo: The Junkanoo Museum in the Bahamas* in Cummins, A. (Ed.), Farmer, K. (Ed.), & Russell, R. (Ed.). *Plantation to Nation: Caribbean Museums and National Identity*.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rouillot, Michel-Rolph. 1995.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eacon Press.
- Urry, John.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ty.

# Theme 1

## Changing Trends in Heritage Interpretation

---

### Presentation 2

#### Interpretation of Heritage in the Framework of UNESCO



Yujie Zhu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r. Yujie Zhu** is a lecturer at the Centre for Heritage and Museum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politics of cultural heritage, commemoration, and cultural tourism. He is the author of *Heritage and Romantic Consumption in China* (2018), and the co-editor of *Politics of Scale* (2018) and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at World Heritage Sites* (2009). Dr. Zhu is also the Vic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Critical Heritage Studies. His work has been featured in var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dia outlets including *Financial Times*, *ABC Australia*, and *China Daily*. Since 2006, he has also worked as a heritage and tourism consultant in China, Spain and India.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Evolving Conceptions of Heritage

# Interpretation of Heritage in the Framework of UNESCO *Past, Present and Future*

Seoul, Republic of Korea, 14 Ma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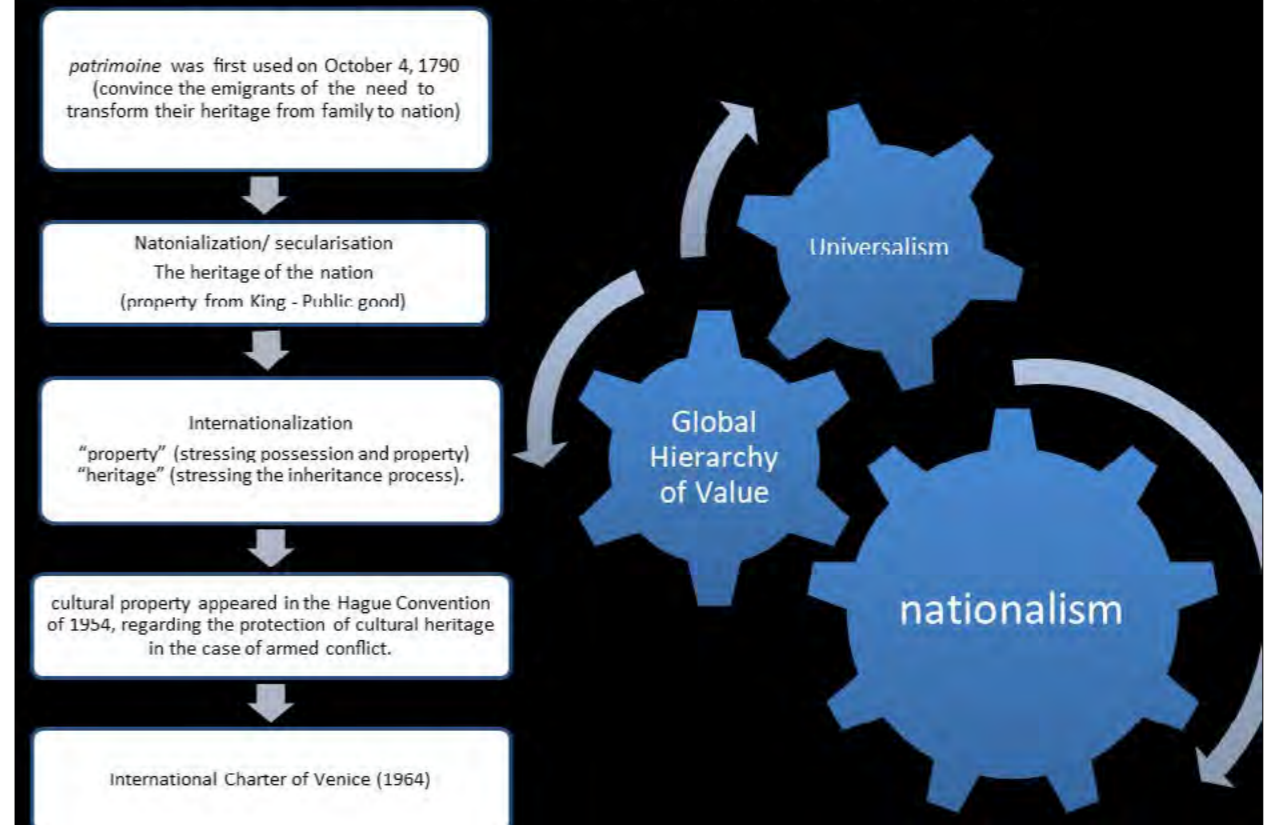
Dr Yujie Zhu  
College of Arts and Social Scienc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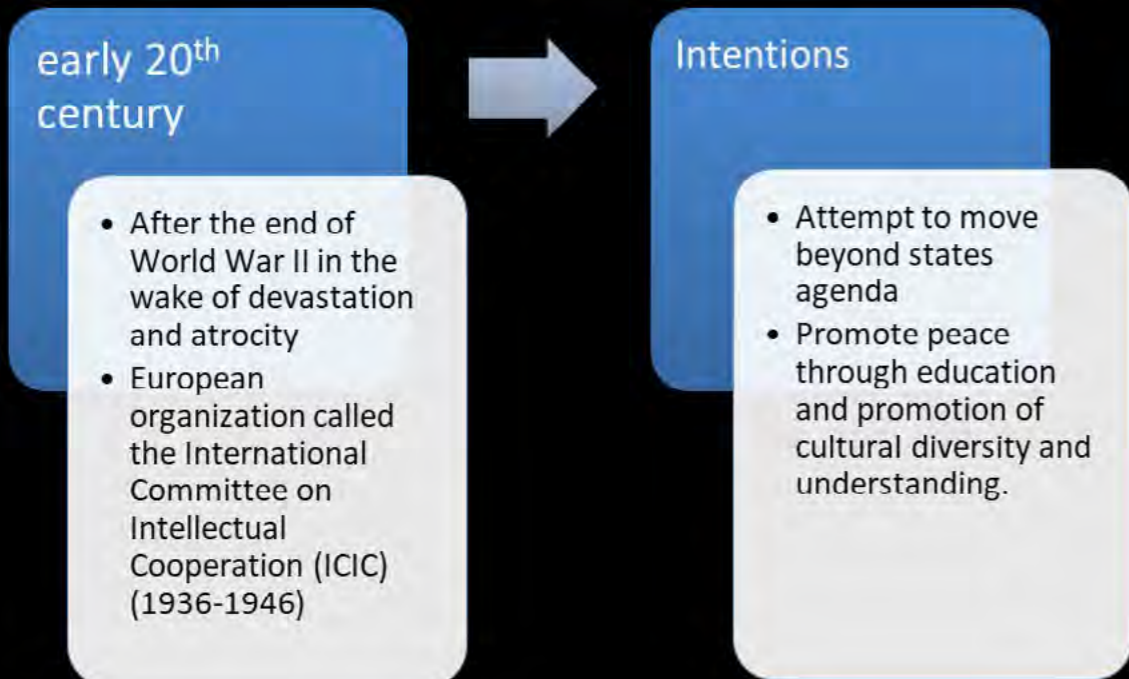
## Structure

- **Past: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heritage in the context of UNESCO**
- Present : Trends and Challenges of Heritage interpretations
- Future: Tasks and Potent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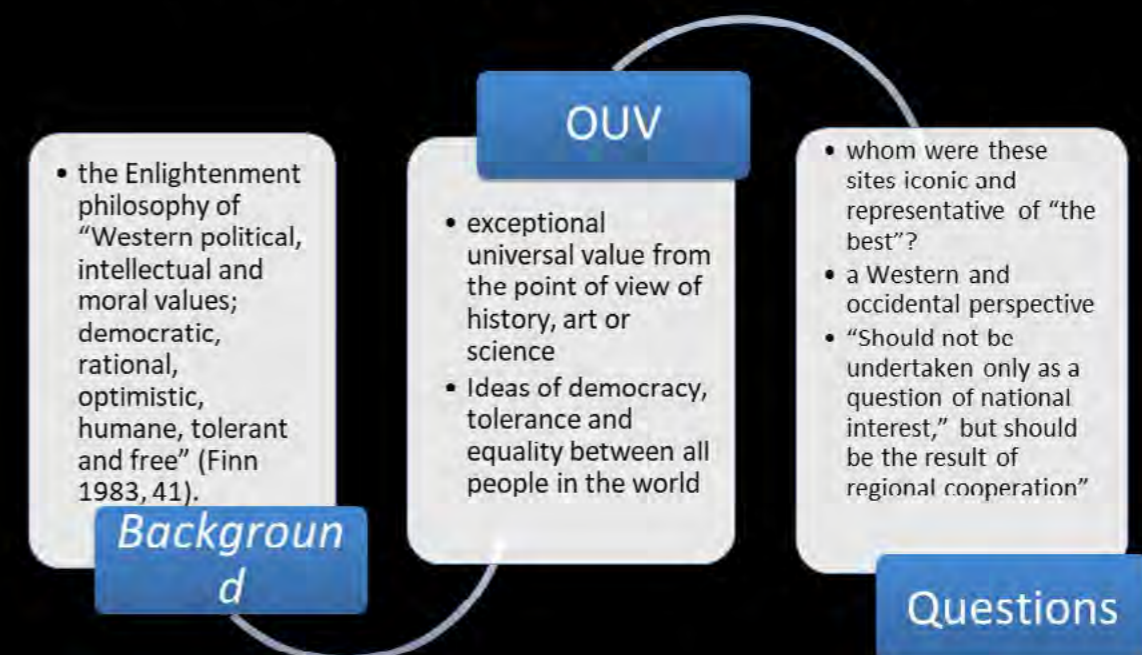
## 2. Conceptual history of Heritage



## 1. The historical context of UNESCO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Structure

- Past: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heritage in the context of UNESCO
- **Present : Trends and Challenges of Heritage interpretations**
- Future: Tasks and Potentials

# From Masterpieces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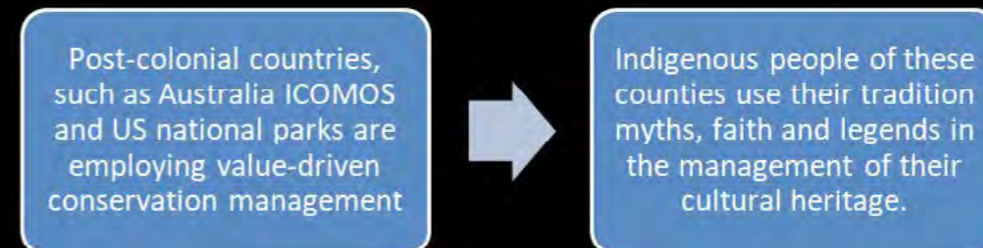


# Trends 1: Extension of Typology

- Cultural landscape:  
'cultural landscape' allows the inscription due to their 'religious, artistic, and cultural association of the natural element rather than material culture'.

# Trend 2: From 'monumentalist' to 'anthropological'

- 'Laurent Lévi-Strauss's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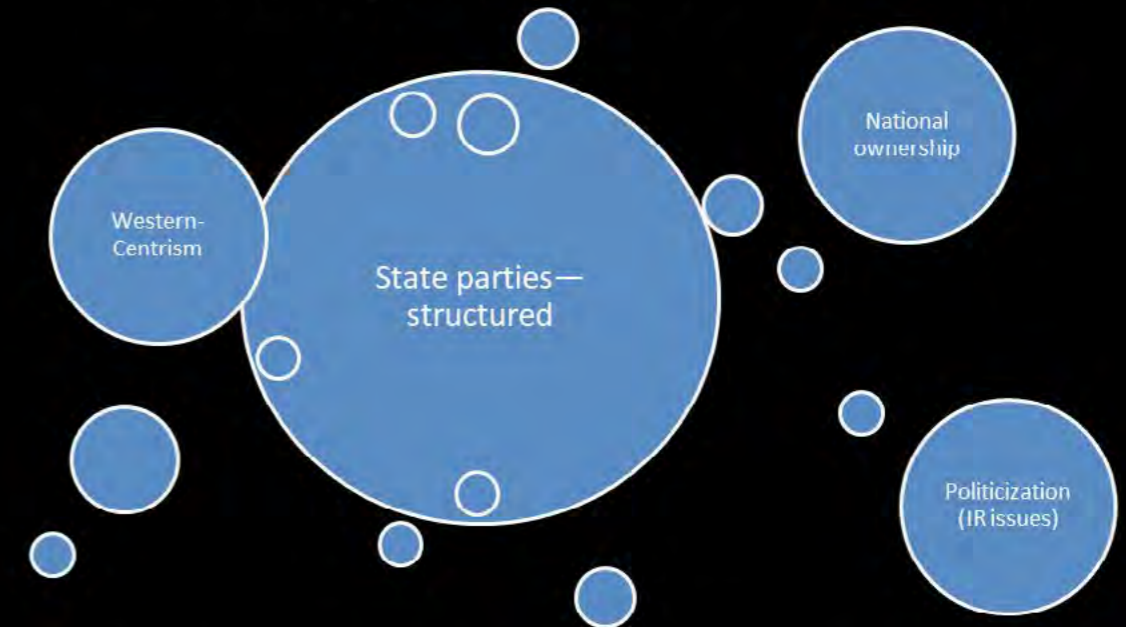
### Trend 3: Revisions of operational guidelines UNESCO's shifting perceptions of heritage

Scope and definition	administration	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st</li> <li>• authenticity</li> <li>• Sea-use/land-u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mination</li> <li>• timefra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dibility</li> <li>• Conservation</li> <li>• Capacity building</li> <li>• Communication</li> <li>• Communities (new Zealand 2007)</li> </ul>

###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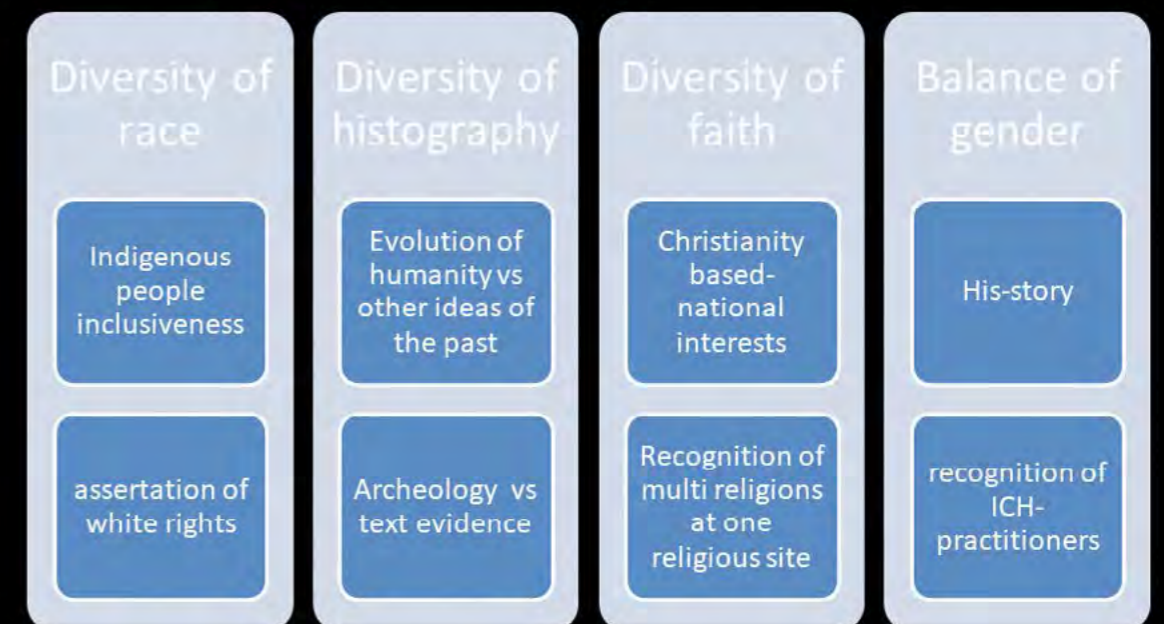
- Past: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heritage in the context of UNESCO
- Present : Trends and **Challenges of Heritage interpretations**
- Future: Tasks and Potentials

### Challenge 1: Structure issues



Non-western states mimic the rhetoric of European conservation culture and use it as a tool for national building (institutions, discourse, language)

### Challenges 2: Representation issues- Equality, Diversity, and Balance





## Diversity of the regions

- Global studies since 1994 to solve the problem of geographical imbalance
- However, results show imbalance still maintain since 1994.
- Limitation of the studies: some states are more active, while others do not hav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apacity

## Community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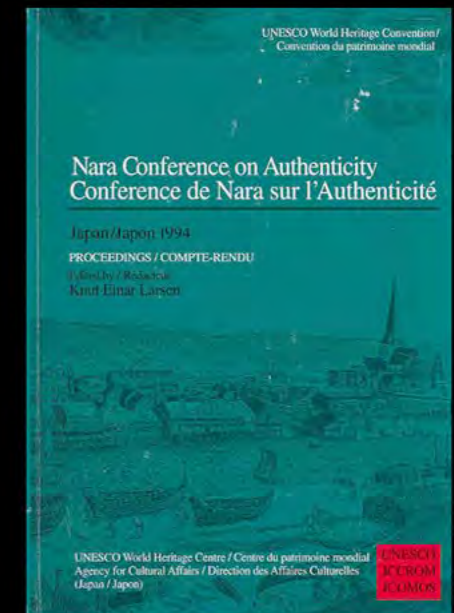
- Who belongs to the community?
- How to make consensus building
- The power relation between experts and people



## Challenge 3: Ideas implementation Safeguarding

- How to Safeguard without fossilization?
- Safeguarding mean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 (UNESCO ICH Convention article 2)

## Authenti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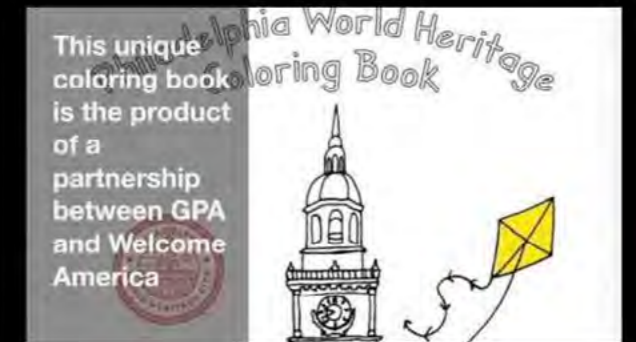
## Sustainable development/ carrying capacity

- UNESCO- UNWTO
- How to implement?
- The question of carrying capacity: How many is 'too many'?



## Training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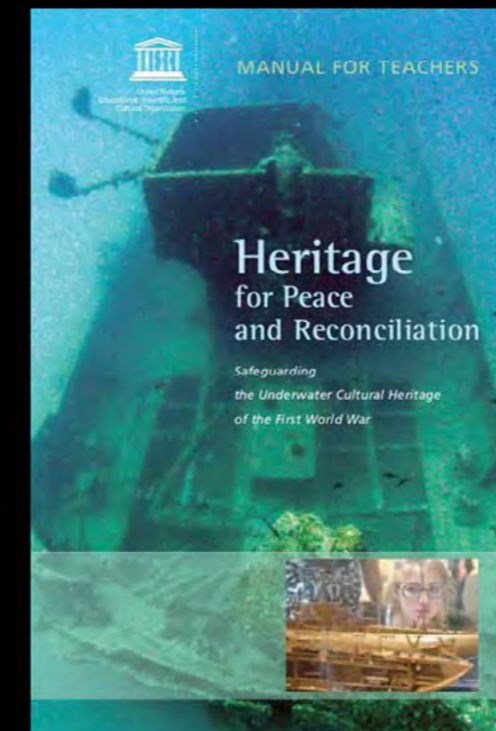
- Training professionals
- Training managers
- Training practitioners
- Educating tourists



## Structure

- Past: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heritage in the context of UNESCO
- Present : Trends and Challenges of Heritage interpretations
- **Future: Tasks and Potentials**

## Reconciliation and reparation







## Theme 2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

## Theme 2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

---

#### Presentation 1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



William Logan | Deakin University

**William Logan** is Professor Emeritus at Deakin University and fellow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Australia. He was formerly UNESCO Chair of Heritage and Urbanism at Deakin University, member of the Victorian Heritage Council and president of Australia ICOMOS. He has undertaken UNESCO and ICOMOS missions to Bangladesh (Paharpur), China (Lijiang), Laos (Luang Prabang, Wat Phou, Plain of Jars), Pakistan (Moenjodaro) and Vietnam (Hanoi, Hue). He has published extensively on cultural heritag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human rights, peace and security, cities and urban planning, World Heritage and Vietnamese and other Asian heritage. He co-edited the Routledge 'Key Issues in Cultural Heritage' book series (2009-2019) and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Heritage Studies (2016) and he is a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THE RECONCILIATION OF CULTURES

William Logan  
Deakin University

### I. HERITAGE, POWER AND POLITICS

This year's conference aims to highlight the evolving conceptions of cultural heritage. While traditionally cultural heritage has been widely mainly understood on the basis of archaeological and architectural values, the concept has moved on considerably in the last 50 years since the adoption of UNESCO's 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and now embraces intangible values alongside tangible. I have been asked to talk about how World Heritage sites can be interpreted in ways that will foster the reconciliation of cultures. To talk of the 'reconciliation of cultures' suggests a process of cultural assimilation whereas w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fession are concerned to keep cultures alive. Although cultural differences are commonly used to argue for and justify conflict, such conflict is not between cultures but between people, communities and nations. The preamble to UNESCO's founding Constitution of 1945, largely attributed to Julian Huxley, explains out that

...ignorance of each other's ways and lives has been a common cause,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of that suspicion and mistrust between the peoples of the world through which their differences have all too often broken into war.

What we are really talking about is not the reconciliation of cultures but the reconciliation of people, communities or nations, usually once physical hostilities have ended. Perhaps the title of my paper should be 'Heritage interpretation for post-conflict reconciliation'.

Memories of an international or civil conflict do not end with the cease-fire. They continue on and ar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we must now consider in World Heritage nomination and management practices, including interpretation. Of course, it is now well recognized that heritage significance lies in the eye of the beholder. Heritage significance is an attributed rather than an inherent property of places and things. People as individuals, communities and nations are not all agreed on what makes a historic place or intangible heritage element significant. This particularly true where the heritage reflects bitter conflicts of the past and where tensions continue to be felt today.

To understand why some places are inscribed on heritage registers and other are not it is necessary to recognise that the creation of 'heritage' is the result of a process that is essentially political in the sense that it i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decision-making power in societies,

be they local communities, nation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Places are nominated because they reflect the narrative endorsed by the offici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m, and that, in turn, almost always conforms to the vision of the society help by the political regime in power and its supporters. While the key requirement for World Heritage listing i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is concept has seems to have shifted to mean places whose outstanding value is to the nominating nation.

Interpreting places and artefacts is equally political. The messages provided to visitors in interpretation panels and brochures and electronically in videotapes and online will normally also fit the official vision. When the places and artefacts are remembered differently by opposing sides in a conflict, such nationalistic interpretation reinforces divisions and maintains or even increases tension. If we are seeking to use heritage interpretation to achieve reconciliation and to avoid future conflict, we must develop interpretation strategies aimed at reducing rather than prolonging tensions between previously warring peoples and helping them to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 II. UNESCO CONSTITUTION, CONVENTIONS AND POLICIES

Given this general context what considerations—principles even—might enable the interpretation of heritage sites to reduce increase tensions? As we are focussing on World Heritage in this conference, our starting point must be UNESCO's constitutional charter which declares the organization's principal aim of building bridges to peace in the minds of men. The constitution was adopted in 1945 at a time when the world was coming to terms with WW2 and associated gross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especially the Nazi murder of huge numbers of Jews as well as gypsies, homosexuals and others, all essentially slaughtered because their cultures and ways of life differed from the Aryan culture mythologized by the Nazis. The constitution has been revised many times, but this overriding objective of building bridges to peace remains in all revisions. The objective is as relevant in today's troubled world as it ever was. The question is how to go about it.

UNESCO has sought to achieve the objective in its many normative statements, programs, policies, procedures and practices. Time permits mention of only a few examples. UNESCO's position vis-à-vis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human rights has, for instance, greatly strengthened over the years. The scope of human rights has also widened from the early emphasis on individual rights to the rights of collectives, which is relevant to efforts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of minority groups within countries (Jakubowski 2016). The first UNESCO Conventions, includ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did not refer to human rights. By the time, however, that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was drafted,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had become mandatory and it appears at the start of the Convention's preamble as an overriding matter.

UNESCO has very few policies in the cultural heritage area.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implemented through a set of Operational Guidelines that are revised at intervals, the last time being in July 2017 (UNESCO 2017). There is a nomenclature problem here in that 'guidelines' merely guide; that is, the term implies that States Parti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may follow the Operational Guidelines at their discretion. By contrast, like conventions, UNESCO policies apply to all Member States. In any case, the current Operational Guidelines use the term only twice and peripherally and no reference is made to reconciliation at all.

The United Nations, however, set out a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in key documents such a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GA 2015) as well as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UN 2015). As a member of the UN family of institutions, UNESCO recognized that it had a responsibility to promote this agenda and to ensure that all of its programs adhere to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This includes its programs relating to the safeguarding of heritage under its various conventions and in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established in 1992. An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f which I was a member, was set up to draft a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policy was approved by UNESCO's General Assembly in November 2015.

The policy says much about peace and reconciliation. It follows the formulation adopted by the UN for discussing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which this is seen as being dependent on three overarching principles (human rights, equality and long-term sustainability) and four main sets of factor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fostering of peace and secur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ossibil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e undermined by war, civil conflict and other forms of violence including terrorist attacks on civilians.

The policy points to the inherent potential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of their conservation to contribute to conflict resolution and the re-establishment of peace and security. Heritage conservation projects can act as mechanisms to re-establish cooperation between previously warring States Parties or communities within them and, because of this, they should be included where appropriate in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s aimed at ending conflicts. The policy envisages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their wider settings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reconstruction of conflict-affected communities by rebuilding group



identity, supporting jobs and generating income for the local economy.

To enable this to happen, however, the policy calls for States Parties to use the inclusive approaches promoting engagement of multiple stakeholders that are required by other sections of the policy. States Parties should consider Tentative List additions and nominations for World Heritage listing that ‘have the potential to generate fruitful dialogues between States Parties and different cultural communities...’ (para 30iii). They should adopt cross-culturally sensitive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para 30iv), and they should consider transboundary/transnational nominations with potential to foster dialogue (para 30v).

The successful passage of the policy through the UNESCO General Assembly was a major step for the organization and its World Heritage program, establishing a common framework of principles and aspirational goals for all the relevant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rucial work of implementing the policy through the adoption of revised Operational Guidelines and other mechanisms has, however, still to be completed.

### III. INSCRIPTION OF SITES RELATED TO RECENT CONFLICTS

Until recently only three conflict-related sites wer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uschwitz Birkenau in Poland (inscribed 1979); the 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 in Japan (1996); and the 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in the Marshall Islands (2010). Over the last decade, however, a sudden increase in the number of sites being considered for nomination has raised concern. Some of this increase was related to the centenary of World War 1: ‘Funerary and Memorial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 (nominated by Belgium and France in 2018); and ‘Çanakkale (Dardanelles) and Gelibolu (Gallipoli) Battle Zones in the First World War’ (added to Turkey’s Tentative List in 2014). But eight other places of pain and shame relating to recent conflicts sites were on Tentative Lists, ranging from the Normandy sites of beach landings by allied troops in World War 2 to genocide sites in Rwanda, a torture and extermination camp in Argentina and a battlefield memorial in Stalingrad (now Volgograd) in Russia.

Another nomination,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inscribed in 2015, was focused on Japan’s economic history but was controversial because at several of the sites conscripted Korean labourers had been made to work. This had been noted in interpretation panels at some of the sites and the conflict at the 2015 World Heritage Committee in Bonn was only resolved by Japan promising to provide similar interpretation at other sites, particularly at Hashima Island.

When the Belgian and French funerary and memorial sites nominations were consider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t its 2018 meeting in Bahrain it was agreed to hold over the decision until a ‘comprehensive reflection’ by an expert group with States Parties input has taken place an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discussed and decided at its 2020 session ‘whether and how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might relate to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orld Heritage Committee, Decision 42 COM 8B.24).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Advisory Body on cultural heritage matters, ICOMOS, had recommended this approach and had already issued in April 2018 a discussion paper entitled Evaluations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ICOMOS 2018) that canvassed the challenges of evaluating such sites. The Committee requested the World Heritage Centre to report back to its next session scheduled for June-July 2019 session in Baku, Azerbaijan (World Heritage Committee, Decision 42 COM 5A). As of 20 April the expert meeting had not yet taken place.

Other documents underpin the ICOMOS discussion paper, notably the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by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and the Vimy Decla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attlefield Terrain (drafts 2000, 2009). The first of these studies was commissioned by UNESCO’s World Heritage Centre and funded by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defines a Site of Memory as a ‘specific location with architectural or archaeological evidence, or even specific landscape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linked to the memorial aspects of the place’ (para 47). It insists that such a site must be considered in a multi-community and/or a global perspective and notes that often there is the ‘potential for multiple, sometimes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se places’ (para 47). The study defines sites of memory broadly, as ‘places which are vested with historical, social or cultural significance because of what has happened there in the past. Such places can be of particular significance given their role in shaping the identity of a community or nation’ (para 51). ‘Sites with memorial aspects related to conflicts’ are more narrowly defined as (para 57), with war sites (battlefields, war cemeteries) at the top of the list. Places that record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heritage, such as Bamiyan, Palmyra, Timbuktu and Mostar, are also listed.

In terms of site interpretation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para 66) sets out seven principal objectives for interpretation. It calls for the authenticity of sites to be respected by ‘communicating the significance of their historic fabric and cultural values and protecting them from the adverse impact of intrusive interpretive infrastructure, visitor pressure, inaccurate or inappropriate interpretation’ (Objective 4). It also encourages ‘inclusiveness i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by facilitating the involvement of stakeholders and associated communitie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pretive programmes' (Objective 6).

Drafted first in 2000 and finalised by the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Fortifications and Military Heritage (ICOFORT) in 2009, the Vimy Declaration concentrates on war sites. Its Preamble (para 1) makes clear the reasons why battlefields are so as emotive and why they, themselves, so easily become the subject of conflict.: The Declaration focuses more than the other documents mentioned on the practical issues of physic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cluding planning, treatment, repairs and maintenance, as well as the accommodation of education, tourism and commemoration activities. Both the ICOMOS Charter and the Vimy Declaration anticipate the discussion we are having today but neither mention 'peace' or 'reconciliation' specifically.

#### IV. INTERPRETATION CASE STUDIES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se issues, especially in relation to site interpretation. How can interpret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measure up to these concerns?

In order to build bridges to peace in the minds of men it is essential to overcome suspicion, fear, hostility towards those different from ourselves. Site interpretation needs to explain these differences in terms that the visitor can understand. The other culture needs to be portrayed sensitively. More needs to be told than just the narrative about the conflict that is officially approved by the regime in power—if it is a recent conflict this is usually the victor—but also how the site is understood by others involved in the conflict.

In fact there are very few good examples to be found, which highlights the many difficulties hindering the reconciliation between former enemies. Chief among these difficulties are that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community contexts are constantly shifting, and that national interest nearly always dominates interpretation strategies. Even conflicts that occurred centuries ago can find new relevance in the light of current political events. Flodden Field, the site of a 1513 battle between the English and Scots, has new interest due the recent rise of Scottish nationalism and moves towards independence. The very considerable expenditure on heritage sites in Scotland over the last decade is no doubt made electorally acceptable by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One of these—Culloden, another battlefield, this time from 1746—is one of the best interpretation examples in the United Kingdom, using cutting edge technology as well a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main display with Scottish and English views opposite each other. Tower Museum in Derry/Londonderry, Northern Ireland, uses the same approach to showing

both sides to the city's 'troubles'.

The Çanakkale (Dardanelles) and Gelibolu (Gallipoli) Battle Zones in the First World War on Turkey's Tentative List is another case in which reconciliation possibilities have changed, here negatively, as the result of current political events. This site is important national heritage of Turkey, Australia, New Zealand and, to a lesser extent, other belligerents. This is heritage based on myths that have become central to conceptions of both Turkish and Australian nationhood. The words of the Turkish leader, Ataturk, set a tone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Mehmets' and 'Johnnies' at the site and are used in memorial service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t was one of the finest examples of a site of reconciliation between peoples of different cultures. This tone has been seriously undermined by the nationalistic electioneering in Turkey in March-April 2019 which is likely to impact on the number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visitors to the site for this year's ANZAC memorial services and therefore on the local economy and to sour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longer term.

Australians have another important piece of extraterritorial battlefield heritage at Long Tan in Vietnam. Twice-yearly services commemorating Australian losses in the 1966 battle were permitted under a set of strict protocols. Growing attendance at the services and other breaches of the protocols saw an end to Vietnamese government tolerance and the services were halted. In Thailand Australia funded a memorial interpretation centre on the World War 2 Thai-Burma Railway. This, too, faces an uncertain future and care has to be taken here, as at Long Tan, not to directly threaten the official war narrative of the host government. These are national rather than World Heritage matters although there is some suggestion that Thailand is considering part of the Thai-Burma Railway for future nomination.

There are many other cases where site interpretation has had to conform to the narrative officially approved by national governments. At the Thang Long-Hanoi Imperial Citadel in Vietnam, the French colonial elements are barely tolerated while at the Van Mieu (Confucian Temple of Literature) in the same city the attempt to explain the site's Chinese architectural precedents and influences had to be largely omitted. In other cases where governments do safeguard minority group rights and acknowledge multiple voices in heritage interpretation, some of the stakeholders are wary of any attempt to merge their voices into a 'shared' heritage. This has been the case sometimes in Australia where European settlement is seen by many Indigenous and other Australians as an invasion followed by frontier wars. Under such circumstances, such critics argue that the heritage interpretative is always ultimately managed by the dominant party and the best one can hope for is to tell parallel stories about heritage sites.



#### IV. WHAT IS THE SOLUTION?

I'm sure you in the audience will know of other problematic attempts to interpret sites of conflict and to use the interpretation as a means to achieving reconciliation between previously belligerent sides. Where do we go from here? It is asking too much of UNESCO to act as policeman. The organization can monitor but it has little power to enforce. It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de up of States Parties that jealously guard their independence and put national interests first. UNESCO is dependent on the goodwill and cooperation of its members and its chief mode of operation is to inspire; that is, to challenge and encourage its Member States to embrace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engage in intercultural dialogue, to maintain the cultures of their minorities, and to avoid exacerbating problems, reviving or heightening tensions. The task is fraught with difficulties but not without hope.

With regard to developing interpretation strategies that foster reconciliation some positive changes have been occurring, some driven by the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the ICOMOS Discussion Paper and decisions taken at the 2018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others driven by tensions directly flowing out of the conflicts themselves. In October 2015 UNESCO listed a set of Chinese documents relating to the 1937 Nanjing Massacre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Japan withheld its obligatory dues of around USD30 million, forcing UNESCO Executive Board in October 2017 to establish a new procedure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s of all concerned nations in its World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when historical and political sensitivities are involved. The Board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on UNESCO to seek to avoid aggravating political tensions among Member States in line with its fundamental aim of working towards mutual understanding.

What else might UNESCO do? It could do more to foster dialogue between and within Member States through the use of cross-culturally sensitive interpretatio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been steadily tightening up the inscription process since the early 1990s, such as requiring specific Stateme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OUV)—or Retrospective SOUV for existing inscriptions—and clearer management plans. It is perhaps time to require new nomination dossiers also to include an Interpretation Plan and, for existing properties, to prepare a Retrospective Interpretation Plan. Such interpretation plans should not only elaborate on the significance of the heritage sites from the nominating State Party's point of view, but also set that heritage into a world context and, where relevant, to tell the various sides of the history and highlighting messages of reconciliation and peace. It might also be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nominations that move away from the promotion of the nation to the promotion of dialogue and peace.

In the book on the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that I co-edited with

Danish scholar Peter Bille Larsen (Larsen and Logan 2018), I expand on the ways that UNESCO might extend its efforts towards the achievement of peace and security. My chapter concludes with a reality-check, emphasizing that the success of these efforts ultimately depends, not on UNESCO—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as it is—but on the Member States and, in relation to World Heritage, the States Parti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this respect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a model through selectively funding relevant UNESCO activities,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report and conference such as the one taking place today.

## REFERENCES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8).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activities/933/>.

ICOFORT (2009). Vimy Decla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attlefield Terrain). Available at: <http://www.veterans.gc.ca/eng/remembrance/memorials/overseas/first-world-war/france/vimy/declaration>.

ICOMOS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Available at: [https://www.icomos.org/charters/interpretation\\_e.pdf](https://www.icomos.org/charters/interpretation_e.pdf)

ICOMOS (2018). Evaluations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ICOMOS Discussion Paper. Available at: [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World\\_Heritage/ICOMOS\\_Discussion\\_paper\\_Sites\\_associated\\_with\\_Memories\\_of\\_Recent\\_Conflicts.pdf](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World_Heritage/ICOMOS_Discussion_paper_Sites_associated_with_Memories_of_Recent_Conflicts.pdf).

Jakubowski, A. (ed.) (2016). Cultural Rights as Collective Rights: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Brill Neihoff: Leiden, Netherlands.

Larsen, P. B. and Logan, W. (eds) (2018).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London: Routledge.

UNESCO (2015).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nline). Available at: <http://whc.unesco.org/en/sustainabledevelopment/>.

UNESCO (2017).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aris: UNESCO.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the Reconciliation of Cultures

William Log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ritage Interpret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14 May 2019

### Content of presentation

- I. Heritage, culture, power and conflict
- II. UNESCO Constitution, conventions and policies
- III. Inscription of sites related to recent conflicts
- IV. Interpretation case studies
- V. What is the solution?

“...ignorance of each other’s ways and lives has been a common cause,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of that suspicion and mistrust between the peoples of the world through which their differences have all too often broken into war”

Preamble, UNESCO Constitution 1945



## UNESCO follows the UN's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
-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UN 2015)

As a member of the UN family, UNESCO recognized its responsibility to promote this agenda

-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Drafted Cottbus, Germany, and Ninh Binh, Vietnam
  -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 approved by UNESCO's General Assembly in November 2015

3

##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seen as dependent on:

### three overarching principles:

- human rights
- equality
- long-term sustainability

### four main sets of factors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 **peace and security**

4

## Nominations relating to recent conflicts

### Inscribed:

1. Auschwitz Birkenau (Poland, 1979)
2. 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 (Japan, 1996)
3. 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Marshall Islands, 2010)

### Nominated:

1. 'Funerary and Memorial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 (Belgium and France, 2018)



Vimy Ridge

## Tentative Lists

1. 'Cuito Cuanavale, Site of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ngola, 2017)
2. 'ESMA Site Museum – Former Clandestine Centre of Detention, Torture and Extermination' (Argentina, 2017)
3. 'Terrefal Concentration Camp' (Cabo Verde, 2016)
4. 'Normandy's Debarkation Beaches, 1944' (France, 2014)
5. 'Cellular Jail, Andaman Islands' (India, 2014)
6. 'Mamayev Kurgan Memorial Complex "To the Heroes of the Battle of Stalingrad"' (Russia, 2014)
7. 'Genocide Memorial Sites' (Rwanda, 2012)
8. 'The Walk of Peace from the Alps to the Adriatic – Heritage of the First World War' (Slovenia, 2016)
9. '**Çanakkale (Dardanelles) and Gelibolu (Gallipoli) Battle Zones in the First World War'** (Turkey, 2014)

6



- World Heritage Committee, Decision 42 COM 8B.24
- World Heritage Committee, Decision 42 COM 5A
- *Evaluations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ICOMOS 2018)
- *The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8)
-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ICOMOS 2008)
- *Vimy Decla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attlefield Terrain* (ICOFORT 2009)

7

Flodden Field, northern England – 1513 battle between the English and the Scots

This ground, known as Flodden Field, was once a field of battle, enmity and carnage. But today, there is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most of all of friendship.

On that fateful day, near five hundred years ago, it was the hills, the valleys, the rivers, the streams, the hidden denes, the boggy ground that were the key to victory. It was here, where today cattle graze and crops flourish, that cannonade crashed, and men fought and died.

9

**A time of change**

As European people moved into north Queensland, Aboriginal people were forced off their traditional lands. Confrontation with settlers, loss of traditional food sources and disease took their toll.

The Wulgurukaba were still living on Magnetic Island as late as the 1920-30's. They developed good relationships with the European settlers, for instance, bartering with the poorly-provisioned occupants of the Quarantine Station in the 1870's for fish. But they were eventually forced to leave the island and live on Missions on the mainland.

8

Australian Indigenous heritage interpretation panel, Magnetic Island, Queensland

Àrach Blàr Chuil-Lodair  
àite don fh-uile duine  
Culloden Battlefield  
a place for everyone

Culloden Battlefield  
is a War Grave  
We ask that you treat it with respect

Culloden Battlefield and Interpretation Centre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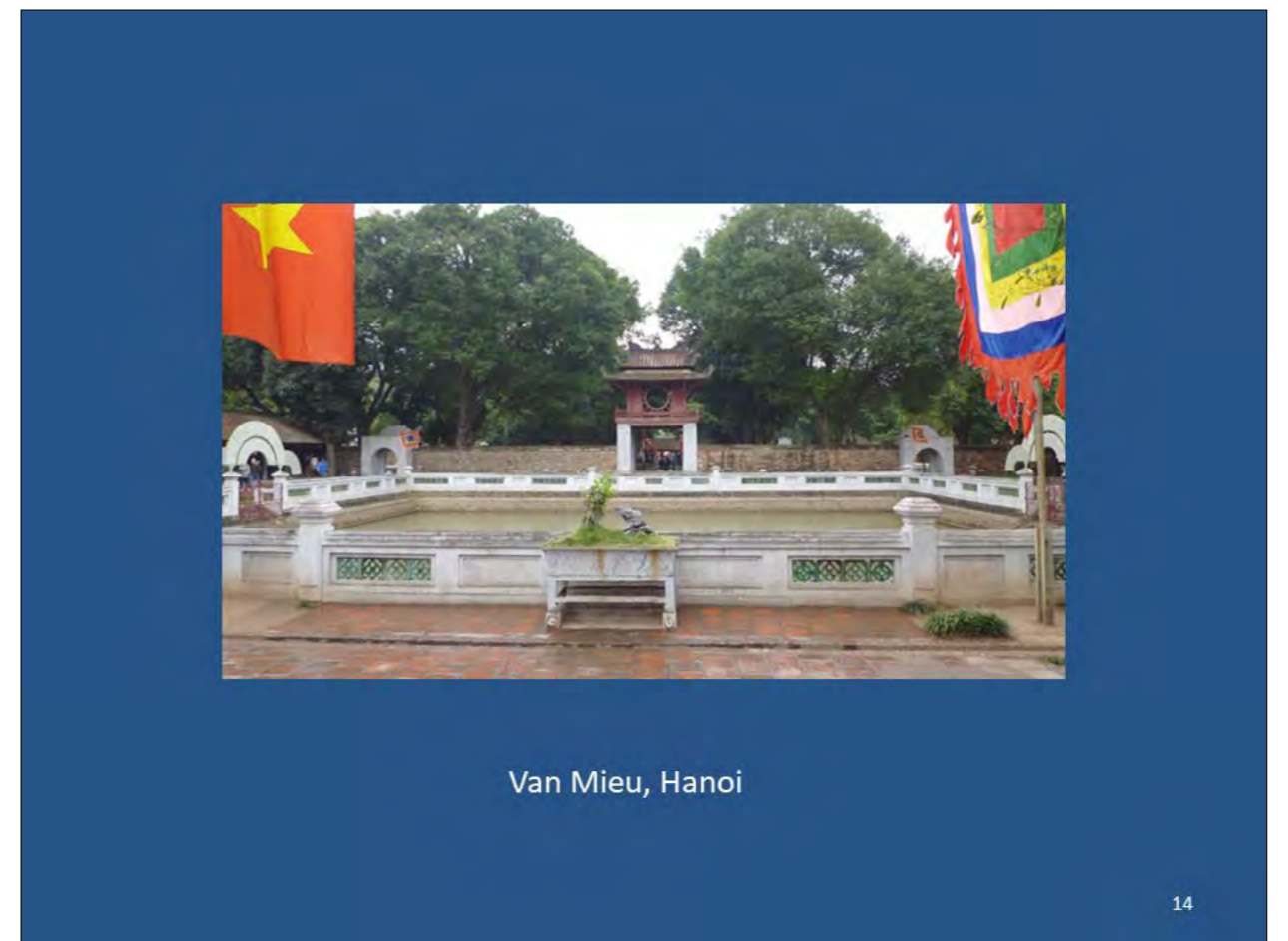
Commonwealth War Graves, Gallipoli



Turkish War Graves, Gelibolu



Thang Long Hanoi Citadel



Van Mieu, Hanoi



**Thank you**

William Logan  
[wl@deakin.edu.au](mailto:wl@deakin.edu.a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ritage Interpret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14 May 2019

## Theme 2

### Heritage Interpretation for Reconciliation of Cultures

---

#### Presentation 2

#### Re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of Stari Most



Amra Hadžimuhamedović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Sarajevo

**Amra Hadžimuhamedović**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Forum Bosnia), Ph.D. in architecture, teaches history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conservation a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Sarajevo. As the leading expert in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Annex 8 of Dayton Peace Accord for Bosnia and Herzegovina she has been managing the diverse projects of integrating cultural heritage into post-war recovery. She has worked as a consultant for UNESCO, ICCROM; World Bank and OSCE. She has worked in Palestine and Kosovo, guest-lectured on heritage in war and post-war, on theory and philosophy of conservation across the world, and published widely, including the books *Heritage, War and Peace*; *Human Rights and Destruction of Cultural Memory* (editor), and *Bosnia: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co-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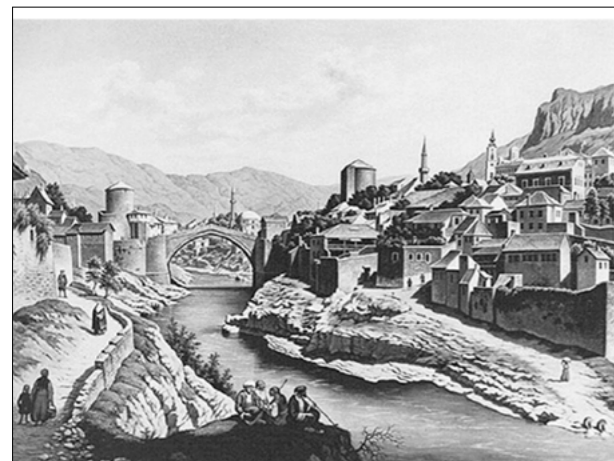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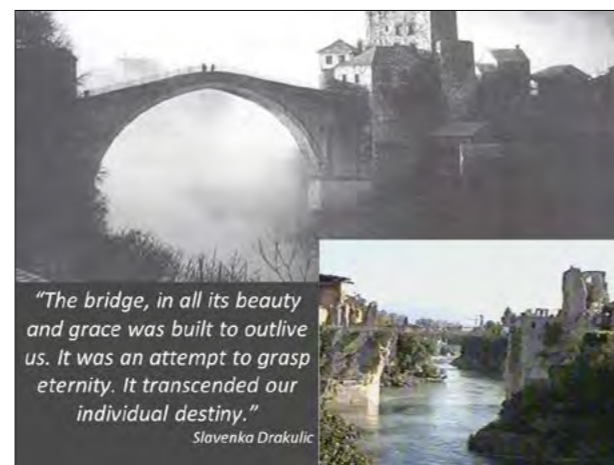
**BOSNIA – DESTROYING PEOPLE AND HERITAGE IN WAR**

Statistics of de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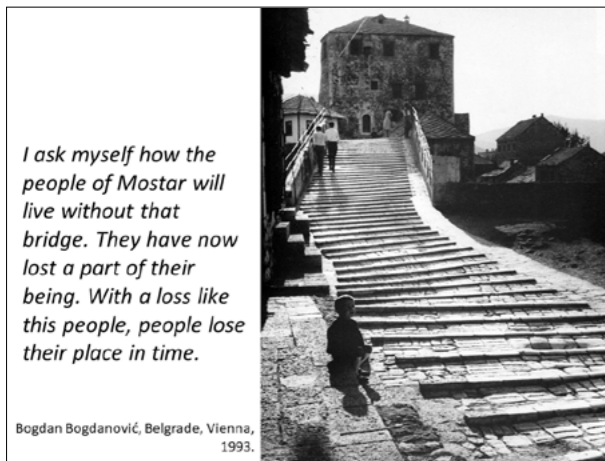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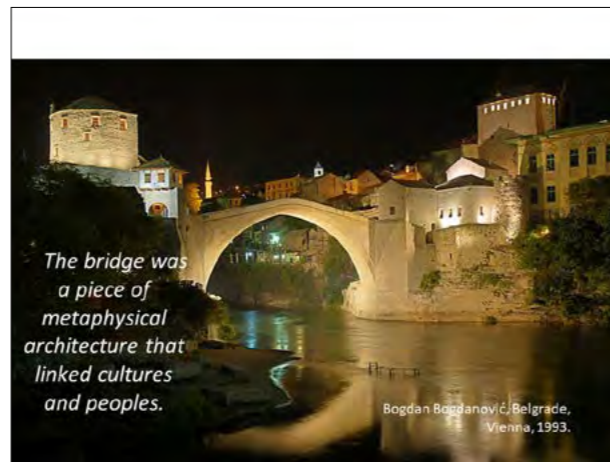
- More than 3000 enlisted heritage sites
- 1179 Mosques
- 382 Catholic Churches
- 106 Christian Orthodox churches
- 5 Jewish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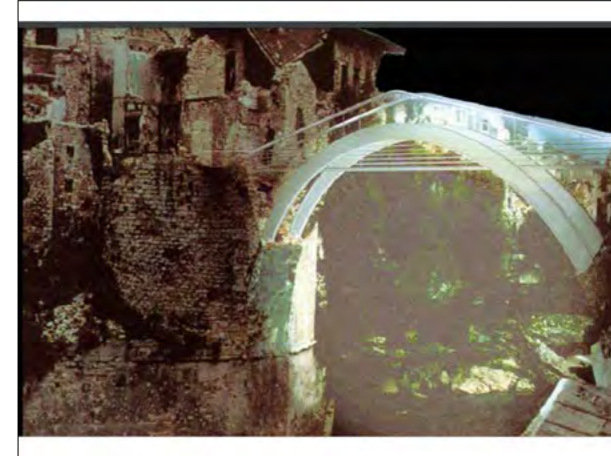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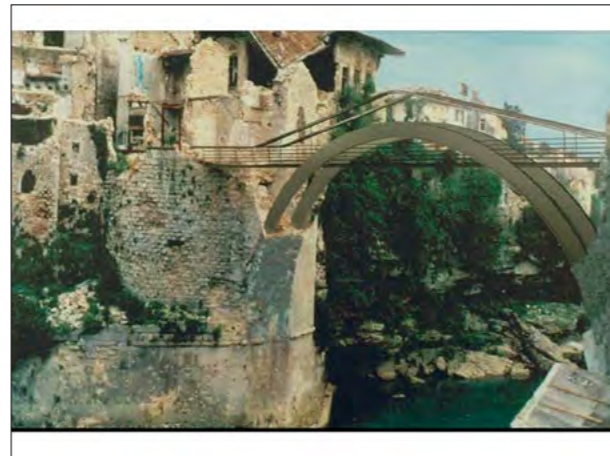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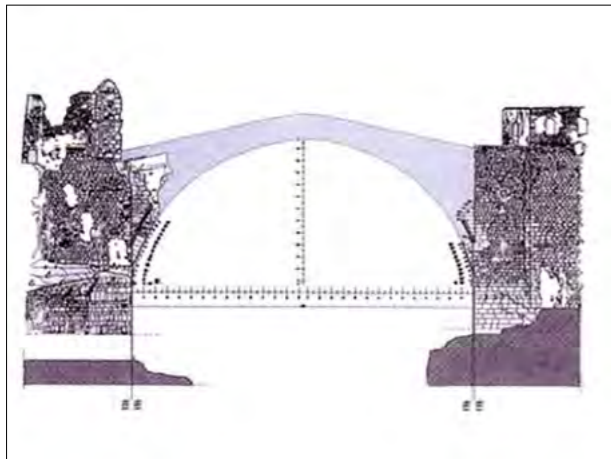












“a compromise between what is desirable, what is acceptable, and what is achievable”

